



9

198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9호

(루계 503)



◆◆◆◆◆◆◆◆ 차 례 ◆◆◆◆◆◆◆◆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4
위치	5
잊을수 없는 노래 부르며	14
태양.....	15
수령님 안아오신 만풍년 노래하세	15
불후의 저작을 발표하시고.....	16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19
계급사회의 비운의 생활정서를 깊이있게 담은 시 형상	19
붉은별	21
흰눈.....	29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30
불밝은 거리에서	31
불멸의 구호나무앞에서 (외 1 편).....	33
백두의 고향집을 떠나오며.....	33
그 높이에 오르기전에는	34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과 예술적 탐구.....	35
열일곱사람의 웃음	38

《전대협》 100 만 학도가 축전장을 행진해 간다	43
한겨레 (외 1 편).....	44
꽃을 받아다오	44
아, 평양의 밤이여	45
세월과 더불어	46
아름다운 풍경	53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 관건적 문제	60
금강산 조선의 산아	63
직선침로로 가는 길	64
실화문학의 문학적 품격 문제.....	68
학교가는 딸에게	73
내 마음속의 조선	74
평양.....	75
나의 담임선생님	76
산원의 꽃	77
고구려의 옛산성에 올라	78
타다남은 바람벽앞에서	80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홍문수

가장 기름진 생활의 흐름이
그대의 하늘아래 넘치고있다
가장 멀리 있던 미래가
그대의 대지위에 꽃피고있다

때없이 듣게 되는 저 웃음소리
오늘처럼 행복으로 여문적이 없었고
오가는 바람결도
오늘처럼 향기로 목메인적 없었나니

조국이어! 은혜론 향도의 빛발아래
그리도 강대하고 풍요해진 모습으로
세상 제일로 높아진 존엄으로
그 이름 누리에 펼쳐가는
그대 기슭의 끝은 어딘가

수억만 창문이 빛나는 거리
화려한 그 추녀밀을 거닐어보자
그 혜택 대를 이어 차례질
비날론도시의 은빛지붕 안아보자

밀림에 날리던 항일의 붉은기
렬사릉에 펼쳐지던 그날을 되새기자
새 전투구령 화불들고 받아안던
결기회의 광장의 그밤을 추억하자

아, 수려한 강산에
지혜론 인민이 살면서도
지구의 울타리밖으로

밀리워나야 했던 조국에
눈부신 오늘을 가꿔온 우리 당

우리 식의 발걸음으로 헤쳐갈길 열어주며
밤 모르던 당중앙의 불빛이 비끼여
이 나라의 별무리들 유난히도 반짝이지 않던가
집집마다 삶의 환희 피어나지 않던가

한번 번뜩이면 세기를 밝히는 그 예지
어리면 개간지에 금물결 설레고
천만산악 가슴 헤쳐 억만보화 쏟아놓는
필승불패의 향도의 기치따라
주체의 새세계 이 땅우에 펼쳐놓고
천하를 굽어보는 나의 조국이어!

령토는 크지 않아도
인구는 많지 많아도
위대한 당이 있어
강토도 민족도 위대해진 조선
인류의 마음속으로
그 기슭 끝없이 넓어지는 내 나라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나의 조국은 영원히
온 세상이 우리르는 눈부신 모습으로
우리 당의 그 이름 펼쳐가리라
우리 당의 그 기치 빛내가리라
아아, 당과 함께 무궁할 위대한 조국이어!

위치

차승철

추지령은 높고 험한 령이다. 아흔아홉굽이하고도 아홉굽이가 더 된다는 가파로운 굽이길이 석비례층의 산벼랑을 뚫으며 령마루로 간신히 뻗어올랐는데 고로쇠며 단풍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선 경사 급한 수림을 바탕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좁은 신작로는 마치도 새하얀 띠를 마구 던져놓은것 같다. 일지가 령서내륙지방의 농산물을 뽑아넘겨 배로 실어가느라 토목공사를 다섯해나마 해서 닦았다는 3등도로는 해방이 되자 피피하리만치 한적해졌다. 자동차운행이란 거의 없고 이따금 장작이나 숯토리를 실은 달구지가 넘나들뿐인 령길은 여름 장마에 마구 무너져내린 사태와 물뚝으로 하여 신작로라기보단 험한 산판길 같았다.

그 길을 따라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가 천천히 령을 내려고있었다.

운전사는 조향륜에 몸을 바짝 다가붙이고 자동차 바퀴자리 대신 능쟁이며 길장구가 들성들성 돌아난 길복판으로 차를 조심히 몰았으나 차체는 몹시 기우뚱거리며 들추어댔다. 산간도로에 익숙하다는 이 고장 운전사들조차 멀리 철령을 에돌아 다니면서도 좀처럼 접어들지 않는 길이어서 사납기가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원도 평강군을 현지지도하시자 중부내륙지대에서 동해안으로 통한 제일 가까운 지름길인 이 추지령에 들어서신것이다.

추연한 심회를 자아내는 가을이 류달리 오래동안 머무른다 해서 추지령이라 불리우는 산령에는 11월도 절반이 지나갔는데도 단풍이 한창이었다.

차창을 스쳐지나는 붉디붉은 단풍가지들에서 발산되는 해빛의 주홍빛 반사광이 장군님의 어깨우를 어리광치듯 흘러갔다. 차는 여전히 피곤스레 들추어졌으나 장군님께서서는 철늦은 단풍이 불다는 화려한 산발의 정취를 탄상하시는듯 줄곧 차창밖에 시선을 보내고계시었다.

자동차가 또하나의 급한 곡선을 돌아섰을 때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던 운전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뭐라 웅쳐대는것 같기도 하고 무슨 해괴한 녀두리처럼 들려오기도 하는 그 음향은 점점 더 가까와짐에 따라 노래소리라는것이 알려졌다.

...

둥굴레 당실 둥굴레 당실
너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은데 에루화 바다로 가잔다

...

제법 건드러진 노래가락이었으나 운전사는 호젓한 무인지경 령길에서 귀에 흘러드는 그 노래소리가 도리어 수상쩍어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웠다.

차의 속도를 얼마간 더 높여 몇개의 굽인돌이를 지났을 때 길복판에 뻗쳐세운 손수레가 나타났다. 그결의 길섶 잔디밭에 어떤 젊은 사나이가 이쪽으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여전히 목청을 뽑아넘기고 있었다. 제 기분에 심취한 사나이는 령길을 내려오는 자동차의 낮은 발동기소리를 듣지 못한듯 다급히 경적을 울려서야 고개를 꺾 돌리었다. 순간, 사나이의 부리부리한 눈이 화등잔만큼 커지며 후닥닥 몸을 일으키었다. 동시에 길에서 좀 상거한 둔덕의 금란초덤불속에서 갓난아이를 업은 젊은 녀인이 달려내려왔다. 그들은 인적 없는 이 험한 령길에 승용차가 나타나리라는걸 전혀 생각 못한듯 길복판의 손수레를 비켜세우느라 황급히 덤벼쳤다. 철근으로 된 채에 자전거바퀴를 맞추어 만든 손수레의 높다란 나무통에는 짐이 꽤 무겁게 실린 모양 바퀴가 훌가분히 움직이지 않았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바빠 헤덤비는 서슬에 갓난아이의 방울모자가 벗겨졌다.

여직 긴장했던 운전사는 허파빈 웃음을 치더니 차에서 내리어 아이의 모자를 집어서 씌워주었다.

그리고는 녀인과 함께 힘주어 손수레를 떠일어 길가녁에 옮겨세웠다. 세사람이 허리를 펴 때 차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장군님께서 내려서시었다.!

순간 사나리와 녀인은 저들이 길을 멈춰세운분이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고 너무도 죄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했다.

장군님께서 너그럽게 웃으시며 몇걸음 다가오셔서야 황황히 마주나가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었다. 그들은 순령군소재지에 린접한 어촌인 양지포에 사는 어부내외였다. 어부는 제집 매생이를 타고 체손으로 잡아들여온 물고기를 팔러 지금 안해와 함께 령너머로 가는 길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물이 길 떠난 사연을 들으시고 손수레우에 몸을 굽히시었다. 백송나무판자로 규모있게 짠 나무통안에는 암놈, 수놈 두마리씩 짝을 지어 쫓오라기로 펜 팔따시만큼씩한 물고기가 한가득 담겨있었다. 심산의 락엽냄새와 판이한 대조를 이루는 독특하고 후미한 생선비린내가 후각을 자극했다.

《삼시기로구만. 가을무우를 썰어넣고 끓인 알가진 삼시기국은 천하일미요.》

장군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서 어부에게 시선을 멈추시었다.

《물고기가 싱싱해서 좋소. 언제 잡은거요?》

《오늘 새벽 쪽딴장에서 퍼낸겁니다.》

《아침물에 잡은것을 벌써 여기까지 끌고왔단 말이요?》

장군님께서는 어부내외가 지나올라온 가파로운 령길과 구릉들, 시야에서 아물거리는 바다쪽 들판을 바라보시였다. 그끝 어디엔가 있을 양지포에서 여기까지 가깝지 않은 길을 아이 업은 안해와 함께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온 어부의 고된 정상이 마음에 걸리시였다. 이젠 한낮도 다 되었으니 령너머 첫 동네에 가자해도 날이 저물거라고 가늠 하시니 자신께서 방금 넘어오신 나머지령길이 퍼그나 높게 여겨지시였다.

《힘이 들겠소. 아이어머니까지 데리구 정말 수고하오.》

장군님의 무릅없고 다심하신 녀려에 젊은 어부는 어느덧 어려움을 잊은듯 구뭇했던 등을 폈다.

《일없습니다. 해방전에는 물고기집을 등에 지고 넘어다니던걸요. 한데 지금은 손수레가 있습니다. 늘 혼자 다니더랬는데 오늘따라 저 사람이 령너머 구경을 하고싶다며 자꾸 따라나서는바람에...》

어부는 해사한 얼굴이 앵두빛으로 물드는 안해쪽을 얼추 스쳐보며 입귀를 쫓겨거리었다.

그러자 어미의 등에 업힌 어린것이 저를 보고 열리는줄 알았는지 앞이가 갓 돌아난 입을 해죽거리며 활개짓을 했다. 녀인은 더욱 낮이 붉어지며 밑으로 처져내린 완자무늬 누비포대기를 바로 추스려 띠었다.

장군님께서는 단란한 어부가정의 일단을 보시는 듯싶어 은정어린 미소를 지으시며 포동포동하니 젖살이 오른 어린것의 뺨얀 볼을 쓰다듬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물으시였다.

《그래 손수레는 어디서 장만했소?》

《해방되던 날 왜놈순사가 광가치고 달아난 자전거바퀴를 떼내어 만들었습니다. 걸핏하면 트집을 걸어 배사람들의 따귀를 치며 물고기를 빼앗아내곤 하던 주재소장놈의겁니다. 망해빠진것들의 물건이긴 하지만 여간 잘 굴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부의 유쾌한 대답에 껄껄 웃으시며 《후지》상표가 찍힌 자전거바퀴를 일별하시였다.

《왜놈순사를 태우고다니던 바퀴에다 물고기를 싣고 다닌다? 아주 멋있소. 한데 이렇게 싣고 간 물고기는 어떻게 파오?》

《대체로 난알과 바꾸지만 그물을 꾸미는데 쓸 피것이나 삼실도 반합니다.》

《값은 후하게들 내오?》

《간혹 야시쪼게 구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가 생선을 반가와합니다. 토지개혁으로 받은 땅에서 농사가 끼지게 되어 인심이 괜찮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사실그대로인 어부의 말을 들으시며 분여받은 땅에서 두해째 농사를 흐드러지게 지

어놓은 령너머 마을의 흥취어린 전경을 되새기시였다.

뜨락마다 산더미처럼 가려올린 조며 콩나가리들과 어깨바람을 내는 도리깨질소리, 칠칠한 벼이삭이 무겁게 늘어진 벼둥배기를 실어들이는 살찐 황소들과 겨릅이영에 널어놓은 새빨간 고추를 거두는 아낙네들... 풍성한 가을을 맞는 마을 농군들의 활기찬 모습들에 뒤이어 아이업은 안해와 함께 물고기수레를 끌고 집집의 문전을 찾아다닐 어부의 구차스러운 정상이 가슴아프게 령상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손에 닿을대로 닳아서 반들거리는 손수레채에 한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살림형편과 먼 산간마을에 넘나들기까지의 자세한 래력을 거듭 알아보시였다.

어부는 자기의 모든 말마디들에 귀를 기울이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쾌활하게 이었다.

《왜정때엔 물고기를 팔러 갈 때마다 령밀의 주재소 순사와 나부랭이들한테 공짜로 뜯기우는게 많았지만 이젠 그런것들이 싹 없어지니 체힘들인것만치 벌이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낮뜨겁고 거북스럽습니다.》

어부는 안해의 눈치를 슬쩍 훑쳐보더니 방금과는 다르게 풀기없이 뇌이였다.

《처남조차도 남부끄러운 물고기장사를 그만두라고 야단칩니다만 어찌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가자니...》

어부가 말씀을 올리는동안 그의 안해는 꺼풀이 얇은 희맑은 얼굴에 흥조를 띄우고 몸을 약간 모로 돌린채 다소곳이 서있었는데 등에 업힌 어린것은 장군님의 얼굴만 뻗히 쳐다보며 발췌발췌 웃었다.

그이께서는 포대기밖으로 나와 나물거리는 아이의 손을 여미여주시고는 은근하신 어조로 물으시였다.

《물고기장사를 그만두라? 그래 처남은 무슨 일을 하오?》

어부는 낮을 더욱 붉히는 안해를 스쳐보며 뒤머리를 쓸었다.

《순령군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소?》

장군님께서는 처남 자랑을 한다기보다 도리어 주눅이 드는것 같은 어부를 유심히 여겨보시며 더는 묻지 않으시고 아기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허, 이녀석 좀 보우. 우리 말귀를 알아듣는것처럼 벌죽거리는가.》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험한 령길에서 인상깊게 만나신 젊은 어부의 모습을 익혀두시려는듯 영채도는 눈이 유표한 철색 얼굴이며 림름한 체구를 더듬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용히 물으시였다.

《이름은 어떻게 부르오?》

《박병삼이라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병삼이의 거울진 손을 당겨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기왕 나신 길인데 해가 더 가기전에 어서 떠나오. 내 동무네 마을에 한번 찾아가겠소.》

어글어글한 병삼이의 눈이 등불을 켜듯 빛났다.

《장군님! 꼭 와주십시오. 해돋이바위 가까이에 있는 살기좋은 마을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운전사와 젊은 수행원들이 병삼이네 손수레를 한참동안 올려밀어주고 돌아온 뒤에야 차에 오르시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순령군소재지에서 10리가량 상거한 문치령 중턱의 백종탄광에 들리시었다.령동지방에 단 하나뿐인 유연탄광으로서 원산, 양양간의 동해선 기관차연료를 위시하여 지방공장들과 주민용 석탄을 대주는 연료기지였다.

순령군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철이와 탄광지배인이 장군님을 수행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희뿌연 탄버럭과 점토가 뒤섞여 굳어진 자드락길을 따라 가파로운 경사면을 성큼성큼 내리시었다.

오늘 어둑새벽에 평강을 떠나시여 여러개의 산간군을 거쳐 수백리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그 달음으로 방금 탄광사업을 지도하시고 난 참이었지만 아직도 가셔야 할 길이 먼듯 보폭이 넓고 빠른 걸음이었었다.

중군님께서는 탄광사무실 가까이에 있는 저탄장 곁에 이르시자 저쪽 인입선 조구통에서 석탄을 받아 실는 무개화차들이며 2호, 3호갱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석탄무지들을 다시한번 둘러보시었다. 그러시고나서 곁에 서있는 한철이에게 느닷없이 물으시었다.

《양지포의 박병삼청년이 매부라고 했지?》

삼십대의 젊은 일군인 한철이는 장군님의 말씀에 눈길을 허둥거리며 낮을 붉히었다.

《그렇습시다.》

조금전, 장군님께서는 탄광관리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세세한 가르침을 주시다가 탄부들의 부식물공급정형을 료해하시고는 새로 설립된 국영수산사업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변 어촌들과도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물고기공급원천을 여러 모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무슨 뜻에서인지 추지령에서 만나셨던 박병삼이 말씀을 하시였었는데 그를 다시금 상기시킨것이다.

《그래 매부와는 자주 만다오?》

《그 사람을 본지도 꽤 오래 되었습시다.》

《처남매부가 가까이에 살면서도 서로 본지가 오래다?》

한철이는 온화하시면서도 정색한 그 물음의 의도를 미처 알수 없었으나 병삼이에게 저토록 관심하시는 장군님께 매부벌 되는 사람의 래력을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히 터놓아야 한다는 리성의 웨침소리를 들었다.

...박병삼이는 양지포에 사는 한 홀아비어부의 외아들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배군살림에 일찍 어머니까지 여린 병삼이는 나이보다 눈치와 일손이 더 빨리 여물었다. 뽕도 채 굳기전에 아버지와 함께 매생이에 올라 그물질을 했고 총각풀이 잡히면서부터는 잡아온 물고기를 장거리와 촌에 다니며 팔아오곤하였다. 그는 특하고 고집스러운 아버지와는 달리 천품이 쾌활하고 시원시원한데다 노래가락이 건드러져서 사람들을 곧잘 끌어당겨였다.

소쿠리에 생선을 한가득 담은 지계를 골목길에 뻗쳐세우고 청청하고 굴림새 좋은 목소리로 《동굴레타령》을 한곡조 불러넘기느라만 바구니며 소랭이를 든 아낙네들이 앞다투어 모여들곤하였는데 물고기는 사지 않아도 부엌문을 방앗이 열고 냅간간 얼굴로 쳐다보며 허를 찌는 녀인들도 있었다.

《에그으 어찌면! <화신>상점 유성기따윈 왔다가 울고 가겠네.》

《유성기에 대겠나요?, 몸이 막 노그라지는데. 사내 정 모르는 색시가 들으면 바람나겠수다원.》

반면에 물고기집을 지고다니는 배군총각의 그 노래가락을 비천한자의 청승맞은 녀두리라 비웃으며 병신 대하듯 취급하는 건방진 녀편네들도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 할바를 다 하고 다니는 병삼이는 순령일판에서 《동굴레총각》이라는 애칭으로 통했다.

그렇게 몇해가 흘러 해방을 맞은 해 가을, 순령읍 거리에는 《동굴레총각》이 《철길집》팔인 순임이와 눈이 맞아 돌아간다는 소문이 퍼졌다.

누구보다도 놀란것은 《철길집》령감인 한철이의 아버지였다. 순임이는 한철이의 먼 외가벌 되는 집 아이였는데 장길부사가 돌던 해에 부모를 잃은 철부지를 한철이 아버지가 안아다가 애지중지 키운터여서 친딸이나 다름없었다.

오랜 철도로동자인 한철이의 아버지는 순임이를 앞에 꿰어앉히더니 한생 공궤이질로 마디가 불건진 북두갈구리같은 손으로 뺨을 쳤다.

《안된다 이년! 시집을 못가 혼자 쇠여빠칠지언정 그따위 <고기장수>놈 하군 못살아!》

순임이는 작은 입술을 피가 나게 옥문채 파릿해진 볼우에 눈물을 몇방울 떨굴뿐 눈썹 한오리 까딱 안했다. 얄전하고 정차게 굴던 여느때와는 판판 달리 앙큼스럽다 할만치 새침해진 순임이었다.

한철이는 아버지의 불호령이 그이상 도를 넘으면 칼이라도 물고 얼어질것 같은 야멸스러운 그 모양을 지켜보다 못해 한마디 비치었다.

《그만하십시오 아버지, 저들끼리 좋아하는데야 배사람이면 뭐랍니까.》

아버지는 한철이를 쏘아보더니 기를 돌구었다.

《일의 귀천을 가리는게 아니라 사람풀이 눈에 차지 않아서 그런다. 속대만 온전히 배겼다면 무슨 일을 한들 대수냐. 어른 아이 할것없이 건국을 하겠다고 들뛰는 불같은 시국에 동굴레타령이나 흥얼대며

며돌아다니는 녀석에게 어디 인간다운데가 있어?! 녀넌네는 고사하고 제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건사못할놈이야.》

한철이는 백번 옳다고 여겨지는 아버지의 말에 더는 대꾸를 못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순임이는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병삼이를 더욱 열화와 같이 따라다니었다.

《낯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하다는 말도 괜한 소리인가보다. 저게 내속에서 나온 친자식이라면 애비말을 저렇게까지 거역하겠니.》

병삼이에게 쫓린 순임이의 정분을 끊어버릴수 없다고 단정한 아버지에게서 탄식섞인 한숨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자 이웃들에서 저저마다 권했다.

《그 총각이 어떻다구 그럼니까. 좋은 허우대에 사대답게 생겼잖아, 거기에서 마음은 얼마나 곤다구요. 정말 쉽지 않은 신랑감이지요 뭐.》

《여느것 말구 그 눈알 돌아가는것만 보시우. 앞이 구만리같은 사람인데 당대 물고기장사만 하겠나요. 서로 죽자살자 할 때 못견디는척하고 주라구요.》

아버지는 남의 권유도 권유려니와 횡설수설하는 뒤소문이 창피스럽다며 마지못해 순임이의 혼례를 치르어주었다. 하지만 옳디면 코당을데인 양지포 딸네집에 걸음 한번 하지 않았을뿐더러 병삼이가 가시집 문턱을 넘어서는것도 달가와하지 않았다.

거기에 반발할 느낀듯 병삼이는 처가집 가까이에서 좀처럼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고 처남벌 되는 한철이를 길에서 만나는 경우에도 수인사나 건네고 급히 지나쳐버리곤하였다. 제편의 어떤 결심을 품었는지 둥글레타령도 잦아들었다.

한철이는 그런 병삼이보다 순임이가 불쌍했다. 먼 도시에 가서 고학을 하던 그 시절, 어쩌다 집에 돌아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거나 한듯 곁에서 감겨돌며 그동안 집에서 있던 일을 시시콜콜히 일러바치곤했고 한철이가 《징병기피죄》로 복판땅 탄광의 오소리굴에서 고역을 치를 때엔 어머니가 꿈겨준 초라한 도시락보통이를 머리에 이고 천여리 길을 찾아왔던 순임이었다.

얼굴도 익히기전에 잃어버린 부모대신 애오라지 한철이네 집 식구들을 의지하고 자란 아이이기에 더욱 애뜻한 정이 기울여지곤했었다. 이제 밝은 세상이 왔으니 지나간 고생을 옛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앞날을 마련해주리라 버르었었는데 의외에

꽃이 피기도전에 꺾이우고 말았다. 그것이 너무도 가슴 쓰리며 병삼이를 만나 이제부터라도 남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보라 권했으나 들었는지 말았는지 해오던 도섭에서 의연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군님께서 한철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깊게 들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을 더듬으시는듯 뒤짐을 지고 몇걸음 거니시다가 발에 걸채이는 주먹만한 탄덩어리를 집어드시자 검고 치밀한

색갈에서 광택이 뽀기는 기름진 력청탄의 단면들을 뒤쳐보시고는 저쪽 탄더미에 던져넣으시었다.

바로 그때 가까운 1호탄갱에서 여러대의 탄차가 바퀴소리를 무겁게 덜컹거리며 줄지어 굴러나오더니 석탄사태가 쏟아져내리었다. 와당탕거리며 굴러내리는 망작같은 탄덩어리들이 흑갈색 먼지를 폭연처럼 말아올리었다. 탄부들은 석탄을 부리우기 바쁘게 굴안으로 다시 달려들어갔다. 탄부들뿐 아니라 선별공도 상차공도 번개같이 뛰어다니었는데 갹구앞에 크게 나붙은 《모두다 산업부흥으로!》라는 붉은색 글자들이 세차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비쳐들었다.

장군님께서 장쾌한 탄광의 전경을 한참동안 부감하시더니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탄부들의 기세가 대단하오.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투철히 자각하고 제 자리를 지켜선 사람은 어디서나 저렇게 큰힘을 발휘하기마련이요. 이 백종탄광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그러시고는 한철이에게 낯을 돌리시었다.

《국영탄광에서는 저렇게 열을 올려증산하고 있는 이때 양지포 어부들은 력너머로 물고기장사를 다니고있소. 그들을 어떻게 할 작정이요?》

한철이는 장군님의 말씀이 군안의 전체 력세어민들을 녀두에 두신 심려라는것을 체감하며 수긋했던 머리를 쳐들었다.

《일곱개면에 백여개의 리와 부락을 가진 우리군에는 읍을 포함한 열세개의 크고작은 어촌이 있습니다. 군전체세대의 십프로이상이 어업에 종사하는 셈입니다만 국영수산사업소 종업원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력세어민들입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안착된 직업이 없다보니 분산적으로 잡은 고기를 제 리속에 맞게 여기저기 팔러다니다 못해 내륙산간지대에까지 넘나들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자기 사업에 대한 의욕과 연구가 엿보이는 군위원장의 사리정연하고 현실적인 답변이 흥미있으신듯 귀를 기울이시었다. 한철이는 무덤하게 들떠오르려는 흥분을 애써 진정하며 해당일 군들과 여러차례 의논하며 익혀온바를 말씀올였다.

《우선 력세어민들과 개인어업에서 잡은 물고기를 읍과 면의 시장들에 집중시키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아무데나 들고다니며 비싸게 팔아먹는것을 금지시키고 특히 타지방으로 한마리의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 통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에서 물고기값이 오르내리지 않을것이고 력세어민들의 생활도 점차 안착되리라 믿습니다.》

《제재와 봉쇄조치로구만.》

한철이는 실망이 어리신 그 말씀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고개를 떨구고 수첩장만 뒤적이는 한철이를 조용히 타이르시었다.

《중요한건 통제하고 다스리자는게 아니라 그들을 어느 길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는가 하는거요. 이젠 우리 나라 전체 평등시민들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요. 군위원장동무, 너무 조급해마시오. 우선 당사자인 어부들을 만나보구 바다바람도 쏘이면서 천천히 의논합시다.》

저녁무렵이 되어오면서 습기를 머금은 째절한 태풍이 바다쪽에서 불어왔다.

장군님께서서는 탄광사무실앞을 떠나시자 탄광의 동쪽 산기슭과 잇닿은 바다를 바라보시며 걸음은 옮기시었다. 미묘한 문양을 그린 젓빛 신기루를 떠이고 아물거리는 수평선쪽에는 포구로 돌아오는 듯배들이 점점이 널려있었는데 신비한 바다의 조화로 물속에서 방금 솟아날듯한 희고 노랑고 불그레한 듯목들은 알릴듯말듯 물으로 가까와오고있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다가로 나가시던 길에 순령군소재지를 돌아보시었다. 읍거리 한가운데로 뻗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승용차의 차창밖으로는 은행, 우편국, 식당 등 공공건물들과 리발소며 가게방들이 려이어 지나갔다.

바다를 낀 어항인데다 넓고 기름진 들판과 탄광이 린접해있어 산업이 번창한 순령읍은 큼직한 이층집들이 드문하고 가로 세로 뻗은 길이 정연하여 제법 도시맛이 났다.

시내중심의 네거리결에 자리잡은 소비조합상점에서는 무슨 희귀한 물건이 팔리는듯 쌍달이 유리문을 활짝 열어놓은 출입문으로는 사람들이 줄지어 나들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멈추시고 상점에 들어서시었다. 매대에서는 동그란 얼굴이 복성스럽게 생긴 판매원처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방금 들어온듯싶은 물엿을 한참 팔아주고있었다. 손님이 어찌나 많은지 판매원의 손이 모자라 나이가 지숙한 남자직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거들어주었다. 파는 사람도 사가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얼굴이었다. 판매원이 그릇마다에 담아주는 끈이 질긴 밭그무레한 물엿에서는 목이 알싸할만큼 달고 향긋한 냄새가 풍기었다.

《우리 군에서 만든 황금태입니다. 새로 건설한 군영제탕공장에서 며칠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원료는 주변농촌에서 들어온 강냉이와 농말을 씹니다. 로동자동무들의 말이 다음달부터는 과자와 알사탕도 만들수 있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껍 만족하신듯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매대에 시선을 보내시었다.

이때 판매원이 방금 소령이에 물엿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한 손님을 멈춰세웠다. 파뿌리같이 흰 머리카락에 모달리수건을 쓴 늙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도 참, 거스름돈을 안받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거스름돈이라니?》

늙은이가 어정쩡해진 낯으로 되물자 판매원은 꽤나 많은 거스름돈을 세여 로인에게 쥐여주었다.

《이럴데라구야. 내놓은 돈어치 보아서는 엿이 흠씩 많다 생각했는데 남은 돈이 있다니? 도로 넣어두라구.》

《할머니,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개인가게방이 아니라 나라에서 세워준 소비조합상점이에요. 그래서 모든걸 늑게 팔아드린답니다.》

《에그, 오래 사느라니 이렇게 좋은 세상도 보는구만!》

로인은 몇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매대에서 물러났다.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뜨음해지자 매대에 다가가시여 땀이 채 식지 않은 판매원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수고하오. 물건도 잘 팔지만 봉사성이 높거던. 방금 물엿을 사간 그 할머니는 판매원동무가 거스름돈을 내여주며 한 말을 자식들앞에서 두고두고 외울거요.》

그이께서는 판매원이 매우 기특하신듯 거듭 칭찬하시고나서 한철이와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건국초소에 서있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본것처럼 제 진심을 그대로 나타낸 판매원동무의 소박한 말 한마디는 수백마디의 선동연설보다 더 위력하오.》

한철이는 장군님의 높은 치하를 받은 판매원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재삼 바라보았다.

기껏해서 스물한두살쯤 되었을가? 순임이 나이 또래나 되었을 처녀였다. 이름 못할 감흥으로 눈앞에 안개가 서리며 동그스름한 판매원의 얼굴이 꺼풀이 얇고 해사한 순임이의 얼굴로 바뀌어보이였다. 아마 순임이가 어떤 기연으로 하여 저 매대에 섰더라면 바지런스럽고 인정 넘치는 상냥한 천성으로 하여 저 판매원처럼 누구나의 믿음과 귀여움을 샀을것이다. 아니 상점뿐이 아닌 어느 건국초소에 갖다놓아도 끈고 깨끗한 제 모습대로 착실히 일해가는속에 달덩이같은 얼굴이 더욱 곱게 번지였을것이다. 한데 지금 순임이는 병삼이와 더불어 제가 섰어야 할 자리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진 그 늘진 구석에서 헤매이고있다. 인생의 봄이 한장 피여날 꽃나이에 고개 한번 빼앗기 치들지 못하는 남부끄러운 변두리에 파묻힌채 젊음이 속절없이 시들어가고있다.

한철이는 순임이에 대한 애짹짹한 련민의 정으로 하여 환기된 착잡한 상념에 휩싸여있다가 자기 언제 상점을 나섰으며 장군님을 모신 차가 어느사이에 읍거리를 벗어났는지도 몰랐다.

시야를 자극하는 진한 초록빛 바다와 백사장을 낀 마을이 차장으로 비껴들어서야 읍가까이에 있는 어촌인 양지포앞에 이르렀다는것을 알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자 소리없이 밀려드는 잔물결이 기슭을 훑는 백사상에 큼직한 발자국

을 찍으시며 앞장서 걸으시었다. 활달하게 걸음을 옮기시는대로 삼십호 남짓한 자그마한 어촌이 마주 오듯 가까와왔다. 삼태기안 같은 양지쪽에 바다를 마주하고 들어앉은 아담한 마을이었다.

한철이는 장군님께서 양지포로 몸소 나오신 의도를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한채 조심히 뒤따랐다.

장군님께서서는 해당화나무가 우거진 마을앞의 깨끗한 모래불에 멈춰서시더니 양초가락을 묶어세운 것 같은 현무암 립석들이 기묘한 구름을 이루며 바다쪽으로 뻗어나간 반도를 바라보시었다.

《경치가 해금강 못지 않소. 절경속에 들어앉은 마을이요.》

장군님께서서는 누구에게라 없이 말씀하시곤나서 한철이를 가까이로 부르시었다.

《저기 반도끝에 우뚝 솟아있는것이 해돋이바위가 아니요?》

《웁습니다. 저 바위에 올라서면 바다의 해돋이를 아주 가까이에서 남만저 볼수 있다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듯하오. 위치도 비슷하지만 불깃한 바위색 같이 아침노을에 물든것 같소. 오랜 세월 바다속의 산호층이 파도에 밀려나와 굳어져 저런 색을 띠었겠는데 이름을 아주 멋지게 붙였소.》

장군님께서서는 바다쪽 경사면에 전망대와 같은 편편한 턱이 지어진 묘한 해돋이바위를 한참 바라보시고나서 마을앞 선창으로 향하시었다.

목선 몇척이 들어설만한 넓이로 해초와 바다이끼가 뒤덮인 바위돌들이 둘러막힌 선창에서는 람루한 허드레옷을 걸친 어부들이 방금 잡아들여온 물고기를 배머리홍정으로 팔아넘기고있었다.

한철이는 혼잡한 그 광경을 보여드리게 된것이 낮뜨거웠다. 하지만 그들속에 병삼이가 끼여있지 않은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며 나직이 말씀올리었다.

《양지포의 령세어민들입니다. 대체로 아침물에 잡아온 고기는 촌에 내다 팔고 저녁에 잡아온것은 저렇게 앉은자리에서 팔아치웁니다.》

선창에서는 저저마다 흥정과 매매에 정신이 팔려다보니 가까이에 어느분이 와계시는지도 몰랐다.

《1원어치가 겨우 요거야요? 좋은일 삼아 몇마리 더 담구려.》

작은키에 몸집이 토실토실한 아낙네가 제 함지를 밀어놓고 여느사람의 그릇에 가재미를 찍어담기 시작하는 곱슬머리 어부를 애교있게 구슬리었다.

《군말 말구 주는대로 가져가시우.》

곱슬머리가 더는 말도 못붙이게 잘라매자 녀인은 억지를 쓰며 몇마리 더 집어담았다.

《이 안까이가?!》

어부는 사납게 눈을 부라리며 그릇을 나꾸어채더니 담겨진것을 배칸에 와락 쏟아놓았다.

《비싸면 그만두라구요. 사겠다는 사람은 많으니까.》

무안을 당한 녀인은 발끈해서 내쫓았다.

《멋모르고 왔더니 벌꿀 다 보겠네. 수산사업소에 서는 이 값이면 함지가 넘쳐나게 주는데 야시꼭게 구는 주제싸니에 호통질은!》

곱슬머리는 아낙네의 그썸한 입질은 여반장이라는데 양관종계 빈정거리었다.

《아주머니가 따스한 방안에서 서방님과 정을 나눌 때 찬물 적시며 잡아온 물고기되다. 그래 나한테 그물실 한토막 보태준적이 있어 그 야단이요? 우리가 뭐 쌀타고 돈받으며 고기잡이 하는 수산사업소 사람들과 같은줄 아우?》

과는 사람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 하고 사가는 사람은 깎으려 하는 아귀다툼이 귀따거웠으나 물고기는 그럭저럭 다 팔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가고 선창이 조용해졌을 때 상상외의 광경을 목격하신것으로 하여 마음 무거우신듯 침중하게 뇌이시었다.

《일제때의 어시장 못지 않소. 여느 어촌들에서도 이런걸 보았지만 이 양지포가 특히 더한것 같구만. 왜 이렇소? 군위원장동무.》

넘려 깊으신 음성에 한철이는 자신없이 대답올리었다.

《우리가 일을 쓰게 못했기때문입니다. 장군님, 국영수산사업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과 함께 개인어업이 주민들의 수효에 보다 유익하게 접근하도록 모든 대책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개인어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령세어민들이 안착된 조건에서 어업을 활발히 벌릴수 있도록 소비조합과 농민은행의 자금을 좀 융통해주는게 어떻가 합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저어 한철이의 말을 막으시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요.》

장군님께서서는 텅 빈 선창을 바라보시며 누구에게라없이 말씀하시었다.

《소비조합상점 매매에서는 서로의 신뢰와 기쁨이 넘쳐나는데 어째서 개인어업으로 잡은 물고기를과는 배머리에서는 낮뜨거운 혼잡이 이루어지는가를 주시해야 하오. 방금 보았지만 양지포어부들은 주민들에게 성심껏 봉사하는 판매원과과는 판판 달리 물고기값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득바득 애쓰고있소. 소비조합 판매원이나 이 양지포 어부들이나 해방되던 날엔 다같이 목이 터지게 만세를 불렀겠는데 그때로부터 겨우 두해밖에 안된 오늘에 와서 왜 이런 현격한 차이가 생겼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한손을 허리에 짚으시고 모래불에 끌어올린 목선의 둘레를 한바퀴 도시었다. 무거운 발자국소리에 놀란듯 가까운 바위틈에서 기여나와 돌아가던 방게며 물설설이들이 들북이가 우거진 물속으로 텀텀텀 뺄어들어갔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자면 물고기를 잡아 팔수도 있고 그밖에 여러가지 생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로 되는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사

는가 하는 그것ियो. 백종탄광 노동자들이나 소비조합 판매원이 제 하나때문에 그토록 열성스레 일하겠는가. 그들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한 탓에 맡겨진 임무를 신심에 차서 활기있게 감당해나가고있는거요. 반면에 여기 양지포 어부들은 그것이 없어나니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있소. 많은것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 곁에 사람이 없으면 못사는게 사람이라는데 하물며 인민이 주인될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는 오늘에 와서까지 집단과 동떨어져 제멋대로 헤매는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더이상 방임해둘수 없는 현상이요.》

장군님의 근엄하신 음성은 한철이의 가슴을 찡하니 울리며 지금쯤 령너머 마을에서 물고기를 팔러 다닐 순임이와 병삼이의 모습을 불러왔다.

인간의 품격과 힘을 배가하는 똑바른 생의 목표란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들은 어디에 가나 사람대접을 받기보다 조소와 모멸을 당할 때가 더 많을것이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여지없이 훼손당하는 수치스러운 길에서 여적토록 헤매이는 순임이가 이 시각따라 더욱 가슴저리게 마쳐오며 그가 이지경에 이르도록 손 한번 따뜻이 이끌어주지 못한 자기가 더없이 혐오스러웠다. 더는 사람구실을 못할것 같은 순임이가 불쌍했다.

아! 장군님께서서는 몸은 순령땅에 있어도 마음은 온 나라를 바라보며 느낄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셨는데 누이동생 하나 바른 길에 세우지 못한 내가 군사업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는가!

한철이는 깊은 자책과 고뇌가 어린 눈을 들어 바다가를 향방없이 더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래불에 깊숙한 발자국을 찍으시며 해변가를 천천히 거니시였다. 이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하시는 길에서 보고 느끼신 모든것을 다시금 눈앞에 그려보시며 더는 지체할수 없는 또 하나의 긴요하고 절박한 문제를 풀어나갈 구상을 무르익히시는듯 안색이 근엄하시였다.

먹이를 찾아 날아에는 몇마리의 갈매기와 호근이가 선창가를 맴돌며 끼르륵거릴뿐 사위는 고요했다. 바람도 물결도 숨을 죽이고 잤아든 바다는 머지않아 해변가마을들에서 벌어지게 될 미증유의 변화를 예고하는듯 숙연한 정적속에 누워있었다.

X

선창을 떠나신 장군님께서서는 마을에 들어서시였다.

길을 안내해드리던 한철이는 동네 어귀에 외따로 서있는 초가막살이를 얼핏 스쳐보았다. 순임이 잔치날 한번 와보고는 양지포에 자주 드나들면서도 걸음을 하지 않던 병삼이네 집이였다.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린것으로 하여 속이 조마조마해진 한철이는 마음 무거우실 그이께서 볼품

없이 초라한 병삼이네 집안이라도 그냥 지나쳐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바랬다.

하나 장군님께서서는 곧바로 그 집앞에 이르시였다.

집마당에서는 방금 물고기를 팔고 들어온 어부들이 젖은 그물을 널기도 하고 바줄을 사러 간직히기도 하면서 하루일을 뒤겨듬하고있었다. 아마도 선창 가까이에 자리잡은 이 집 뜨락과 허청간을 《공동창고》삼아 쓰는 모양이였다. 집주인이며 병삼이의 아버지인 박윤보로인이 허연 채수염을 흔들며 이것저것 살피고 돌아갔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물덕대머 거기에 기대여세운 작살과 섬집게 등속의 어구들을 살펴보시다가 처마밑 바람벽에 달아매놓은 바퀴없는 자전거에 눈길을 멈추시였다. 이미 흘러가버린 저주로운 세상을 립증하는 증거물인듯 먼지를 뒤집어쓴채 한자리에 매달려있는 《후지》표 자전거는 박병삼의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신듯 미소를 지으시며 뜨락에 들어서시였다. 맨먼저 좌상적인 윤보로인이 엎어지듯 달려나와 옷몸을 굽혀 절을 올리자 여느 어부들도 머리에 썼던 무명수건을 벗어들며 인사를 드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겸허하시고 따뜻한 답례를 주시고 나서 황송하여 두손을 마주잡고 엉거주춤 서있는 윤보로인에게 물으시였다.

《혹시 박병삼동무의 아버님이 아니십니까?》

《네, 제가 병삼이 애비올시다. 한데 어떻게 우리 아애비 이름까지...?!》

장군님께서서는 너무 감심해서 뒤말을 여물구지 못하는 로인에게 친근한 미소를 지어보이시였다.

《오던길에 추지령에서 만났습니다. 머느리와 손주도 함께 가더군요. 아마 래일 저녁때쯤이나 돌아올겁니다.》

천만뜻밖에도 집을 찾아주신 장군님으로부터 길 떠난 아들의 기별까지 전해들은 로인의 눈굽에는 물기가 즐쩍하니 고이였다.

《아니, 장군님께서 그 애들을! 참 녀석두 어느 알아구 구차스러운 그 꼴을 보여드렸담!...》

로인은 팔소매끝으로 눈굽을 찍어내더니 가라앉은 목소리를 추스리였다.

《구복이 원썩라구 먹고 살아가자니 쫄디쫄은놈이 그것을 합니다.》

로인은 장군님 가까이에 서있는 한철이를 어줍게 쳐다보고나서 떠듬떠듬 이었다.

《요먼저는 처남 되는분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구점스러운 그 노릇을 집어던지고 아무데나 고개 쳐들고 일할곳을 찾아가겠다구 날뛰는걸 고기대 가리 까먹는 도넛밖에 못배운놈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고 불들었습지요.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또 령을 넘어다니는 사내꼴이 측은했던지 이번 행보엔 며늘아이까지 아이를 업고 따라나섰습니다. 갔다 올동안 이 시애비가 먹을 밥까지 말끔히 지어놓고 떠났습지요.》

아마 로인은 머느리를 무척 귀히 여기는듯싶었다.

병삼이의 아버지는 장군님을 집안으로 모시려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밖이 시원하다 하시며 방문앞 퇴마루에 걸터앉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열려진 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시었다.

밀갈노전 두잎이 깔린 방안은 흙매질을 매끈히 놓아 퍼그나 아누했지만 한철이네가 순임이에게 해준 이불채며 옷가지가 몇개 눈에 띄울뿐 아무것도 없었다.

한철이의 얼굴은 솟불에 닿은듯 달아올랐다. 미리부터 순임이네 살림에 조금만 더 관심했더라도 이처럼 궁색스러운 형편을 보여드리지 않았을거라는 후회가 다시금 뼈저리게 일었다.

장군님께서는 무거운 기색으로 방안을 더듬으시다가 무슨 교과서인듯한 책 몇권과 공책이 놓여있는 앉은뱅이책상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었다.

《아들이 공부에 열성인가롭니다?》

윤보로인은 마디가 불거진 앙상한 손으로 불을 켜며 눈가에 잔주름을 모았다.

《네. 일이 끝나면 밤늦도록 책상앞에서 부시력덱니다. 울거울엔 읍에 있는 성인학교에 붙겠단나요.》

《그거 참 잘 생각했습니다. 일하면서 배우겠다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장군님께서는 대견하신틈 책상우에 얼마동안 눈길을 주셨다가 문을 조용히 닫으시었다. 퇴마루에서 일어서신 그이께서는 덕대결으로 가시여 가느다란 삼실로 뜬 가재미자랑의 그물코를 뿔뿔로 재여 보셔더니 어부들에게 물으시었다.

《이런 그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물을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촌에서 피곤했나 삼을 구해다가 바줄과 그물실을 꼬아서 꾸며줍니다.》

아까 물고기를 팔며 녀인들과 말싸움을 하던 곱슬머리어부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에게 깊이 관심하신다는것을 알자 온갖 고충을 다 터놓았다.

《아직은 날이 더워서 그러저럭 벌어들였지만 딱 처울 겨울이 제일 야단입니다. 모든게 쫓쫓이 얼어붙는 동삼엔 고기잡이가 씨워치 못하니 어디 가서 난알 한되박 구할길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끝이 없을상싶은 어부의 걱정을 안심시키시듯 껄껄 웃으시었다.

《형편은 알고있습니다. 제 나라를 찾았는데 아무런 밥이야 굶겠습니까? 살아갈 방도를 찾아봅시다.》

시원시원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도 앞이 트이는듯 어부들은 얼굴이 환해졌다.

장군님께서는 기대가 어린 어부들의 얼굴을 둘러보시고나서 윤보로인에게 물으시었다.

《배와 그물을 불구어 어업을 큼직하게 해볼생각은 없습니까?》

로인은 엉거주춤히 굽혔던 허리를 곧추 펴며 눈을 빛내이였다.

《왜 없겠습니까?! 배와 그물만 더 있으면 물고기는 얼마든지 잡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하기가...》

《배와 그물은 융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지금처럼 제가끔 물고기를 잡느라 애쓸게 아니라 여기 양지포에 수산합작사를 조직하는게 어떨가 합니다. 해보면 알테지만 합작사를 무으면 여러모로 좋을겁니다.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공동경리로 어업을 잘 운영하느라하면 수입은 물론 훨씬 높아질것이고 순령 주민들에게 물고기가 더 많이 차례질겁니다. 제 하나뿐아니라 인민들에게 리롭게 일하는것이야말로 건국에 이바지하는 보람있는 길입니다.》

어부들은 담담하면서도 모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장군님의 말씀을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귀가 어수한 윤보로인은 장군님의 음성을 더 잘 들으려고 머리를 약간 모로 기울이었는데 귀중한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속을 조이는 상이였다.

장군님께서 로인의 의향을 물으시듯 고개를 좀 젓히시며 병긋 웃으시자 윤보로인은 두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는것으로 전적인 찬동을 표시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한철이와 일군들을 향해 계속하시였다.

《사람은 제 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제나름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의무를 지닐 때에만 그것이 옳게 발휘되고 빛이 날수 있습니다. 개별적 존재는 별치 않은 풍랑에도 삼키울수 있지만 집단적인 존재는 번영하는 사회와 함께 영원한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어촌들에서 령세어민과 개인어업자들이 자원적으로 수산합작사를 무어 건국의 일익을 담당한 어엿한 근로자로 일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수산합작사는 소비조합중앙위원회 생산합작부에서 지도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소비조합망을 통해서 어구자재를 대주고 물고기도 팔아줄수 있습니다.》

확신과 열정에 넘치신 장군님의 말씀은 한철의 가슴을 높취게 하였다.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그 시책속에는 모든 령세어민들뿐아니라 이 세상 누구나가 드림없이 따라야 할 절실하고 고귀한 진리가 담겨있음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신이 난 어부들이 이것저것 두서없이 묻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가르치심을 주시곤 하였는데 친근하면서도 심원한 사상이 전달되는 활달하신 동작은 끊임없이 교체되는 새로운 특징들로 바뀌여지시었다. 우려를수록 현명한 령도와 높은 신 덕망이 안겨드는 그 풍모는 오직 그이께만 고유한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수원들에게 무슨 가르치심인가를 주시고는 다시 어부들에게 말씀을 건네시였다.

《의논을 계속합시다. 뭐니뭐니 해도 수산합작사의 주인은 여러분인만큼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다 내놓으시오.》

윤보로인은 어부들과 귀속말로 뭐라 주고받더니 어쭙은 빛으로 한결을 나셨다.

《합작사를 못는다니 모두 좋아들 하는데 저부리도 속에 든것이 없어 누가 주관할지 걱정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아주 중요한것을 제기했다는듯의 미있게 웃으시더니 한철이를 바라보시였다.

《인민위원회와 소비조합에서 도와주긴 하겠지만 합작사를 끌고나갈 주인은 철저히 있어야 합니다. 군위원장동무 생각엔 누구를 시켰으면 좋겠소?》

심중하신 그 물음에 한철이는 긴장해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로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조직되는 수산합작사! 건국의 한 초석으로서뿐 아니라 사회주의협동경리의 시초인 합작사는 사상과 지식, 능력을 옹바르게 겸비한 책임성있는 일군이 말아서 이끌어나가야 할것이다.

한철이는 군내 여러 단위의 일꾼들속에서 적임자를 찾아 더듬었으나 신통한 사람이 짝이우지 않았다. 한철이뿐아니라 어부들모두는 뒤집을 지고 트랙을 천천히 거니시는 장군님의 다음 말씀만을 숨을 죽이고 기다리였다.

갑자기 바다쪽에서 푸드득거리며 날아온 한쌍의 바다오리가 집우에서 넓게 반원을 그으며 깃털을 몇개 떨구더니 바다쪽으로 곧추날아갔다.

그이께서는 물을 차며 멀어져가는 바다오리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시고나서 한철이와 어부들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쟁글쟁글한 석양별에 약간 좁혀지신 눈가에는 인자한 미소가 여울쳤다.

《내 생각에는 여기 양지포에 새로 생기는 수산합작사를 박병삼동무에게 책임지웠으면 합니다.》

《?!》

너무도 뜻밖인 그 말씀에 가슴이 후두둑 뛰는 한철이의 귀에는 떠들떠들 떨려나오는 윤보로인의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아니 우리 병삼이한테요?! 배운것도 없는 그 애가 어떻게 그런...?》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놀라와 멍청해진 얼굴로 채머리를 떠는 로인에게 밝은 웃음을 지어보이시였다.

《글이나 학문보다도 배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구 달라진 세상을 똑바로 볼줄 아는 마음이 중한겁니다. 나는 길에서 그를 잠깐 만났었지만 민주개혁으로 전변된 오늘을 몸가까이 감수하며 열렬히 공감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현실에 민감한 사람은 앞날에 대한 확신도 굳은 법입니다. 박병삼동무는 합작사일을 잘해낼수 있습니다. 로동당과 인민정권이 적극 뒷받침해줄겁니다.》

장군님께서는 꿈을 꾸는듯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서있는 한철이의 팔을 다정히 잡으시였다.

《군위원장동무는 자기 매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모양인데 나는 누이동생이 매부를 아주 잘 골랐

다고 생각하오. 사내답게 쾌활한 성미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더구만. 남남끼리도 아닌 처남매부사이인데 따듯이 대하며 도와주시오. 우선 정이 뜨겁게 오구야 서로의 사람됨을 바로 가려볼수 있구 사업상 협력도 이루어질게 아니겠소.》

장군님께서는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더니 처마 밑에 달려있는 자전거를 가리키시며 윤보로인에게 이르시였다.

《아드님이 돌아오면 손수레바퀴를 떼내여 저 자전거에 도로 맞추라고 하십시오. 물고기는 소비조합자동차가 날라다 팔아줄테니 손수레가 더는 필요없습니다. 보란듯이 자전거를 타고다니며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하십시오.》

윤보로인의 강마른 불이 경련을 일으킨듯 가늘게 떨리더니 수정같이 맑은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리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어깨를 세차게 들먹이며 뚫어앉을듯 몸을 굽히는 로인을 일으켜세우시였다. 여느 어부들도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르는듯 물기 어린 눈을 습벅이며 서있었다.

주체 못할 격정으로 몸이 등 떠오른 한철이는 물고기수레를 내던지고 추지령을 단숨에 넘어 자기를 향해 춤추듯 달려오는 병삼이와 순임이의 환영이 보이였다. 한철이는 그들에게로 마주 뛰어가며 부르짖었다.

(순임아! 아버지도 이 오빠도 거들떠보지 않던 너희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어 참다운 인생의 위치에 내세워주시였다. 이 세상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비범하고 특출하신 인간애로 너희들의 밝은 앞날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사랑에 의하여 창조된 또 하나의 새로운 전변을 가슴뜨거이 접한 한철이는 어부들의 어깨너머로 바라보이는 하늘도, 바다도, 마을도, 뒤동산 참대숲의 푸른빛도 어느때와는 다른 비상한 의미를 담고 비쳐들었다. 평소에는 범상히 여겨오던 그 모든것이 이 시각에는 그 하나하나의 갈피마다에 지상의 모든 생명이 빛나게 발현될수 있는 필수적 요소가 잠재해있는것으로 감수되며 자기는 환희롭고 심원한 그 뜻을 깨닫기 시작한 이 시각을 위해 태어난듯했다.

그렇다, 인간의 참다운 생명은 개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며 숨쉬는데 있으며 진짜 사람으로 된다는것은 사회와 인민을 위한 위치에 선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신 이 하루동안 사람의 참된 삶의 위치를 새롭게 체득한 한철이에게는 이 저녁을 분기점으로 새롭게 뚫어번지며 일떠설 어촌들의 래일이 광휘롭게 비쳐들었다.

한철이는 양지포마을을 떠나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뒤따랐다.

잊을수 없는 노래 부르며

아브둘라흐 무함마드 엘비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하늘땅을 진감하는 이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싶고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뜨거워지는
혁명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아 이 노래 부르며 조선을 생각하고
이 노래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그려보네

만경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이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셨네

그이께서 펼치시는 모든 정책
인민을 위한것이거니
조선인민은 착취와 압박 근심걱정 몰라라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조선은 동방에 높이 솟아
인민의 락원으로 자랑 떨치네
아 위대하여라 그 이름 **김일성**
그이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

일제의 백만대군 쳐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님
100 여년간의 전쟁력사로 악명높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시였네
놈들을 내리막길로 밀어던지시였네
정녕 그이는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신분
아 위대하여라 그 이름 **김일성**
그이는 전설적 영웅 강철의 령장

일제의 식민지발굽에 짓밟히던 조선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조선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웅장화려한 도시와 농촌을 일떠세우고
강유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
세계적인 모범의 나라로 되였네
아 위대하여라 그 이름 **김일성**
그이는 우리 시대의 창조와 건설의 영재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온 세상을 찬란히 비치는 주체의 빛발
인류의 앞길에 밝은 희망 안겨주네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세계는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한다네
아 위대하여라 그 이름 **김일성**
그이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

해바라기 태양을 따르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듯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배 등대를 찾은듯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혁명가들
평양으로 간다네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순간
가슴속의 온갖 시름 다 잊는다네
행복한 락원의 열쇠를 찾아안고
기꺼운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벼이 돌아간다네
아 위대하여라 그 이름 **김일성**
그이는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의 노래 부를 때마다
언제나 다짐합니다
인류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

세계인민들의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를 합쳐 바라웁니다
만민의 축복을 받으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필자는 민주예멘 혁명철제품공장
부지배인임)

태양

파비아오 고디뉴

날마다 떠오르는 아침해
노을빛으로 온 누리를 비치듯
이 땅을 기름지우고
산과 들에 밝은 빛을 뿌리고
바다물 출렁이게 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는
탁월한 혁명사상을 내놓으시여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희망과 자유를 안겨주시네

그이께서는 탁월한 예지로
지평선 저 멀리를 내다보시고
국경과 대양을 넘어
세계의 방방곡곡 비쳐주시네

김정일 그이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선전자
끝없는 예지와
비길수 없는 사랑의 해빛

그이의 존함
온 지구를 비치는
태양의 빛이 되고 사람이 되어

온 세상 인민들에게
자유와 희망 안겨주네
나아갈 길 환히 밝혀주네

그이 다정한 말씀과
친근하신 활동으로
수억만 인민들을 묶어세우시여
황금이삭 물결치는
만풍년을 안아오시고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를
밝혀주시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인민들의 앞길 밝혀주는
태양의 뿌리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47 돌을 맞이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사상의 심화발전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더욱더 꽃피나기를
충심으로 바라옵니다

(필자는 뿌르뚜갈 시인임)

가사

수령님 안아오신 만풍년 노래하세

리재준

철에 앞서 새 농기계 보내주신 그 사랑
휘날어진 금나락이 반아안고 설레이네
얼씨구나 좋아 농악을 울려라
수령님 안아오신 만풍년 노래하세

하늘가득 분수비 내려주신 그 은정
덕이마다 황금이삭 바다되어 춤을 추네

얼씨구나 좋아 농악을 울려라
수령님 안아오신 만풍년 노래하세

농촌테제 꽃이 피여 해마다 풍년드니
하늘땅에 하나뿐인 내 조국은 풍년나라
얼씨구나 좋아 농악을 울려라
수령님 안아오신 만풍년 노래하세

불후의 저작을 발표하시고

함경남도, 량강도 일대를 돌아보시고 대학에 돌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곧 졸업논문준비에 착수하시였다.

그이께서 룡남산마루에 불멸의 자욱을 아로새기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졸업을 앞두고 되셨던것이다.

그이께서 졸업론문을 준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교원, 학자들과 학생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그이께로 쏠리였다.

그이께서 어떤 논문을 집필하시겠는지 모두 알고 싶은 심정들이었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한 교원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옵는 조용한 기회에 논문제목에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집필하시게 될 논문제목에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논문제목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보았는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신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군의 역할문제를쓰기로 하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에 그 교원은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혁명실천사에서 매우 중대하고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었으나 그때까지도 그것을 깊이있게 해설한 글이 나오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것처럼 중대하고 절실히 해명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를 졸업논문제목으로 잡으신것이였다.

그 교원에게는 논문집필과 평가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었다. 통례로 대학졸업논문인 경우에는 강의에서 배운 기본범주들과 원리들을 옹계 리해하고 얼마간의 현실자료를 취해쓰면 되는것이고 준박사논문인 경우에도 새로운 견해를 많이 기대하기보다는 연구자가 옳은 방법론에 서서 자체의 힘으로 제기된 문제를 체계화하면 되는것이라고 여겨왔다.

다만 박사논문인 경우에만 새로운 문제성을 주되 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왔던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습관된 그 교원은 외람되게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졸업논문과제로서는 문제가 너무 방대하고 집필기간도 짧은것 같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내용과 정당성을 론증하는 글을 쓰셨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교원의 말을 들으시고 가볍게 웃으시며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정당성이야 이미 증명된것인데 그것을 또 증명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옳은 방도가 무엇인가를 찾는것인데 대학에서 강의를 들어보아도 추상적인 일반론이 많고 이런면을 밝히는것이 부족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군을 중심으로 분산된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체계를 세우고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나간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도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드팀없이 옹호하시는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이 차넘치는 말씀이였다.

그제야 교원은 그이께서 것처럼 어려운 논문제목을 선택하신 까닭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론증하시려는 불같은 충성심에 있다는것이 헤아려지면서 깊이 머리가 숙여졌다.

비범한 정력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이미 결심하신 대로 논문체계를 세워나가시였다.

이 과정에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문제라는것을 더욱 깊이 확신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날 경제학을 전문하는 교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군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의도하는것은 수령님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연설의 혁명적 본질을 밝히고 그 리론실천적 의의를 론증하자는것입니다. 또 지금 창성련석회의 연설을 한갓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려는 조치로만 리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바로잡자는데도 그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군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면서 창성련석회의 연설의 혁명적본질을 밝혀내며 군을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위치에 놓고 여러모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논문집필사업에 심혈을 쏟아부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서재에 파묻혀 기성리론의 해석에 매달리거나 머리속에서 고안해낸 추상적인 논리를 되풀이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심려하시는 문제에 모든 사색과 실천을 고스란히 바치는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시고 미지의 과학리론적 영역에 몸을 잠그시었다.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사색, 새로운 창조와 발견으로 충만된 나날을 흘렸다.

그이께서는 농촌문제와 지방공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과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심오히 연구하시는 한편 몸소 전국의 여러 지방들에 나가시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국가계획위원회와 경제지도기관들에서 종합하신 실태자료들을 분석하시었다. 선행고전가들의 리론적 유산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와 총화도 하시고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진행하고있는 농업정책들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주의깊이 검토분석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실태자료조사사업을 비상히 넓은 폭으로 확대해나가시면서도 하나하나의 자료를 매우 치밀하게 다루시었다.

식작물공장에 대한 자료 하나만 놓고보아도 거기에는 종업원수가 240명인데 그중 녀성로동자가 215명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정부인이 212명이며 준기사는 1명, 기사는 1명, 평균 기능급수는 4급, 1959년에 평균로임은 64원이었다는것까지 세밀히 밝혀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이 수자들을 또다시 력사적으로 대비하여 고찰하시였으며 그것을 또다시 도, 시, 군의 직물공장들과 대비하여 고찰하시었다.

이렇듯 방대한 량의 자료조사사업을 끝내신 그이께서는 곧 논문집필에 착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만사람이 하루일을 끝내고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종이우에 글을 한줄한줄 심혈로 써나가시었다. 때로는 논문초고를 가지고 학자들과 의논도 하시고 학생들과 토론도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추고를 거듭

하시었다. 그 나날에 그이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을 더더욱 확신하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이었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지름길을 밝혀나가시는 창조적 보람과 열정으로 끝없이 불타오르시었다.

그러기에 그이께서는 수만장서의 산더미를 뒤진 그 어떤 《학자》들보다도 시대와 혁명의 과제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완벽하게 해명하실수 있었던것이다.

1964년 3월 18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노력과 심사숙고를 거쳐 완성하신 불후의 저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발표하실 력사의 날은 왔다.

논문변론장으로 꾸려진 대학의 드넓은 강의실은 아침일찍부터 그이에 대한 흠모와 존경의 정을 품고 달려온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들가운데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논문제목을 묻던 교원도 있었고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대학생들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장내가 정돈되기를 기다리시였다가 천천히 연단에 오르시었다. 미소를 담으시고 장내를 굽어보시는 그이의 예지로 빛나는 안광에 방안은 더욱 밝아지는듯하였다. 그이께서는 교수들에게 단정히 인사를 하시고 론술을 시작하시었다. 물을 뿌린듯 정숙한 장내에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리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결국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을 도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군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역할을 놀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농촌과 같이 분산된 넓은 지역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데서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고 그것을거점으로 하여 농촌사업을 지도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거점에 관한 문제는 지난날 누구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힘있는 어조로 론단하시었다.

《…사회주의제도수립후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시여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군사업을

잘하는 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하시는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군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지역적거점으로 규정하시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게 하는데서 커다란의의를 가집니다.》

참가자들은 드림없는 신념과 심오한 분석, 강철의 논리로 시대적 과제를 거침없이 풀어나가시는 그이의 열정에 넘친 말씀에 완전히 심취되었다.

어느덧 그들의 눈앞에는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을 중심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선진문화, 로동계급이 창조한 기계의 대군단이 농촌으로 흘러들고 군자체로 만들어낸 갖가지 일용품들과 식료품들이 농민들에게 안겨져 온 나라가 인류의 최고리상 사회의 높은 언덕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가슴벅찬 화풍이 황홀하게 펼쳐졌다. 그것은 옛이야기에서 들어온 환상의 세계도, 꿈속에서 본 무릉도원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을 주름잡으며 거세차게 내닫는 엄연한 현실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흥분과 감격으로 설레이는 청중을 둘러보신다음 협동적소유의 전민적소유에로의 전환문제를 군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문제에 맞추어 정연하게 론술하시였다. 소유문제해결에서의 좌우경적 편향이 혁명과 건설 사업에서 미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주신 다음 그이께서는 지역적거점인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과 군사업전반에 대한 당적 지도문제를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끝으로 그이께서는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역사적 의의와 정당성을 힘있게 론증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은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전혀 새롭고독창적인 사상이라는것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에 넘친 그이의 말씀은 일시에 터져오르는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것은 농촌문제해결의 복잡한 고리를 확고한 주체적 립장에서 독창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참신하고 박력있는 론술에 끝없이 감동한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였던것이다.

학술적인 문제에서는 것처럼 엄격한 로교수와 학자들도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이 없어 불멸의 과학적 업적을 이룩하신 그이앞으로 다가가 두손을 부여잡고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한없이 겸허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교수들과 대학생들의 축하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였다. 그이의 론문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성된 불후의 문헌으로 높이 평정되었다.

참으로 그이께서 친필하신 졸업론문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론증하고 옹호하는 빛나는 모범이었으며 비범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탐구로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가로놓인 어려운 문제를 대담하게 개척한 탁월한 혁명적 문헌, 불멸의 과학적 저작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만대에 빛내여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걸출한 리론적 저작에 접하게 된것은 진정 **김일성**종합대학과 학계의 영예였고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였다.

그때로부터 10여일후 종합대학에서는 성대한 졸업식이 있었다.

불후의 저작을 발표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대학을 졸업하시고 혁명활동의 무대를 옮기시게 되었다.

몇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그이의 품속에서 자라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룡남산언덕을 떠나시는 그이를 석별의 정으로 오래오래 바라였고 그이께서도 정든 그들과 대학의 청사를 감회깊이 바라보시며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하시였다.

정녕 그렇게는 쉬이 바래드릴수 없고 그렇게는 험하게 발길을 돌리실수 없는 룡남산의 언덕길이였다. 그것은 그이의 대학기간이 실로 뜻깊고 자랑차고 빛나는 나날이었기때문이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종합대학시기,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서 찬란한 한 시기를 이루는 **김일성**종합대학시기에는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구현하시여 종합대학을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이끌어오신 끊임없는 지도의력사이며 심오한 탐구와 독창적인 발견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의 빛나는 력사였다.

또한 이 시기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지니신 그이께서 뛰어난 령도력으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신 탁월한 령도자의 자

랑찬 력사였으며 언제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의 력사였다.

이렇듯 대학기간에 주체위업의 충직한 계승자,
사상과 령도의 영재, 탁월한 인민적 지도자의 모

든 자질과 품모를 전면적으로 완성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마침내 만민의 축복속에 우리 인
민을 향도하실 력사의 길에 오르시게 되었다.

이 영광의 날을 길이길이 전하듯 유서깊은 룡남
산의 잣나무숲도 끝없이 끝없이 설레였다.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불러도 찾아도 대답이 없고
울어도 땅을 쳐도 듣지 못하네
하늘땅 넓어도 갈곳이 없고
불쌍한 어린것들 안길 품 없네

아침이면 걱정에 잠을 깨시고
저녁이면 근심에 잠못드시던

어머니 어머니 어데 갔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아직도 딸의 정성 모자랐는가
원한의 이 세상 야속한 사연
그 누가 사람들에게 말하여주랴

명가사평(제9회)

계급사회의 비운의 생활정서를 깊이있게 담은 시 형상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가사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에 대하여-

승경희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들은 다
명가사, 명곡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격동
시킨다.

가사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는 심오한
사상정서적 내용으로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
면서 저주로운 착취사회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고
발하고있다.

노래는 제3장 3경에서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장
면에 뒤이어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꽃분이와 순희가
땅을 허비며 통곡하는 극적인 장면에서 불리우는
비장한 노래이다.

불러도 찾아도 대답이 없고
울어도 땅을 쳐도 듣지 못하네
하늘땅 넓어도 갈곳이 없고
불쌍한 어린것들 안길 품 없네

벌써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었고 오빠인 철룡이마
저 감옥에 끌려간 꽃분이의 일가에 있어서 어머니

의 죽음은 청천벽력이였으며 그지없이 원통한 일이
였다. 사실 어머니의 한생은 너무도 기구한것이였
다. 남편을 잃고 아들도 빼앗기고 어린 딸 순희마저
눈을 잃게 된 기막힌 처지, 머슴살이 모진 생활세
파속에서 설움을 머금고 살자니 어머니의 마음 오
죽했으랴. 하여 꽃분의 어머니는 병들어 앓게 된다.

그러나 꽃분이는 약 한첩 구해 대접할수가 없었
다. 돈 한푼 없는 구차한 생활에 비싼 약을 어떻게
구할수 있었겠는가. 하는수 없어 꽃분이는 꽃이라
도 팔아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려야 했다.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분이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목소리가 밤 깊도록 유흥거리에 울려퍼졌다.

허나 꽃분이에게는 거지, 도적이라는 멸시와 천
대, 억울한 루명만이 들썩워질뿐, 어머니는 악착한
사회를 저주하며 쓰러져 죽는다.

가사는 이렇듯 착취사회에서 생활하는 근로인민
의 생활처지를 깊이있게, 예술적으로 파헤쳐보이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는 훌륭한 시로 되어야 한다. 시는 노래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시가 없는 가사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올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가사는 훌륭한 시로 되어야 한다.

가사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가 심오한 사회정치적 문제성과 철학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형상적 의도가 없었다면, 시를 안은 가사가 되지 못했으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노래로 되지 못했을것이다.

가사가 가사로서의 질적 자격을 가지려면 훌륭한 시로 되어야 한다.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아직도 딸의 정성 모자랐는가
원한의 이 세상 야속한 사연
그 누가 사람들에게 말하여주랴

가사의 마지막련의 내용에서 보다싶이 꽃분이의 체험세계는 매우 깊이 형상되었다.

어머니를 위하는 꽃분이의 효성과 정신세계는 더없이 아름답고 진실하다.

언덕과 들을 누비고 령을 내리며 한송이 한송이 꽃을 꺾고 유흥거리의 밤을 헤치며 꽃을 팔며 《장생의원》의 약방주인을 찾아 애원도 해보았다.

참으로 어머니를 위한 꽃분이의 효성은 말그대로 정성이면 돌에도 꽃피울만큼이나 지극하였다. 그러나 그 지극한 정성으로도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지 못하였다.

파연 꽃분이의 정성이 모자라서인가.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아직도 딸의 정성 모자랐는가》라는 애절한 노래소리...

사람들은 가사의 이 구절의 노래를 되새기면서 어찌하여, 무엇때문에 그토록 애를 썼건만 꽃분이는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지 못하며 어머니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통탄하며 불합리한 당대사회에 대하여 끝없이 저주하는것이다.

이렇듯 가사는 당대 사회제도의 모순과 혐악함을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밝혀내고있다.

여기에 이 가사의 사상의 심오성과 일반화가 있으며 생활 정서성과 철학성의 높은 차원이 있는것이다.

가사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는 형상을 위한 기교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명작이다.》

다른 가사들과 마찬가지로 평이한 인민적 어휘와 내용의 통속성과 같은 모범 이외에 여러가지 형상적 기교의 수법들을 활용하고있다는 점에서 명작의 품격을 갖추고있다.

그 기교들중에 특이하게 눈에 띄는것이 서로 비슷한 음절로써 이루어진 상대적인 대응구들로 말하고저하는 서정의 뜻을 계단적으로 발전시킨것이다.

가사의 첫절에서 《불리도 찾아도》에는 《울어도 땅을 쳐도》가 주인공의 행동의 정상을 계단적으로 심화시켜 보여주고있는가 하면 둘째절에서는 《아침이면 걱정에》에 《저녁이면 근심에》가 대응되어 뜻을 심화시켰다.

또한 《대답이 없》다는것은 《듣지 못한》다와 대응되어 의미를 심화시키고있다.

이러한 뜻의 형상으로 하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사의 사상정서적 내용속에 점점 깊이 이끌려들어 스스로가 착취계급사회를 뒤집어엎기 위해서는 혁명을 해야 한다는 자각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것이다.

가사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가 가지는 크나큰 생활력은 바로 이런 형식에도 크게 담보되어있다.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장면에 뒤이어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꽃분이와 순희가 땅을 허비며 통곡하는 극적인 장면에서 불리우는 비장한 노래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추도가마냥 불리우는 노래는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너성소방창으로, 흐느끼며 통곡하는 순희와 꽃분이의 노래로 그리고 천지를 진감하는듯한 대방창으로 확대되어 세차게 울려퍼지면서 일대비장한 교향악적 화폭을 안겨준다.

실로 가사는 심오한 사상정서적 내용으로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준면서 저주로운 착취사회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고발하는 기본사상을 힘있게 밝혀내고있다.

이처럼 이 가사의 노래는 가극의 가장 비참한 장면들에서 강한 극적 감정을 안고 비장하게 울려퍼지면서 갈수록 비극적 운명을 강요당하며 착취사회의 심각한 사회계급적 모순을 깨달아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부각시키며 작품의 종자가 담고있는 나라 없는 민족의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사무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가사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는 착취사회의 심각한 사회계급적 모순을 예리하게 밝힌 **단편소설**

은 사상성과 세련된 시 형상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 사색을 안겨주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나가는 그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추동하고있다.

붉은별

정해경

1

봄이었다.

새 생의 욕구에 충만되어 바야흐로 푸른 빛을 더 해가는 관목림속을 헤치며 두명의 유격대원이 걷고 있었다.

앞사람은 키가 훗칠하게 크고 등이 평퍼짐한데다 어깨가 수리의 죽지처럼 우로 치솟은 역대우같은 사람이고 뒤사람은 보통키에 가슴이 앞으로 바타져 담차보이는 사람이였다.

앞사람은 3중대장 강기명이고 뒤사람은 청봉밀영의 정치지도원을 하다가 파오를 범하고 대원으로 강직되어 기명이네 중대로 내려가는 리동환이였다.

심뇌가 비긴 얼굴과 무겁게 짙어가는 걸음을 보면 이들사이에 언제까지도 입이 열릴상싶지 않았다.

이들은 원래 가까운 친구기간이였다. 유격대입대는 한두달 차이가 있지만 같은고장 태생인데다 왕왕 내미는 성격 또한 한바리의 짐처럼 기우는데가 없어 입대후 인차 친숙해졌고 둘다 지휘관이 된후에는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였다.

이들이 한몸에 붙은 두손처럼 떨어질수 없는 막역한 사이가 되게 되는데는 남다른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동환이가 왜놈의 총 두자루를 빼앗아메고 유격대로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준분은 김정숙동지였다.

그이께서는 왜놈들을 쳐부시고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싸우자고 하시며 동환이의 입대를 축하하여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시던 빨간 모건으로 붉은별을 만들어 동환이의 군모에 손수 달아주시였다.

기명이는 그 모자를 늘 부러워했다. 동환이를 만날 때마다 기명이의 눈길은 붉은별에 끌리곤했다.

한번은 사령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했다가 동환이와 함께 자는 기회에 슬그머니 그가 벗어놓은 모

자를 쓰고 손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붉은별이 여느 때보다 더 유난히 빨간빛을 뿌리며 강렬한 힘으로 기명이의 마음을 끌었다.

그런데 자는줄 알았던 동환이가 일어났다.

동환이는 병긋이 웃더니 기명이 머리에서 모자를 벗기여 자기가 썼다.

《멋있지?》

손거울을 꺼내여 붉은별을 이러저리 비추어보는 동환이가 은근히 부러워났다.

《붉은별에 새겨진 뜻을 잊지나 말라구.》

기명이는 우정에 넘쳐 말하며 부러운 눈매로 동환이를 바라보았다.

동환이는 눈가에 밝은빛을 모아 기명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깨를 꼭 끌어잡았다. 그러더니 모자를 벗어 그것을 기명이한테 씌워주는것이였다.

《쓰라구.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쓰자던 모잘세. 우정의 기념으로 바꾸어쓰자구.》

이렇게 되여 그 붉은별은 기명이한테 오게 되였다. 그후 둘사이의 우정은 얼마나 깊어졌던가!

그랬던 동환이가 혁명의 신념을 저버리고 김정숙동지의 믿음까지 배반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사령관동지께서는 동환이를 청봉밀영에 파견하시며 부대의 식량예비를 마련할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나 동환이는 제 정신이 없이 사상적으로 변절한 엄가놈의 풍에 놀다보니 조금 장만해놓았던 식량마저 마구 소비하여버렸다. 하여 고난의 행군을 떠나는 부대에 식량을 보태주는는 고사하고 부상자들을 구환할 식량마저 떨구게 되였다.

게다가 그놈이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헐뜯는 것도 타격을 가하지 못했고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동지들의 손에 족쇄를 채우는것도 막아나서지 못하였던것 이다.

《에익!》

기명이는 소름쳐오르는 격분을 어찌할수 없어 모자를 벗어 탁 소리가 나게 손바닥에 내리쳤다.

그 순간 유난히 빛나는 붉은별이 기명의 눈길을 끌었다. 붉은별을 들여다보노라니 느닷없이 옛정이 그리워났다.

지난 겨울 총검의 숲을 헤치고 어려운 강행군을 할 때에도 한시도 잊은적이 없는 동환이었다. 사면 팔방으로 달려드는 적들과 하루에도 몇차례씩 전투를 해야 했고 생눈을 씹으며 령하 40도의 혹한속을 100여일이나 헤쳐나가면서도 동환이 생각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동환이가 동지들의 심판대우에 나서게 될 줄이야... 생각하면 목구멍이 빠근해와 견딜수 없었다.

전갈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준엄한 겨울을 이겨낸 기쁨에 씨름군처럼 끌어안고 소리치며 덩굴었을것이고 녹녹한 락엽우에 가지런히 누워 잔등이 축축히 젖어오는것도 모르고 숲우에 떠가는 흰 구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혁명의 래일에 대하여, 고향에 대하여 해저물도록 이야기를 퍼냈을것이다.

그런데 주려했던 우정을 나누기는커녕 혁명앞에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대원으로 강직된 동환이를 뒤에 달고 내려갈줄이야 꿈에나 생각했겠는가?

어제 있는 지휘관병사회의에서 동환이에게 비판을 안기던 목소리들이 되살아났다.

《... 변절자와 동지를 가려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혁명가요? 변절자가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헐뜯을 때 동문 뿔했소? 김정숙동지랑 우리 동무들의 손에 쇠고랑을 채울 때 동문 눈뜨고 보면서 뿔했나말이요? 동무가 엄가늠하고 다르게 뭔가말이요?...》

회의장은 격분과 분노에 찬 눈빛들이 평긋거렸다.

이때 김정숙동지께서 일어나시었다. 회의장의 시선이 일시에 그이한테로 집중되었다.

기명이는 긴장해졌다. 모자를 친 손바닥에 땀이 화락하니 내배었다.

이제 김정숙동지께서 준엄한 판결을 내릴것이었다.

《... 전 지난 겨울을 통하여 혁명가에게서 제일 무서운것은 죽음도 총탄도 아니고 변절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어요. 생각할수록 가슴아픈것이 리동환동무예요. 엄가늠은 혁명을 배반한 변절자여서 그런것을 했지만 동환동무가 어쩌면 사령관동지의 신임과 동지들의 믿음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수 있

겠어요?... 전 청봉밀영에서 엄가늠의 박해를 받은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혁명을 끝까지 같이 하리라고 믿었던 동지가 사령관동지의 사상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자의 죄행을 가려보지 못 한것이 제일 가슴아파요.》

청봉밀영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시였으면 저런말을 하라 생각하니 가슴이 허물어져내리는것 같아 견딜수 없었다.

어쩌면 동환이가 그럴수 있단 말인가? 분하고 억울하였다.

동환이를 친구로 믿었던 고통이 사납게 기명이의 마음을 허비였다.

기명이는 증오의 눈길로 쭈그리고 앉은 동환이를 쏘아보았다. 당장 동환이를 걷어잡고 의분을 터치고싶었다.

한동안 말씀을 끊으시고 회의장 한곳만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무슨 생각을 쫓고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직 하시던 격하신 음성과는 다르게 회억이 실린 그윽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몇해전 겨울, 내도산을 떠나 무송방향으로 갈때 었어요. 눈보라를 헤치며 숲속의 키넌는 생눈길을 뚫고가던 우리는 어느 진대나무밑에서 쓰러져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옷은 해질대로 해지고 사람의 용모는 말이 아니였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두자루의 총을 품에 꼭 껴안고있었어요. 목숨은 저도 총만은 버릴수 없었던거예요. 우리가 유격대라는것을 알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애써 무슨 말을 하려고 입술을 우물거렸으나 몸이 뽕뽕 얼어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눈길로 총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그가 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있다는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리동환동무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격정에 목이 메어 말씀을 못하시고 입술을 꼭 깨물고 한참이나 진정하고 계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가 이런 동무를 어떻게 버릴수 있겠어요?...》

《아니?...》

기명이는 놀랐다. 그리고 자기 귀를 의심했다. 꿈이 아닌가싶어 회의장에 서계시는 김정숙동지를 몇번이나 바라보았다.

그이가 분명하였다. 아프신 마음과 동지에 대한 놓을수 없는 믿음이 함께 실린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그들먹이 이슬이 고였다.

주위는 사뭇 고요에 잠겼다.

그이의 목소리는 귀로 듣는다고보다 살결에 와 닿듯이 절절하게 울렸다.

《얼기도 힘들지만 버리기는 더 힘든것이 동지가 아니겠어요. 저는 동환동무가 범한 파오는 사상적으로 변절한 엄가놈의 죄행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환동무를 통해 더욱 큰 교훈을 얻게 된것은 혁명에 대한 주관적 욕망이 아무리 커도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반혁명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며 혁명의 신념도, 동지에 대한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앞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거예요. 혁명을 하겠다고 원쑤의 총을 빼앗아메고 온 동환동무가 어떻게 혁명동지들을 배반할수 있겠어요. 혁명의 신념이 부족했기때문이에요. 저는 동환동무에게 자기 파오를 씻을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는것을 제거합니다.》

기명이는 숨구멍이 딱 막혀 숨을 쉴수 없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심장은 터질듯 팽팽하게 부풀어오르며 목구멍을 꼭 메꾸었다.

결국 이렇게 되어 동환이는 회의에서 관대한 용서를 받고 기명이중대의 작식대원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다....

기명이는 이마에서 불씨가 평긋하는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환이 생각에 움해 기동처럼 실한 고로쇠나무를 들이받는것도 몰랐던것이다.

기명이는 고로쇠나무가지를 잡아쥐고 와직 소리가 나게 꺾어 내동댕이쳤다. 어데다 성품이를 하지 않고서는 꼭두까지 치민 울화가 풀릴것 같지 않았다.

《음-》

기명이는 가슴이 꺼져드는 소리를 지르며 피땀 뒤를 돌아보았다.

《기명이 날... 마음대로 해주게.》

뒤따르던 동환이가 기명이 눈길에 질리워 머리를 푹 떨구고 말했다.

《뭐? 날더러 마음대로 하라구?》

기명이는 격한 감정이 앞서 주먹이 부르르 떨릴 뿐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신도 사람이요? 사람인가말이요?》

격분의 감정이 홍수처럼 기명이의 온몸을 감쌌다.

《고난의 행군에서 돌아와 제일 가슴아픈게 반몸으로 죽간 김정숙동무를 보는거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몸이 그렇게 쇠약해져 군복마저 후령 후령해졌겠소? 동지도 모르고 신념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당신이 인간이요? 도대체 사람인가말이요?》

창피하오. 변절자놈 하나 가려보지 못하는 청맹파니 같은 사람을 친구로 가졌던것이 창피하단말이요.》

기명이는 맞서보기도 싫어 얼굴을 픽 돌려 앞산을 바라보았다.

방금 봄을 맞은 숲은 수천의 음향을 안고 새 생명에 약동하고있었다.

산자드락의 활엽수가지들에는 푸른 리봉처럼 애들이 달리고 향긋하고 싱그러운 대기는 숲을 헤치고다니며 마치 자연의 손길처럼 나무가지들을 애무해주고있었다.

청신한 대기, 온갖 수목들이 쏟아놓는 향취, 게다가 푹푹 반목을 잠그는 락엽들이 시큼한 냄새를 풍겨댔다.

(아, 그림던 봄, 기다리던 봄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기명이의 마음속으로는 자꾸 김정숙동지에 대한 생각이 파고들었다.

기명이는 속에 불이 일것 같아 획 자리를 떠 숲을 헤치며 와락와락 걸어나갔다.

2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녁녘이었다. 작식터쪽에서 나는 솔뚜껑 여닫는 소리에 기명이의 마음은 그리로 쏘여졌다. 나무하러 간 동환이는 여직 돌아왔다는 보고가 없었던것이였다.

(그럼 누가?)

자연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여직 들던 투박한 동자질 소리하고는 다르게 뭔가 많은 식구들속에서 치여난 녀성의 체취가 느껴지는 유정한것이였다.

기명이는 천막을 들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작식터쪽을 바라보았다.

《아니?!...》

기명이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김정숙동지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부뚜막에 물매질을 하고계시였던 것이다.

순간 온몸을 휩싸는 반가움과 함께 그이앞에 어떻게 나서라 하는 생각에 발길이 굳어졌다.

《중대장동무 아니예요?》

김정숙동지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이한테로 달려갔다.

《이거 김정숙동무가 웬일입니까?》

기명이는 어좁은 미소를 피우며 그이를 바라보았다.

《나물캐러 갔다오다 들렸어요. 동환동무는 어디 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물매질모양을 띄워보시며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찾아가려던 참인데... 내가 똑똑한 동무를 사귀지 못하다보니 김정숙동무한테까지... 이거 뭐라고 할 말이...》

기명이는 뒤끝을 얼버무리며 그이께 손을 씻을 것을 권했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기명이의 말에는 개의치 않으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부뚜막에서 시작되는 것이 작식이어서 부뚜막이 고와야 밥맛이 난답니다. 전투와 행군때라면 몰라도 이렇게 얼마간이라도 숙영지생활을 할 때면 자연히 가마치레도 하게 되고 부뚜막치장도 하고 싶은 것이 작식대원이에요.》

(작식대원이란 사람이 부뚜막하나 제대로 거두지 않아 김정숙동무한테 수고를 끼치다니...)

기명이는 동환이한테 더 요구성을 높이고 엄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 해보는 작식일이어서 동환동무가 힘들어 할거예요. 한가정 식솔을 맡은 어머니들도 힘들어 하는게 부엌일인데 한개 중대를 맡았으니 좀 힘들어 하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인정이 배인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전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동환동무가 파오를 범한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동환동무 마음이야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밖을 내다보시며 무엇을 찾고계시던 김정숙동지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시었다.

《아, 저기 동환동무가 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삐 손을 씻고 밖으로 달려나 가시었다.

나무짐을 진채 김정숙동지의 마중을 받게 된 동환이는 그자리에 굳어져 움직일 줄 몰랐다.

《짐이 무거울텐데 왜 서만 있어요? 중대장동무 빨리와 나무짐을 좀 받아줘요.》

기명이는 김정숙동지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 어떤 타성에 끌려 동환이한테로 다가갔다. 하지만 선뜻 나무짐에 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런 동정을 베풀 마음이 동해나지 않았던 것이다.

김정숙동지의 목소리를 들은 몇명의 대원들이 뛰여와 동환이의 나무짐을 받아주었다.

그사이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랭이를 들고 개울로 나가 물을 떠오시었다.

《세수하세요. 나무짐을 산더미처럼 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분비나무를 반쪽씩 쳐서 판자처럼 가쁘히 붙여만든 세수대우에 소랭이를 올려놓으시며 동환이의 땀배인 얼굴을 바라보시었다.

동환이는 미루처럼 굳어져 움직일 줄 몰랐다. 크고 검은 그의 눈에서 물기가 번쩍거렸다. 동환이는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감출길 없었던지 소랭이 앞으로 다가가 물을 떠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었다.

손가락잡으로 물이 와르르 떨어졌다. 그것은 세수물만이 아님을 기명은 알수 있었다.

무슨 체면으로 김정숙동지께서 떠다준 물에 감히 얼굴을 씻을수 있단 말인가?...

문득 가슴을 몽글하게 하며 향수가 차들었다. 동요시절 술래잡기를 하느라 뛰놀다 저녁늦게 흠뻑 젖은 얼굴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세수물을 떠다주며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도 모르느냐고 따뜻한 꾸중을 하던 누나의 모습이 못견디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동환이의 세수하는 양을 이윽히 띄여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동환이를 부르시여 가지고 오신 배낭아구리를 푸시었다. 그러시고는 배낭에서 새파란 나물을 줌줍이 꺼내놓으시었다.

《아니 그건 왜?...》

기명이는 눈을 슴뻑이며 그이앞으로 다가갔다.

《동환동무가 첫 작식을 하는데 같은 작식대원으로서는 뭘 들고올게 있어야지요.》

주위에 둘러섰던 대원들이 《야- 산나물!》 하고 환성을 올렸다.

산나물을 쥐고 《흠흠》 냄새를 맡던 키떡다리 대원이 기분이 똥똥 떠서 너스레를 쳤다.

《이거 고향생각이 나누만. 오늘 저녁엔 핫나물국에 혁띠를 늦추게 됐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원들의 룡말을 즐거이 받으시었다.

《그러길래 동환동무랑 3중대에서 편지 띄우듯 냄새만 날려보내지 말고 특식이 생기면 이 정숙이 생각을 좀 하라구요. 내 그래 미리 선심을 쓰는거예요.》

《차- 이거 한방망이 맞는데... 아무렴 우리가 유격대의 1등명사수 김정숙동무를 몰라볼수야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주위에 웃음이 넘쳤다.

《산나물 한배낭에 이 정숙일 1등명사수로까지 부르는걸 보면 광고가 너무 요란해서 그 약속을 믿을수 있겠어요? 혹시 리동환동무가 하는 약속이라면 몰라도요.》

그바람에 대원들은 동환이의 등을 밀어대며 김정숙동지앞에 시원한 대답을 하라고 재촉했다.

하건만 동환이는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을 해가지고 무엇을 씹는 사람처럼 입술을 어물거리며 종시 입을 열지 못했다.

키작다리 대원이 대신 나서더니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것이 남자들이라고 으시대며 이제 동환동무 손이 얼마나 큰가를 두고보라고 입찬 소리를 하는바람에 또다시 천막가에 웃음이 들썩했다.

대원들은 김정숙동지의 작은 손이 배낭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제비나물!》, 《고추나물!》, 《쳐너곰방대!》 하고 탄성을 올렸다.

그이께서는 자못 마음이 즐거우시여 얼굴 한가득 밝은 미소를 실으시었다.

《이건... 버섯이에요.》

그이께서는 배낭옆에 놓았던 보자기를 풀어 동환이 앞으로 밀어놓으시었다.

《아니 버섯?!》

대바람에 눈빛들이 환해졌다. 이른봄에 때아닌 버섯이 나올줄은 누구도 몰랐다.

기명이는 너무나도 희귀하여 저도 모르게 버섯을 집어들었다. 느타리버섯이었다. 얼마나 정갈하게 말리웠는지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스르르 돌았다.

기명이는 이제 첫 나물구경을 하는 때에 버섯이 어디서 생겼는가고 신기해서 그이를 바라보았다.

《청서란 짐승이 꺾바르긴 해도 머리는 돌지 않더군요. 글썽 가으내 겨울양식으로 장만한 버섯을 나무가지에 걸어놓지 않았겠어요. 열성스레 장만해놓고도 돌아서면 제한 일을 잊는것이 청서여서 이 좋은 버섯이 그대로 걸려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걸어왔어요. 우린 겨우내 먹을 고생을 했는데 그것들은 산에서 같이 살면서 인정사정도 없이 이렇게 식량예비를 두고 너무나도 푹푹히 살더라니까요.》

《야, 그런줄 알았더라면 지난 겨울 행군때 땅에 뭐가 있나만 살피지 말고 나무가지우라도 올려다 보는건데...》

《차- 이 친구 사람 웃기누만. 그게 뭐 <날보소> 하고 아무 눈에나 띄우는줄 아는 모양이지? 김정숙동무같은 1등명사수의 눈에만 보인단말이야.》

중대는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그러나 기명은 김정숙동지께서 수고스럽게 구해온 버섯을 받을수 없었다.

《정숙동무, 버섯은 가져다 사령관동지께 올리도록 합시다. 우린 이 산나물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동환이는 서둘러 버섯보자기를 싸기 시작했다.

《사령관동지께서 색다른 버섯을 보시면 아무래도 사령부 근처에 있는 3중대부터 생각하실텐데 괜히 두번 걸음을 하겠어요? 배낭에 더 있어요, 국가마에 몇송이 넣어보세요. 맛이 어땡나.》

그이께서는 동환이앞으로 다시 보자기를 밀어놓으시고 얼굴에 회색의 빛을 실으시는것이였다.

《이제부터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질거예요. 숲의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이께서는 나날이 푸르러가는 숲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겨 말씀을 이으시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력서의 새해는 1월1일이지만 숲을 집으로 삼고 후방창고처럼 쓰고 사는 우리 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푸근한 잠자리들 주고 산나물을 제공해주는 봄이라구요. 자연이 생겨날 때 왜 숲에 겨울을 만들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명이는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이 자연을 두고 그저 무심히 스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것을 생각하고있었다. 굶주림에 고생하던 지난 겨울 행군때 청봉밀영의 일이며, 그이께서 식량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쓰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랴 하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기명이는 준엄했던 1938년의 겨울을 되새겨보며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여 쌀을 일고 계시었다.

섬약한 어깨, 촉가신 얼굴, 체소하신 몸매, 그이의 몸에서는 아직 청봉밀영에서 받은 고뇌의 흔적이 엿보이였다.

그러나 지금 김정숙동지한테서 느끼게 되는것은 자식들의 시중을 드는 어머니들한테서 보게 되는

감정이랄까, 한구들 가득한 동생들을 애무해주는 누이한테서 받는 사랑이랄까, 그런 인정뿐이었다.

동환이는 우는지 웃는지 모를 얼굴을 해가지고 굳어져있었다. 이따금 몰아쉬는 숨결로 보아 깊은 자책에 젖어있는것 같았다.

《처음 큰 비판들 받고 동무들앞에 나서자니 생각이 많을거예요. 그렇지만 혁명가도 인간인데 왜 곁함이 없겠어요. 그렇기때문에 사령관동지께서는 혁명가의 투쟁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원쑤와의 싸움보다 사상투쟁이 더 많을것이라고 하시었어요. 기명 중대장동무가 곁에 있는데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기명은 김정숙동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쓰러났다.

(민음을 주고 배반을 당한 뼈저린 아픔을 벌써 잊었던 말인가? 저런 인정을 베풀자니 김정숙동무의 마음이 오죽하랴...)

김정숙동지께서는 돌아가시고 봄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기명이는 잠들수 없었다.

3

술에 또 한절기가 바뀌어 어느덧 봄은 소리없이 여름의 품으로 녹아들었다.

매를 기다렸던 기명이는 동환이에게 산나물을 뜯을 과업을 주어 산에 들여보냈다. 이것은 동환이가 파오를 씻는 좋은 기회로 될것이었다. 또 김정숙동지의 눈에 자주 띄우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놓자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기명은 동환이에게 나물을 꺾 임무를 줄 때 같이 가볼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해서 그만 두었다.

동환이는 이틀이 멀다하게 산나물을 해지고 내려왔다. 어떤 때는 생것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마에 찌서 말리운것을 가져오기도 했다.

기명이는 동환이가 등이 보이지 않게 산나물을 해가지고 올 때마다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동정심이 눈뿜었다.

그러나 기명이는 그런 내색을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늦추어준다면 그의 사상단면에 지장이 될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사령부에서 전령병이 찾아와 식량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해주었다. 경위중대에서 적을 치고 식량을 구해왔는데 김정숙동지께서 그것을 사령부근처에 있는 중대들에 나누어놓고 기다린다는것이였다.

기명이는 그것을 받아올수 없었다. 식량사정이 긴장한 때에 사령부량식으로 구해온 쌀을 보태주기는 고사하고 덜어올수는 없었다.

기명이는 전령병에게 동환이를 산에 들여보내어 나물을 뜯게 했더니 중대생활이 팬치 않다는 말로 리해시켜 돌려보냈다.

그런데 하루해가 다 저문 어슬녁에 김정숙동지께서 쌀배낭을 지고 찾아오실줄이야...

김정숙동지께서는 동환이가 없는것을 섭섭해하시였다.

기명이는 사실대로 동환이가 파오를 씻게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동무들의 리해를 사는데서도 그렇고 해서 동환이를 산에 들여보내어 나물을 뜯게 한 사실을 설명하였다.

점도록 말씀이 없으시던 그이께서는 기명이보고 지금 동환이가 어디서 나물을 뜯는가고 물었다.

기명이는 동환이와 연락장소로 정한곳밖에 모르고있었다.

《찾아가 볼걸 그랬어요. 중대원들속에 있어도 마음이 피로울텐데 혼자 산에 들어가 있자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을 들으니 조금도 변명할 말이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명의 심중을 들여다보신듯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중대장동무의 마음이 아프리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파오를 범하고 처벌을 받았으니 왜 안그렇겠어요.》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더니 말씀을 이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동환동무를 내려보낼 때 범한 파오때문에 마음이 무거울텐데 가까운 친구가 있는 3중대로 보내자고 하시었어요. 그러시면서 싸움밖에 모르는 기명동무한테 그런 인정이 있겠는지 모르겠다고 근심스러워하시었어요. 동무란 즐거울 때보다 어려운 때 더 그리운것이 아니겠어요?》

기명이는 가슴이 질리였다. 자기가 동환이에 대해 너무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꾸역꾸역 머리속으로 파고들었다.

그이튿날 기명이는 동환이를 찾아 길을 떠났다.

산이 험한데다 나무가 무성하여 도무지 길을 트워주지 않았다. 그런데다 달아오른 숲이 확확 열기를 토하여 한증탕처럼 무더웠다.

기명의 등골로 땀이 흘렀다. 기명이는 동환이와 약속한 지점바루에 대고 어방 소리쳐 그를 불렀다. 그러나 동환이는 대답이 없었다. 하기가 나물을 뜯자니 한곳에 머물러있을수 없을것이다.

반나절이나 헤맸으나 동환이를 찾을수 없었다. 목이 마르고 물이 키였다. 우선 목부터 추겨야 했다.

산우에서 내려다보니 석양빛에 유난히 반짝이는 실개울이 보였다.

기명이는 개울을 목표삼아 부지런히 숲을 헤치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걸었던지... 수풀을 헤치고 개울가로 막 달려나가려던 기명이는 무엇에 잡힌듯 흠칠 멈춰섰다.

《아니?》

개울가에 김정숙동지께서 앉아계시었던것이다. 그이앞에 동환이가 앉아있었다.

기명이는 꿈만 같아 도무지 현실을 믿을수 없었다. 다시 바라보아야 분명 김정숙동지시였다.

개울가의 자그마한 돌우에 걸쳐앉으신 그이께서는 동환이의 해진 옷을 집고있었다.

《얼마나 산을 헤매고 다녔으면 신발이 다 해져 덧바닥까지 대어신였겠어요... 전달까지만 하여도 새옷이던 군복이 이렇게 해졌으니 고생인들 얼마나 했겠어요.》

도간도간 울리는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명이는 머리가 핑 돌면서 달려나갈 힘도 잃고말았다.

기명이는 수풀속에 주저앉았다. 신에 덧바닥까지 대어신었다는 말이 자꾸 머리를 파고들었다. 저런 수고로 산나물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니 동환이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무엇을 외우듯 끝없이 주절거리며 흘러내리는 물결은 김정숙동지의 목소리를 더욱 유정하게 전해주었다.

《식량이 부족한 우리 살림에 동환동무가 뜯은 산나물이 큰 은을 낼거예요. 벌써부터 중대장동문 동환동무가 산나물을 뜯어오는바람에 중대생활이 편이었다고 자랑을 하는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화색에 넘치시여 석양에 번쩍이는 물결을 바라보시며 생각을 좇고계시더니 말씀을 이으시였다.

《정말이지 동지들에게 필요한 인간이 되고 혁명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동지보다 더 중한게 없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운 옷을 이리저리 훑쳐보시고나서 동환이앞에 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가지고 온 보자기를 푸시고 책자들을 내놓으시는것이였다.

《산에서 고생하는줄 알면서도 짬짬이 읽어보라고 가져왔어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총만 가지고서는 적을 이길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배우지 않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는거예요. 지금도 분한것은 몰랐던탓에 동환동무가 엄가놈한테 업히워 파오까지 범하게 된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조에는 불미한 자식을 두고 마음쓰시는 어머니들에게서 볼수 있는 그런 인정이 넘쳐있었다.

기명이는 김정숙동지께서 동환이에게 내주시는 책들을 바라보았다. 기명이도 빌려다 본적이 있는 사령관동지의 로작들이였다.

기명이는 속으로 그 로작의 이름들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선에서 광범한 군중의 반일운동을 어떻게 조직할것인가》

기명이는 울컥 걱정이 솟구쳐올랐다. 어쩌면 김정숙동지의 마음이 그리도 너그럽고 도량이 큰지 몰랐다.

세상에 김정숙동지 같은 동지가 또 어디 있겠는가!

기명이는 뿌연게 흐려진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우러러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동환이가 벗어놓은 모자에 달린 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더니 해빛에 물이 날아 불그스레해진 오각별을 떼시였다. 그러시고는 품에서 빨간 모전을 꺼내어 붉은별을 새기기 시작했다.

(아, 붉은별!)

기명이는 저도 모르게 모자를 벗어 별을 바라보았다. 좀더 일찌기 동환이를 찾아오지 못한 후회로 그는 이윽히 몸부림쳤다...

어느날 기명이는 동환이를 데리고 사령부로 오라는 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기명이는 급히 산에 연락을 띄웠으나 동환이가 나타나주질 않았다. 기명이는 여직 살면서 기다린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처음 절통하게 느꼈다.

기다리다 못해 기명이는 먼저 사령부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령관동지께서 기다리실 생각을 하니 먼저 찾아가 사유를 말씀올려야 되리라고 생각했다.

기명이는 동환이가 돌아오는 즉시로 떠나보내라고 해놓고 사령부를 향하여 달렸다.

《무슨 일로 부르실까? 새로운 작전때문일까, 혹시 동환이 문제때문이 아닐까?...》

일령이는 가슴에 못생각들이 실리었다. 동환이를 함께 부르시길 보면 꼭 동환이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것 같기도 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파묻혀 걷다보니 사령부천막이 언제 나졌는지도 몰랐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시듯 활력에 넘치시여 기명이를 맞아주시었다.

《리동환동무는 안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기명이가 혼자 온것을 아시고 물으시었다.

기명이는 동환이가 늦게 되는 사정에 대하여 보고드리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기명이에게 자리를 권하시고는 너그러우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동환동무때문에 기명동무가 고생이 많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몇걸음 옮기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천막을 드시고 기명이가 온쪽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나는 동환동무를 내려보내면서 생각이 많았댜소. 아무래도 과오를 범하고 피로워할것 같아 의지가 되라고 친구가 있는 3중대로 보냈던거요.》

순간 가슴에 불이 달린듯 뜨거워났다.

이런 믿음도 동지적 우정도 지키지 못한 자신이 깊이 후회되였다.

《그래 동환동무가 어땡소? 그동안 이야기를 좀들어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 기명이 옆에 와 앉으시며 말씀하시었다.

기명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친구를 보증해나설 기회가 드디어 온것이였다.

기명이는 동환이가 해온 사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드렸다. 신에 덧바닥까지 대여신고 산나물을 켜다는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환동무를 믿을수 있단말이지?》

사령관동지께서는 동환이를 몹시 마음에 싸하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사령관동지, 믿을수 있습니다.》

기명이는 자신에 넘쳐 활기있게 말씀올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몹시 만족하시여 기명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그러니 동환동무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어도 되겠소?》

《해낼수 있습니다.》

기명이는 큰 목소리로 조금도 꺼리낌없이 장담했다. 그러면서 무슨 임무든 동환이에게 맡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령관동지를 우러러보았다.

《적후에 보내도 일없겠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마디마디 무게를 달아 물으시었다.

《적후에 말입니까?》

기명이는 그만 말이 굳어지고 말았다. 말문에 빗장이 질린듯 도무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부대안에서도 혁명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자를 추종했던 생각을 하면 온갖 시련이 겹쳐들 적후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보증해나서기 힘들었다. 기명이는 머리를 떨구었다.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것이 괴롭고 안타까웠다.

이때 기명이의 생각을 깨치며 동환이가 들어와 사령관동지께 도착보고를 했다.

《수고했소. 그간 수고가 많았소. 정숙동무한테서도 들었고 방금 중대장동무한테서도 동환동무 이야기 들던중이요. 나는 동환동무가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었댜소. 믿음에 믿음으로 대답하는것이 동지가 아니요!》

사령관동지께서는 기명과 동환이를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내 연사지구에 정치공작원을 파견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제기되였소.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늘이고 국내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안겨주어 반일성전으로 힘있게 불타일으키자는것이요. 사령부에서는 이 임무를 리동환동무에게 맡기기로 했소.》

《예?!》

기명이의 심장은 튀어나올듯 높이 고동쳤다.

《이미 군수관사업도 했고 정치사업을 해본 경험에 있는데 이번 기간을 통해 단련된 동환동무를 보내면 정치공작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이라고 정숙동무가 추천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몹시 대견해하시는 기색으로 동환이를 곁어보시었다.

순간 기명이는 무력감이 생기면서 온몸이 무너지는것 같았다.

(김정숙동무!...)

기명이는 속으로 이 한마디만을 뇌일뿐이였다.

(나와 동환이는 얼마나 가까왔던가. 내가 가는 곳에 동환이가 따랐고 동환이 하는 일에 내 앞장서 나서지 않았던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가, 동환이때문에 무슨 오명을 입을까봐?... 좋을 때는 죽자살자하구 어려운 때는 멀리하구 내 무슨 인간이람...)

기명이는 가슴저미는 자책의 회오리속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이윽고 사령부천막을 나선 동환이는 눈굽을 주먹으로 뺨뺨 흠치며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어디론가 정신없이 달렸다.

《동-환-이-!》

기명이는 동환이를 소리쳐부르며 따랐다.

하건만 동환이는 뒤편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앞으로만 달렸다.

《동환이-!》

동환이를 따라 정신없이 달리던 기명이는 주춤추어섰다. 동환이가 달려가는 저앞에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시었던것이다.

그제서야 기명이는 사령부천막을 나서는 순간 동환이의 소식을 제일먼저 알고싶던 사람이 김정숙동지였다는것을 생각했다.

엎어질듯 달려간 동환이가 김정숙동지앞에 가서 휘친 멈춰서더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얼굴을 싸 쥐었다.

《정숙동무!...》

동환이는 세차게 어깨를 떨었다.

뒤미처 김정숙동지앞으로 달려간 기명이는 힘을 내어 입을 열었다.

《정숙동무! 사령관동지께서... 동환동무에게 국내정치공작임무를...》

기명이는 마지막까지 말을 다하지 못하고 허바닥을 지그시 깨물었다.

《...기빠요, 정말 기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창황히 동환이를 일으켜세우는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이슬이 빛났다.

《정말... 동지란 얼마나 좋은가요. 어려울 때도 동지, 기쁠 때도 동지, 그저 동지밖에 없다니까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며 동환이를 바라보시었다.

기명이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자기앞에 서있는 수수한 녀성유격대원, 보통군복차림의 김정숙동지에게서 조선이 낳은 또 한분의 위인, 혁명을 끝까지 같이할 동지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다.

몇해가 지난 어느날이었다.

동환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국내정치공작임무를 마치고 사령부로 돌아오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어 옥중투쟁을 벌리고있던 동환이가 편지를 보낸것이다.

한시도 잊은적이 없는 동환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더욱 가깝게 이어준 친구였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 기명이는 동환이가 보낸 손바닥만한 종이를 겨우 펴들었다.

그런데 종이한가운데 붉은별, 피로 그린 붉은별이 새겨져있었다.

기명이는 씹어삼켜도 누를길 없는 오열에 어깨를 떨며 뿌영게 흐려진 눈길로 붉은별밑에 새겨진 글발을 뜯어보았다.

나는 살수도 있었소. 그러나 죽는것으로 동지들 곁에 가고싶었소! 세상에 동지란 이름보다 더 귀한 칭호는 없다! 나는 혁명앞에 이 말을 남기고 가오.

《동환이-!》

기명이는 군모를 벗어 얼굴을 싸쥐었다. 비오듯 쏟아져나오는 눈물이 군모우에 빛나는 붉은별을 적시였다.

기명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허청거리며 김정숙동지를 찾아가고있었다.

헌신

림종근

소리없이 눈을 쓰시네
밤새 눈에 묻힌 정원길을
어머님은 깨끗이 쓰시네
이제 장군님 걸어오실
눈에 덮인 길을 열어가시네

빈터우에 새 조선을 세우시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새신 장군님

차디찬 눈을 밝지 않으시게
어둑새벽에 마른일을 마련하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생각 깊어만지네

백두의 나날 눈내린 새벽이면
이렇게 사령부 트랙을 쓰시던 어머니
장군님 가실 천리길에 쌓인 눈도
말끔히 쓸어드리고싶으셨네

꽃주단 필필이 깔아드리고싶으셨네

아! 그때 못다 바치신 마음
오늘 다 쏟으시는가

어머님은 높이 쌓인 눈을 치시네
눈보다 더 높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깔아가시네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김승남

그리웁구나
날알향기 구수하게 풍기며
넓은 벌이 비좁도록 들어찬 이삭들
한껏 여물어 설레이는 이런 날엔...

더더욱 뵈옵고싶구나
이 벌 한끝까지 밝게 웃으시며
발자욱도 사뿐사뿐
그날의 저 길을 따라
이제라도 문득 나타나실것만 같아

아, 김정숙어머님
오시겠다던 그 약속 어떡하시구
꼭 오시겠다던 그 말씀 어디 두시고
이런 날 이런 때는
우리 마음 이처럼 젖어들게 하는가

해방된 그 이듬해봄
이 벌을 몸소 찾아주신 어머님
흙문은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농사를 짓느라 수고도 많겠다시며
손수 호미자루를 잡으시었지

어쩔바를 몰라하는 우리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며
자신도 농사군의 딸이라 하실 때

종다리도 즐거움에 목청을 돋웠더라

장군님 주신 땅에 농사를 잘 지어
만풍년든 가을날에 오시겠다던 그 말씀
이 벌에 새겨있고
사랑을 주고가신 자애로운 그 영상
오늘도 이 가슴에 간직되어

그 봄으로 농사짓고
그 가을로 황금나락 무르익혀
이제라도 오실듯싶은 이 가슴엔
나날이 풍만해지는 이 벌도 모자라는듯

수령님과 당의 해빛 따사롭게 넘치여
어머님 그날에 바라신 뜻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도 다 꽃피났건만
풍년벌을 더 잘 가꾸자고
오늘도 이 마음속에 찾아오시나니

아,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해도
언제나 그날의 그 모습으로
어머님은 이 벌에 함께 계시누나
수령님과 당을 공산주의 쌀날가리로
높이 받들어가며

불빛은 거리에서

김재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나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항일무장투쟁시기 정숙동무가 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서슴없이 내대던 일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는 나라가 해방은 되었으나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정세가 복잡하니 어찌 한시인들 제자리를 떠나겠는가고 하면서 일가친척을 찾는것도 미루어온 혁명동지입니다.》

맑고 푸른 가을하늘에 하얀 구름송이들이 동동 뜬 어느 휴식일 저녁무렵 나는 아들과 함께 대동강가에 산책을 나갔었다.

실버들 휘휘 늘어진 강변으로 회열에 넘쳐 거니는 청춘남녀들의 모습도 좋았고 노을비낀 기슭에 앉아 흐뭇이 담배연기를 날리며 이따금 팔뚝같은 고기를 낚아올리는 머리 허연 로인들의 모습도 대동강의 풍치에 어울려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제 할아버지를 따라나온 조무래기들이 펄떡이는 고기를 앞에 놓고 재깍이는 소리도 귀맛 좋게 들려온다.

나는 저물녘 강변의 정서에 취하여 오래도록 강기슭을 거닐었다.

얼마나 좋은 저녁인가. 마음은 한없이 정화되고 몸은 더더욱 젊어지는듯만싶다.

어느덧 노을이 지고 아기별들이 하나둘 빛을 뿌리기 시작할 때에야 우리는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었다. 우리가 광장쪽 포도우에 올라섰을 때였다.

앞서가던 아들이 광장쪽 청사우의 옥상을 가리키며 나를 찾았다.

《아버지, 저 수력발전소를 보세요. 막 물이 쏟아져내리는것 같아요. 참 멋있지요.》

아들의 말에 이끌려 그곳을 바라보니 불빛 찬란한 우리 나라 국장 장식등에서는 반사되는 불빛에 따라 정말 물이 쏟아져내리는것만 같았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국장 장식등에 눈길을 멈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 감은 비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

아들의 말따라나 끝없이 명멸하는 전등불빛 속에 흰 물갈기를 일으키며 쏟아져내리는 웅장한 수력발전소의 위용이 한눈에 확 안겨왔다.

홀린듯 그 발전소에 취해있던 나는 국장에 깃든 뜨거운 사연이 떠오르면서 무엇인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일념아, 넌 우리 나라의 국장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다는 모르지?》

아들애는 금시 눈이 동그래지며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 국장과 국기의 초안이 만들어지던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무렵 남북통일거를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국장과 국기의 제정을 비롯한 공화국창건과 관련된 모든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불철주야로 사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힘껏 노력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시기 수령님께서 맥에 들어오시면 보실 자료들과 문헌들, 참고서적들을 미리 읽어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고르고 제목들을 표식해두시였으며 어떤것은 수첩에 따로 적어넣었다가 보고드리곤 하시였다. 특히는 새로 창건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과 국기초안 작성사업을 방조함으로써 공화국창건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하시였다. 그리고 공화국의 국장과 국기 초안작성을 책임진 선전국장을 여러번 만나서 국장과 국기 제정방향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자세히 알려주고 도안초안을 여러번 보아 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과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별을 국기와 국장에 넣는 문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국호제정문제 뿐아니라 국기와 국장 제정문제에 있어서도 반동적인 주장을 들고나왔다. 이자들은 국기의 동그라미안에는 오각별대신에 보습을 그려넣었으며 국장의 형태도 옛날 구리거울모양으로 동그랗게 하고 용광로대신 조선봉건왕조시대의 대궐이었던 경복궁을 그려넣어야 한다고 떠벌이었다. 놈들의 이러한 반동적 주장을 짓부셔버리고 국기와 국장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되던 전날밤이었다.

밤늦게 저택에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기와 국장 도안을 책상앞에 펼쳐놓으시고 자정이 넘어 새벽이 가까와오도록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녀려하시자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울 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을 오늘 회의에서 결정짓게 되는데 국장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국장도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국장도안을 놓고 생각에 잠기시었다.

그때 국장도안을 신중히 살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장안에 넣은 용광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용광로로서는 우리 나라의 발전방향을 충분히 반영할수 없다고 하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색을 깨치며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장차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발전된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되게 하자면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해야 하는만큼 기술발전의 방향을 보여주는 전기화를 반영하는 내용의 그림을 용광로대신에 그려넣으면 어떻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확신에 차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보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나라의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전기화를 반영하는것이 제일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시었다.

그런데 전기화를 어떤 형식으로 반영할것인가가 문제였다. 김정숙동지의 머리에 번개치듯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예지로운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르면서 발전소를 그려넣으면 전기화를 표현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말씀올리시었다.

순간 위대한 수령님의 안광이 환하게 빛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곧 연필을 드시고 수풍발전소의 모형과 고압송전탑을 국장도안에 손수 그려넣으시었다.

키높이 솟은 언젠, 흰 안개를 뿜어올리며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물줄기, 뽀뽀이 뽀뽀이 고압송전탑...

다 그려진 국장도안을 보시며 만족하시여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김정숙동지의 얼굴에도 은은한 미소가 어리었다.

보면 볼수록 불빛 찬란한 우리 나라 국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보시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애쓰신 김정숙동지의 충성의 한마음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순간의 사색도 오직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시려 고심해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이처럼 불같이 뜨거운분이시기에 항일의 그날 충성스럽던 전사의 그 자세로 조국이 해방된 그날에도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하여 한밤을 지새우신것이며 새민주조선 건설로선을 받들어 힘과 지혜를 바쳐오셨고 사회주의를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시려 아글타글 애쓰신것이 아니라.

그런 나날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가장 순결하고 열렬한 전사의 의리를 안고 뜨거운 심혈과 열정을 기울여오신 김정숙동지의 숨은 노력에 의하여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되었고 미림벌에서의 모내기도, 낮과 밤이 따로 없던 경성군에서의 분망하신 사업도, 금강산구경도 뒤로 미룬 전설같은 이야기도 태어난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가슴 사무치게 안겨오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 정녕 어머니의 생애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남기신 자옥자옥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불멸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오늘도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 어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성의 한마음으로 보좌해드리시던 어제날의 모습 그대로 대성산주작 봉마루에 거룩하게 서계신다.

만면에 함뿍 미소를 머금으시고 락원의 강산을 굽어보시는 그 인자한 눈빛따라 산아래를 바라보면 나날이 웅장화려하게 변모되어가는 혁명의 수도 평양이며 금나락 설레이는 풍요한 협동벌이 한눈에 안겨온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그토록 절절히 바라시며 국장안에 수력발전소를 그려넣자고 하시던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녀원, 바로 그 녀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국의 장엄한 현실우에 눈부시게 펼쳐진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아들도 묵묵히 생각에 잠기여 말이 없었다. 그런 아들에게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의 혁명투사들이 피흘려 찾아준 귀중한 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국장장식등은 여전히 밝은 빛을 뿌리며 명멸하고 있었다.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의 한마음을 바친 김정숙동지는 우리 인민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충성의 귀감이라고 일깨워주는듯이...

불멸의 구호나무앞에서 외 1편

석광희

설레는 숲도
그날의 사연을 못잊어
하냥 진정할줄 모르는가
부는 바람도
그날의 감격이 새로와
그저 스쳐지나지 못하는것인가
혁명의 구호나무여

땅이 넓어도
그 땅에 다 쓸수가 없고
하늘이 넓어도
그 하늘에 다 옮길수 없던
심장의 벽찬 부르짖음을
한그루 소나무에 새겨놓았구나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환희에 넘쳐
한획 또 한획
감격에 들먹이며
한자 또 한자
혁명의 명맥이 이어지는
조선의 대통운을 맞은 경사를
온 나라 온 겨레에 소리높이 알려준
고마운 투사여

원쑤의 총검이 막아나서고
배당속의 량식은 떨어져 비어있었어도
백두성 생각하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아

적후공작의 길 헤쳐간적 얼마였더냐

원쑤치러 싸움터에 나갈 때에도
용기가 나고 새힘이 솟고
승리하고 사령부로 돌아올 때면
백두성이 그림고 어서 가보고싶어
발걸음 다그친적 얼마였더냐

아 진달래 핀 봄언덕에
항일의 녀장군 고삐잡아준 백마에 올라
환히 빛나던 백두성
그 모습 우러러 환호하던 투사들
어찌하여 웃음속에 눈물짓고
뜨거운것 삼키며 소리없이 흐느꼈던가

영특한 눈빛
빛발쳐 가닿은 그 한끝에
백두성이 떠메고 갈
조선의 래일이
창창히 열려져있음을 보았거니

희과 희에
그 신념을 새기고
글자와 글자에
그 기대를 담은
투사들과 꼭같은 마음으로 받아외우며
나도 오늘 걱정을 터치노라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백두의 고향집을 떠나오며

멀리 저 멀리
백두의 고향집을 떠나오는 길
저도 모르게 자꾸만 목이 메이네
자꾸만 자꾸만 눈썹이 젖네

눈내리는 뜨락에서 눈길 떼지 못하던
얕디 얇은 한장의 그 담요가
눈앞에 선히도 어리여와서

마음속에 내내 어리여와서

그 나날이 그렇듯 엄혹했어도
그 담요 하나밖에 덮어드리지 못했던가
걸음걸음 사무쳐
타ลุ는 생각이여

그리운 고향집을 찾아갈 때엔

레사로이 바라보며 스쳐지났던
오붓한 립산마을
환한 농장마을

미소처럼 빛나는 창문 하나도
유치원마당가의 그네터 하나도
얼마나 많은 생각 불러내는가
얼마나 많은 뜻을 말해주는가

좋아라 뛰노는 저 애들이야
알수 없으리 아직은 어린 나이
자기네의 포근한 요람
폭신한 솜포단의 고마움을 은혜로움을

아니다 저 애들만 탓하지 말자
귀밀머리 희숙해진 이 몸은 다 알고 살았던가
생각하면 송구스러워 송구스러워
마음속에 안아보고 쓸어나나니

숲을 지나 굵이굵이
령을 넘어 굵이굵이
자꾸만 자꾸만 목이 메이네
목이 메여 목이 메여 눈굽이 젖네

멀리 저 멀리
눈내리는 밀영이 멀어질수록
눈앞에 삼삼히 어리어와서
마음속에 더 가까이 어리어와서

승엄하다고만 노래하기엔
너무도 거룩한 사연과 함께
그날의 온기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천만의 심장을 덥혀주는 담요여

천만장의 그 어떤 모포로써도
그 한장을 대신할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인 소중한 너를
내 한생의 끝까지 안고 살리라

그 높이에 오르기전에는

허창일

내 지금 내닫는
이 한자옥에
얼마나 준엄한 혁명의 년대가 흘러갔는가

내 지금 딛고선
한자옥 이 흙에
얼마나 시련에 찬 항일사가 씌여있는가

한덩이 돌을 쥐여보아도
투사들의 체온이 스며 따스하고
한떨기 꽃을 만져보아도
투사들의 뜻이 어려 승엄하고

언듯 불 스치는 바람도
그네들이 두고간 숨결인듯
밀림의 우듬지 설레임소리도
그날의 사향이 여운인듯

오, 백두산
흙에도 났, 돌에도 났, 나무에도 났,
여기에 있는것은 그 어느것에나
투사들의 뉘이 깃들어있어

자옥자옥 오를수록
산의 높이는 줄어들어도
자옥자옥 오를수록
경모의 봉우리는 높아만지나니

천지가 보인다고
장군봉에 올랐다고
내 백두산에 다 올랐다 하지 않노라

자옥으로는 오를수 없고
자로는 제일수 없는
투사들의 숭고한 뉘의 높이
그 높이에 오르기전에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과 예술적 탐구

박춘택

문학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을 더 잘하고 건설을 더 잘하도록 사람들을 조직동원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우리 문학의 사명이다.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무기로 되어야 할 문학은 응당 당정책에 민감하고 당이 의도하고 해결을 바라는 문제, 당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예술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정하고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우리 당은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가져오고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울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시기 경공업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들에게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경공업혁명을 하여야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소비품에 대한 질적 요구와 량적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운택하게 해줄수 있다.

올해는 경공업의 해이다. 우리 당은 1980년대의 마지막 해인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정하고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당의 경공업혁명을 수행하는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것을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면 현시기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실현하는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인간학인 문학의 기본사명은 작품의 중심에 본보기로 되는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형상하여 사람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있다. 산 인간의 성격창조를 떠나서 문학은 자기가 내세운 형상적 과제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그들의 숭고한 성격적 특질을 감명깊게 부각하는것이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과 배려를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이 영예로운 과업수행에서의 성과는 경공업혁명을 직접 조직집행해야 할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임무에 대한 깊은 자각, 바로 여기에 경공업혁명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담보가 있다. 이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일군들속에서 높은 책임감, 헌신성이 발휘될수 있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은 참다운 혁명가의 기본표징의 하나이며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이룬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욱 철저히 지닐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이 제시한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할 현시기 경공업부문 일군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려면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에게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이 부족하면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경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닌 일군만이 경공업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부닥치게 되는 애로와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경공업혁명방침관철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이것은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전형창조에서 이러한 성격적 특징을 체현한 인간의 형상을 심오히 그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을 형상화하는데서 우리 작가들이 예술적 탐구를 심화할 문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성을 신념화, 인생관화한 인간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생활적으로 그리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숭고한 정신을 신념화, 인생관화한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경공업혁명방침을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는데서 생명의 가치와 생활의 의의를 찾는다.

그러므로 경공업부문 일군들을 빛나게 형상화하면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을 신념화하는 과정과 그것을 인생관화한 인간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하는것이다.

인민의 총복으로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인생관화한 경공업부문 일군의 전형을 잘 형상하자면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치는 성실한 인간, 가장 진실한 인간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헌신적으로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

우리 작가들은 경공업부문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그것이 숭고한 삶의 요구로 된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으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그것을 관철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신임에 혁명적 양심과 의리로 보답해가는 혁명적 풍모를 옹골치게 전형화하여야 한다.

높은 혁명성,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심오히 일반화하는것은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참다운 풍모를 부각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인것만큼 일군들은 마땅히 혁명성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건설, 경공업혁명방침관철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당이 경공업혁명을 벌려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는 방직공업과 피복공업, 식료가공공업과 신발공업, 일용품공업 등 경공업의 모든 부문들에서 새로운 생산적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를 비롯한 소비품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는것이다. 인민들의 식생활로부터 입고 쓰고 사는데 드는 모든 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투쟁목표로 하는 경공업혁명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오늘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모든것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혁명정신으로 풀어나가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그들은 경공업혁명수행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닌 이러한 풍모, 경공업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나가는 확고한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주체형의 참다운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성격적 특징을 심오하게 일반화하여야 한다.

혁명성은 혁명가의 기질이며 언제나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이다.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의 성과도 오직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비상한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혈기왕성하여 기백있게 일할 때라야 이루어질수 있다.

경공업혁명수행을 힘있게 고무해야 할 우리 문학은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높은 정치적 자각을 지니고 사업에 적극 투신하며 있는 힘과 지혜, 정열과 재능을 다 바치는 일군의 전형을 창조하여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당과 수령이 맡겨준 경공업의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직책상 본분을 다하며 실천적 성과를 거둬으로써만 당의 크나큰 신임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수 있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혁명가의 자각을 가지고 혁명사업에 투신한 하루하루가 적당히 산 몇백, 몇천일보다 더 귀중한것이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된 지금이야말로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명의 전진과 조국의 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착실히 해야 할 때이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심장깊이 자각한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더 빨리, 더 잘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높은 혁명성을 지니고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혁명을 먼저 생각하며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보다 혁명의 리익과 집단의 명예를 더 귀중히 여기는 일군, 경공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심전력하는 일군, 나라의 경공업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착실히 일하는 숨은 노력가, 미더운 일군의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하여야 한다.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미학적 문제는 또한 다양한 주제를 적극 탐구하는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문학에서는 현실발전과 당정책의 요구, 인민들의 사상미학적 요구에 맞게 경공업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주제가 적극 탐구되었으며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주제분야가 개척되었다.

그러나 오늘 경공업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이 분야의 작품창작에서 주제를 더욱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탐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주제방향이 옹계 밝혀지고 그에 의거하여 창조사업이 진행되어야 문학이 진정으로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될수 있으며 창작에서 혁신이 일어날수 있다.

현시기 경공업부문의 작품창작에서 취급되어야 할 주제는 우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정한 바로 거기에는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려는 숭고한 뜻이 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확고원칙이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은 지난 시기에도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공업발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온 나라에 경공업공장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웠으며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다.

나라의 정세가 의연히 긴장하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고 힘을 넣어야 할 이때 또다시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정하고 경공업혁명방침을 제시한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우리 문학은 이러한 당의 의도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 형상을 깊이 창조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 작품창작에서 취급해야 할 주제는 또한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숨은 영웅, 숨은 노력가의 생활과 투쟁이다.

오늘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주인다운 기풍을 가지고 원료, 자재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경공업혁명방침관철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의 정상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이 주제를 적극 탐구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형상하는데 응당한 창작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종류의 소비품을 연구해내고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에 대한 주제의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뿐만아니라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 당의 독창적인 경제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크고작은 경공업공장들을 일떠세우던 영웅적 투쟁기풍을 형상화하는 주제탐구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관철을 위한 작품창작에서는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되는 긍정적 전형을 많이 내세워야 할뿐만아니라 경공업부문에 남아있는 부정도 대담하게 내놓는것이 필요하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 길에는 탄탄대로만 있는것이 아니라 애로와 난관이 겹쌓인 진펄길도 있다.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어깨를 들이밀고 마력을 낼 대신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 대하여 가슴아파하지 않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를 쓰지 않으며 앉아서 우는소리만 하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인연이 없는 부정적인 요소를 생활적으로 예리하게 밝혀내야 한다.

작가들이 현실체험과 탐구를 강화하는것은 경공업부문의 참다운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인간들이 지닌 숭고한 정신세계는 격동적인 현실속에서만 찾아낼수 있다.

작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하여야 경공업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숨결을 뜨겁게 느끼고 참다운 경공업부문 일군의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운택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일하는 경공업부문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열일곱사람의 웃음

김 정

을밀대에서 남쪽끝까지를 따라 얼마쯤 내려가면 소로길옆에 그리 크지 않은 공지가 있다. 이 공지가 《로천극장》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한것은 20여년전부터 이다. 작업반원들은 해마다 여기에 모여 9.9절을 즐기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년례행사처럼 되어버리었다.

우리는 9.9절마다 다채로운 예술종목들을 《로천극장》 무대에 올리곤했다. 그만하면 구색도 어지간히 맞고 수준도 상당하다고 볼수 있다. 박아바이의 지팽이재주나 김진도의 입재주같은것은 공장회관무대에서도 쉽사리 볼수 없는 인기종목들이다.

그런데 그 반주를 담당할만한 손풍금수가 없는것이 약점이였다. 전에는 우리 작업반에도 손풍금을 귀신같이 다루는 고수머리총각이 있었다. 총각은 후비를 키우지 못한채 몇달전에 구역사로청위원회로 소환되어갔다. 그후부터 작업반의 예술은 감칠맛을 잃었는데 학교시절에 소고수였다는 젊은 친구를 양성은 하고있지만 아직은 수준이 어려서 이런데까지 손풍금을 메고 나올 형편에 못되었다...

우리는 아쉬운대로 입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엮어갔다.

물론 《로천극장》은 그때에도 구경군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극장》이 길목에 있었으므로 비탈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놀이터에서 잠깐씩 걸음을 지체하곤하였다. 그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진하여 우리의 춤판에 뛰어들었다.

오후 3시경에 이르러 춤은 절정에 달하였다. 명절기분에 취흥까지 겹친 작업반원들은 김진도의 입장단에 맞추어 《종다!》, 《종지!》 소리를 연방 지르며 신바람이 나서 돌아갔다.

춤이 고조에 달했을 때 김진도는 이미 목이 쉬어버리었다. 두명의 익살쟁이가 그를 대신하여 《뽀빠라 뽀빠》, 《뽀빠라 뽀빠》 하면서 트럼페트비슷한 소리를 내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놀이터의 흥취를 그냥 지탱해갈수가 없었다.

나는 새삼스럽게 고수머리손풍금수가 그리워졌다. 그 총각이 있을 때는 작업반의 모든 놀음놀이가, 지금보다 한결 더 격이 있었다. 춤이 멋있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는가. 우리 《로천극장》이 사람들을 끈것은 춤보다도 손풍금덕이였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궁상스럽게도 입장단이다.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작업반이 손풍금도

없이 입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다니. 반주가 없어야 무슨 흥으로 춤을 춘단말인가.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원을 짓고 흘러가는 대렬을 기계적으로 따라갔다. 그러다가 열결에 《아!》하는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구경군들속에서 손풍금을 메고 서있는 사나이 발견하였던것이다.

사나이는 춤에 대한 소감을 터놓는지 결에 서있는 녀자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내 서투른 눈으로도 부부간이라는것을 인차 가늠할 있었다.

(저 사람을 춤판에 끌어들여야지.)

나는 앞뒤를 가릴사이도 없이 무작정 그 사나이의 앞으로 다가갔다.

내앞에는 테가 실하고 도수가 무척 높은 근시경을 낀 지식인풍의 사나이가 서있었다. 손풍금 메고 산놀이를 다니기에는 좀 때늦은 감이 나는 40대말기의 남자였다. 어글어글한 눈의 열기에 비하면 얼굴색이 너무나도 창백하고 턱이 강달랐다. 하지만 이마만은 연백벌처럼 탁 티여 서글서글한 지성미를 채색해주고있었다. 발이 굵은 룡직으로 지은 검색외섬저고리와 백설같은 와이샤쓰는 초목으로 뒤덮인 자연과 수많은 인간속에서 유난히 두드러져보였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전문연주가라면 명절날에까지 손풍금을 메고 다니지는 않을텐데. 저런형의 사람은 절대로 남의 청을 거절하는 법이 없지.)

그사람도 내 눈빛에서 모종의 무엄한 청탁이 있으리라는것을 예감하였는지 땀끈을 잡아 손풍금을 추슬러올리며 약간 경계하는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통성도 하지 않고 무작정 그의 팔을 잡았다.

《동지 초면에 안되었습니다만 부탁드립니다. 그 손풍금으로 반주를 좀 해주지지 않겠습니까?》

《네. 반주요? 우리는 지나가던 나그네들입니다.》

사나이는 병긋하고 웃는것으로서 나의 엉터리없는 흥정을 밀막으려고 하였다.

나는 처음보다 더 다부지게 사나이의 팔을 끌어당기였다.

《동지, 손풍금수가 없는 작업반을 대표하여...정말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저-기 을밀대쪽으로 올라가던 길입니다. 나혼자라면 몰라도 이렇게 셋이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셋이라고 가리킨 일행중에는 열서너살 쯤 때보이는 처녀에도 끼여있었다.

소녀는 온곱지 않은 눈썹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이름모를 사람과의 흥정을 단숨에 끝장내려고 덤벼들었다. 나의 한쪽손은 어느새 손퐁금의 멜끈에 가닿기까지 하였다. 상대방이 우물쭈물하면 완력을 발동해서라도 그를 움짱달짝 할수 없게 만들자는 심산이었다.

《이거 정말 야단인걸.》

그 사람은 난처한듯이 안해와 딸을 돌아보았다. 돌중하나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중립만 지켜도 《천평》은 내쪽으로 기울어질수 있었다.

다행히도 너인의 일가에는 중립을 표시하는 어줍은 미소가 그려졌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를 재촉하는것으로서 나에게 반격을 가하였다.

《아버지 빨리 가자요!》

그 애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버지의 팔을 뒤로 잡아끌었다. 결정권은 바로 그 새침데기에게 있었다. 그 애가 비틀면 내 호소나 청원도 이가 들지 않는 법이다. 나에게는 저런 포래의 아이들을 휘어잡는 묘술이 없었다.

나는 다음수를 생각해내지 못한채 손퐁금의 멜끈만 고집스럽게 틀어잡았다.

그때 김진도가 곁으로 다가와 나에게 귀속말로 통겨주었다.

《작업반장동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시오. 그분이 누군지 알기나 하고 그러니까?》

《누구요?》

《유명한 음악지휘자 박수현선생입니다.》

《아. 그런가. 그 선생이라면야 우리가 오늘 큰복을 잡은셈이지. 여보게, 저 새침데기를 좀 웃겨놓으라구.》

김진도는 나의 속심을 인차 알아차리고 입으로 염소울음소리를 흉내내었다.

새침데기의 곁에 서있던 처녀들이 그 소리를 듣자 호들갑을 떨며 웃었다. 그들은 허리가 부러지게 깔깔대면서도 한결같은 표정으로 처녀애의 기색을 살피었다. 요 귀염둥이야, 너도 웃어주렴. 웃으면서 저 로동자들의 곁으로 가서 아버지를 떠밀어 보내렴 하고 그 눈들은 간절하게 속삭이고있었다. 우리를 둘러싸고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눈빛으로 처녀애를 주시하였다.

새침데기는 눈을 울롱하게 치뜨고-김진도를 쳐다보며 웃을듯말듯 입귀를 떨다가 그런 관용에 스

스로 놀란듯 입술을 강다물고 썰쭉해서 고개를 틀었다. 그따위 염소울음소리같은것으로는 나를 구슬리지 못해요. 어렵도 없어요. 하는 속대사가 그 애의 얼굴에 다 써여있는것 같았다.

어쨌든 그 애가조금 방심한 틈을 타서 나는 박수현이를 출판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작업반원들은 춤동작을 그치고 열렬한 박수갈채로써 그를 맞이하였다. 두 작업반원이 비취빛이 도는 큼직한 유리잔에 맥주를 가득 따라가지고와서 무슨 정중한 레식이라도 치르는듯한 거동으로 박수현에게 권하였다.

《우리 작업반의 열일곱사람이 지휘자선생에게 드리는 인사라구 생각해주시시오.》

나는 그 잔들을 박수현의 량손에 하나씩 쥐여주며 고마움에 겨워 말했다.

그러나 박수현은 길을 내지 못하였다. 우리의 등뒤에서 《아버지!》 하는 딸의 애원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저건 마시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나는 두달전부터 저애한테서 금주령을 받고있지요. 어떤 실없는 사람이 우리 미경이에게 아버지가 술이나 맥주를 마시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라는 귀뜸을 한가봅니다. 내가 이것까지 마시면 오늘 저애의 성화를 막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쉬운대로 이 잔들을 물리겠습니다.》

지휘자는 두잔의 맥주를 각각 한모금씩 마시고 나서 보란듯이 나에게 넘겨주었다. 웅석반이 딸이 아버지를 통제하는것도 그렇지만 반백의 아버지가 딸 앞에서 쨍쨍매는 모습은 어딘가 웃음을 자아내고 부러움을 자아내는 매혹적인데가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나 딸에게서 다 같은 매력을 느끼었다.

마침내 박수현은 손퐁금을 타기 시작했다. 《옹헤야》의 건드러진 선율이 《로천극장》을 흔들었다.

손에 손을 잡고 재빨리 새로운 춤대형을 지은 작업반원들은 손퐁금반주에 맞추어 어깨를 으쓱거리며 돌아갔다. 사람들의 춤동작은 놀랍게도 순간에 변화를 일으키었다. 어설피고 조잡하게 움직이던 춤대렬은 음악이 뿜어주는 마술같은 힘에 이끌려 탄력있고 기운차게 흘러갔다. 그것은 련쇄된 생산 공정속에서 하나의 기계와도 같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우리 작업반의 작업모습을 련상시켰었다.

나는 그렇게도 신묘하고 귀맛이 당기는 손퐁금 소리를 난생 처음 들었다. 그 연주썹씨는 지난날 못 처녀들과 총각들의 애간장을 녹이던 고무머리총각의 연주보다 훨씬 더 능란하고 황홀하였다. 사람의 손끝에서 어찌면 저렇게도 변화무쌍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선물이 튀겨나올수 있을가 하고 혀를 내두르게 될 지경이었다.

정맥이 퍼렇게 두드러져오른 박수현의 손은 손풍금건반우에서 새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날았다. 곡상과 곡조에 따라 무시로 달라지는 그의 자유분방한 몸가짐과 얼굴표정은 음악과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루어 악기소리만으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심원하고 섬세하고 열광적인 축제의 감정을 훌륭하게 부각해주는 것이었다.

중요한것은 그가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열일곱명의 로동자들을 위해 온 심혼을 다바쳐 손풍금을 탄다는 것이었다. 그는 수천명의 관중들앞에 나선 독주가처럼 진지하고 열정적인 연주를 했다. 때로는 오른손으로 박자를 치면서 왼손하나만으로 선율을 그어가기도 하였고 때로는 고개를 뒤로 제끼고 발을 탕탕 구르면서 춤군들의 흥을 돋구어주기도 하였다. 그 무슨 체면때문에 감정을 억제한다던가 점잔을 빼는것과 같은 인상은 조금도 없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인망높은 예술단의 지휘자라고 믿기 어려울만큼 박수현은 우리의 자연발생적인 오락에 자기를 재빨리 순응시켰었다.

그의 얼굴은 미구에 땀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양복저고리를 벗고 넥타이를 풀었으며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면서 아까보다 더 맹렬하게 건반을 두드려댔다.》

손풍금소리는 수십명의 구경군들을 춤판으로 불러 들이었다. 우리는 박수현의 안해까지도 춤대렬에 끌어들이었다. 그런데 안타까운것은 명절놀이가 대만원을 이루고 《로천극장》에 웃음소리가 높아갈수록 내 마음이 점점 더 웅색해지고 불안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산비탈에 오도카니앉아 아버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는 미경이의 모습이 자꾸만 내 눈을 끌어당기기때문이었다. 만사를 잊고 아무리 춤에 도취해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허사였다.

나는 부질없는 짓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남비에 송편과 강정을 무드기 담아가지고 미경이한테로 다가갔다. 명절음식이라도 권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았다.

《이건 우리 작업반의 특식이란다. 세포비서아바이의 부인이 만들었는데 별맛이야. 한번 좀 먹어 보렴.》

나는 음식남비를 내려놓고 송편 한개를 종이에 싸서 처녀애앞에 내밀었다.

미경이는 그런 음식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를 향해 눈만 흘기었다. 알박한 턱밑에서 울대뼈가 성급하게 오르내리었다. 그 애는 평생 먹거나 말하지 않을것 같은 단호한 표정으로 입술을 꼭 감쳐물고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그가 《포문》을 열지 않는것을 다행으로 여기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것을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을 느끼었다. 아뿔싸 야단났군 이걸 어쩔담.

《미경아, 너 우는구나.》

나는 어떻게 그 애를 달랬으면 좋을지 몰라 두팔을 옆구리에 올리고 망두석처럼 서있었다.

미경이는 내 눈앞에서 눈물을 보이는것이 몇적기라도 한듯 손등으로 슬그머니 눈물을 훔치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나를 쏘아보았다.

《아저씨 뭐예요? 남의 아버지를 가로채면서...》

입속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웅얼거리는 항변이었으나 나는 그 말뜻을 인차 가려들을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항변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수 없었다 한 가정의 명절놀이를 류산시킨 장본인이 나인데 도대체 무슨 변명을 할수 있단 말인가.

《미경동무, 비판을 많이 해주십시오. 어떤 비판이든지 달게 접수하겠습니다.》

나는 두팔을 크게 벌렸다가 안으로 우그러뜨려 무엇인가 죄다 그러모으는것 같은 시늉을 해보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미경이한테는 그런 너스레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눈물이 가랑가랑한 눈으로 《로천극장》 저편에 있는 소나무우듬지를 바라보다가 그 웅얼거리는듯한 말씨로 나를 비난하였다.

《아저씨가 우리 계획을 다 망그려놓았어요. 우린 10년만에 아버지하구 같이 모란봉으로 올라왔는데.》

나는 10년이라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같은 로동자들도 한해에 한두차례씩 모란봉에 올라와 산놀이를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생활을 정서적으로 꾸려나갈수 있는 예술가가 10년만에 모란봉으로 올라오다니.

《그러면 그 10년동안 아버지는 명절날마다 무슨 일을 하셨니?》

나는 미경이의 곁에 앉아 정색해서 물었다.

《아버진 명절날엔 극장으로 나가요. 휴식은 다른 날에 하고 명절날에는 공연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극장은 명절에 쉬면 안되지.》

나는 명절날이면 불을 환히 켜놓고 관객들을 부르던 수도의 극장무대들을 새삼스럽게 그려보았다. 유원지와 대통로들로 음식구역을 든 시민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고있을 때에도 거기서는 관현악이 울리군하였다.

《그런데 미경아, 오늘은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모란봉에 오실 결심을 하였니? 극장에 나가시지 않구...》

나는 미경이가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고 나에게 화풀이나마 하게 된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물었다.

미경이는 미간을 좁히고 잠시 무엇인가를 상기하는듯하더니 좀 풀이 죽은 어조로 말했다.

《아버진 한달전부터 몸이 편치 않아서 극장에 나가지 못해요. 몇달동안 쉬라는 진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지휘봉을 넘겼다니봐요. 아버지가 앓으니 우리는 이번 9.9절에도 집에서 놀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진 오늘아침 우리더러 갑자기 모란봉에 가서 놀자구 하지 않겠어요.

난 막 기뻐서 춤을 출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못난 아저씨가 그만 너들 방해했던 말이지.》

나는 가슴이 뻘근해오는 자책과 런던의 정을 느끼며 사람들의 담벽을 꿰지르고 출판으로 들어갔다. 건반우에서 헤엄치는 박수현의 손우에 손을 덧놓으며 귀속말로 말했다.

《지휘가선생님, 10년만에 가족들과 같이 산놀이를 오셨다는데 이거 정말 미안하게 뵈었습니다.》

《미안하게 있습니까. 내가 재간을 배웠다가 이런 날 쓰지 았구 또 언제 써보겠습니까. 우리 미경이가 가정비밀을 제워놓은것 같은데 그 철부지의 말을 너무 중시하지 마십시오.》

박수현이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귀속말로 속삭였다.

《따님의 얼굴을 보니 오금이 죄어드는것 같아서 그러니까.》

《원 참 작업반장동무두, 그렇게 배심이 든든하지 못하면 애당초 나를 잡아두지 말것이지 출판에는 왜 끌어들었습니까. 이제는 등을 떠밀면서 쫓아버려두 가지 않겠습니까.》

《벌써 정이 들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미경이는 내가 주물러놓을테니 더는 신경을 쓰지 마시오. 그 애가 인상이 그렇게 새초롬해두 벽창호는 아니랍니다.》

박수현은 손풍금을 멘채 나를 앞세우고 딸이 앉아있는 산비탈로 걸어갔다.

《미경아, 너 성났니?》

그는 비탈의 경사면에 한쪽다리를 접고 그것을 지지대삼아 손풍금을 올려놓은다음 그우에 팔꿈을 얹으면서 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미경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손에 들고있던 풀대를 잘근잘근 씹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끼리 가서 놀가?》

《아버지 마음대로 하지 뭐.》

미경이는 이런 대답을 하고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전의 철벽같은 태도에 비하면 대단한 양보였다.

박수현은 그 무슨 표창이라도 주듯 오른손 장지가락으로 딸의 이마를 가볍게 튕겨주고나서 흐뭇이 웃었다.

《암 그래야지. 미경이가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도 가벼워지는구나. 우리는 셋이지만 저 작업반은 열일곱이나 된다는걸 알아야지. 셋보다 열일곱이 웃으면 세상이 더 환해지지 않겠니.》

그는 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로천극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먼발치에서 부녀간의 《담관》을 지켜보고있던 작업반원들이 무슨 개가라도 울리듯 일제히 《선생님!》 하고 환성을 지르며 그를 에워쌌다.

(그래 옳은 말이다. 그건 우리 생활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금옥같은 철학이다. 이런 철학이 생활을 지배하고있기때문에 우리 세상은 그렇게도 밝은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박수현이 던지고간 말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참동안 미경이의 곁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우리는 다음해에도 모란봉에서 9.9절을 쇠였다.

정오가 조금 지나자 《로천극장》은 지난해처럼 구경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리는 신작으로 《휘저쌍경기》라는 희한한 종목을 무대에 내놓았는데 그것이 예상이외로 폭풍같은 환영을 받았다.

남자역을 담당한 김진도가 녀자 휘거수로 분장한 신입공총각을 머리우에 쳐들고 한팔로 빙빙 돌리는 장면에 가서는 모든 구경군들이 발을 구르고 눈물을 흘리며 폭소를 연발하였다.

계획에 예견되지 않았던 즉흥적인 종목들도 어느 것이나 다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난해와 같은 행운은 차례지지 않았다. 박수현이 우리와 헤어지면서 새해에도 손풍금을 메고 《로천극장》으로 찾아오겠노라고 언약하였지만 그 언약을 그대로 믿을수는 없었다. 우리가 오라고 말하니 그도 인사삼아 또 오겠다고 약속했을수도 있는것이다. 설사 그가 올 마음이 간절하다하더라도 이전날처럼 지휘봉을 잡고 명절공연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며 극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경이가 다시 아버지를 놓아주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새 손풍금수를 키워낸다고 하면서 세포비서아바이가 음악과는 별로 인연이 없는 권투구락부출신의 신입공총각을 예술학교에 추천하였지만 그것은 겨우 두달전의 일이다.

우리는 서거존대로 김진도의 입장고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온 놀이터가 《돈돌라리》 춤으로 흥성거릴 때 우리곁에서 그것을 반주해주는 손풍금소리가 꿈같이 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소리나는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지휘자선생님 오셨다!》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박수현선생이 오셨다!》

작업반원들도 덩달아서 환성을 올리였다. 입장단이 중단되고 춤대렬이 형클어졌다. 모두들 지휘자 박수현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었다.

《저것보지. 지휘자가 아니라 지휘자 2세가 왔구만.》

김진도가 내 팔굽을 툭 건드리며 《로천극장》의 한쪽모서리를 손짓해보이였다.

우리는 모두 자기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모서리에 미경이가 손풍금을 메고 서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달음에 뛰어가서 그를 얼싸 안았다.

《미경아, 고맙다. 네가 이제 웬일이냐!》

미경이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방실방실 웃기만 하였다. 1년전 이날 바로 저 산비탈에 앉아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아저씨 댁예요, 남의 아버지를 가로채면서》 하고 부르짖던 새침데기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몰라보게 변모된 박미경이었다.

나는 초목냄새에 절은 그 애의 머리우에 손을 얹은채 그냥 사위를 두리번거리었다. 딸이 왔으면 아버지가 동행하지 않았을리 없겠는데 어디에서도 박수현의 모습을 볼수 없는것이 이상하였다.

《아버진 어디 가시고 너 혼자 이렇게 왔니?》

나는 한해전보다 눈에 띄이게 숙성한 미경이의 의젓한 모습을 굽어보며 정답게 물었다.

그 애의 얼굴에서는 방실거리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미경이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듯 하더니 폭꺼진 목소리로 《아버진 세상을 떠났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순간 《로천극장》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이였다. (박수현선생이 돌아가시다니!)

큼직한 쇠집게같은것이 내 가슴을 아프게 잡아 비틀었다. 나는 오열보다도 더 강렬한 그 무엇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것 같은 동통을 느끼며 미경이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래 언제 돌아가셨니?》

《금년 3월에...》

《믿어지지 않는구나. 진종일 피곤을 모르고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손풍금을 타주시던분이...》

《여기 오셨을 때 아버지 벌써 자기병이 불치병이라는걸 알았구나봐요. 나하구 어머니 물렸어요. 알았으면 여기로 오자고 떼를 쓰지 않지요 뭐. 아버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고는 마지막으로 내 소원을 풀어주시거예요.》

우리는 모두 숙연한 생각에 잠기였다. 그러고보면 그날의 명절놀이는 박수현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술활동으로 된셈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지휘자의 예술생활에 마침 부호를 찍어준 최후의 관중으로 된것이다.

《그런데 미경이, 넌 어떻게 오늘 여기로 올 생각을 했니?》

나는 머리에서 때늦게 대패밥모자를 벗어쥐고 물기에 젖은 미경이의 눈을 응시하였다.

미경이는 손등으로 팽죽눈언저리를 엇갈아 찍어내고나서 고개를 가웃하고 허공을 쳐다보았다.

《어느날 아버지 내 손을 잡고 <금년 9.9절에는 모란봉에 가지 못하겠구나, 꼭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하신지 않겠어요. 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음에도 그 말씀을 자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9절이 오면 아버지대신 아저씨들한테로 찾아가자고 결심했어요. 아저씨네가 막 보구왔어요.》

미경이는 말을 끊고나서 초점이 또렷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까처럼 미소가 다시금 방긋 피어올랐다.

꽃이파리처럼 옛되고 청순하면서도 그 어떤 류다른 성숙감이 엿보이는 정결한 웃음이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그를 몰라보게 변모시켰다.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도 놀라운 도약을 이룩하였다. 아버지의 령혼을 밑거름으로 한해사이에 어른처럼 성장한 소녀애가 열일곱사람의 명절놀이를 위해 지금 우리앞에 서있는것이다.

이 어린것이 어찌면 이렇게도 속이 깊어졌을가, 사람들이 어찌면 이다지도 아름다울수가 있을가.

나는 이처럼 훌륭한 인간들을 키워낸 거룩한 조국에 절을 드리는 심정으로 푸른 하늘을 하염없이 우러러보았다.

《아저씨 춤을 추자요!》

미경이의 손풍금소리와 함께 《로천극장》에서는 원무가 다시 시작되였다.

누군가 그의 머리에 향기그윽한 꽃잎을 한줌 뿌려주었다. 우리 《로천극장》에 박수현이 나타나던 9.9절기념으로 안겨주려던 꽃잎들이였다.

《전대협》 100 만 학도가 축전장을 행진해간다

오영재

눈물이 앞을 가리워
그대를 볼수 없구나
울컥 목이 메여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구나
축전의 마당에 나타난
남조선 너대학생

《전대협》의 기발아래
100 만 학도가 행진해야 할
이 넓은 마당을
그대 혼자 걷고있구나

북녘의 학우들을 만나보자고
통일의 길을 기어이 열자고
뜨거운 아스팔트길우에 누워
등을 밀며 한치 또 한치
그 길을 열어온 열혈학도들이

쓰러지고
피뿌리며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어깨로 받들고
가슴으로 떠올려
그대 하나 분계선을 넘겼느냐

아, 만나면
뜨겁게 얼싸안고 볼을 비빌
그리운 그 얼굴들이
그대의 모습이 되어
우리앞에 나타났으니
그대의 모습이야말로

분단 반세기에
조선이 겪고있는 이 불행으로
다시금 우리 가슴 허비는
민족의 아픔이구나

입술을 깨무노라
저주를 삼키노라
민족의 경사이고 자랑인 이날에
내 나라 남녘 4 천만중에
찾아온 사람이
스물한살 애젊은 그대 하나
그것도 지구의 절반 남의 땅을 돌아
사선을 헤쳐온 그대 하나란 말인가

눈물속에 반갑다, 처녀야
그대는 원썩들이 그 무엇으로도 가를수 없는
민족의 피줄을 쥐고 온
남녘의 마음
통일념원의 꽃

걸으라, 대표여
박종철, 리철규를 살해한 그 총검
이 시각도 그대의 학우들을 막아선
파쑸의 총검을 짓밟으며
걸으라
여기 북녘의 마음처럼 깔린
축전의 아름다운 꽃길우로

우리는 그대의 모습에서
《전대협》의 기발을 앞세우고
통일대행진의 발구름 높이
축전장을 울리는
정의롭고 용맹한 강철의 대오
백만학도의 대오를 보고있노라

한겨레 외 1편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전대협》대표를 환영하는 거리에서-

정성환

《전대협》대표가 왔다는 소식이
해살처럼 삽시에 짹- 퍼지자
시내는 벌컥 뒤집혔다

달리던 전차도 빠스도
문이 뻐개지게 사람들을 쏟아놓고
땅속에서 지하철동차를 타려던 사람들도
번개처럼 돌아서 밀려올라왔다

초고층 살림집에서
한가로이 어항속을 들여다보던 할머니도
대표를 보기도전에
눈물부터 훔치며 승강기로 내리고
길이 바쁜 사람들도 책을 보던 사람들도
모든것을 잊고
환영의 물결속에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모든것을 잊었다
인사말도
하고싶은 말도
그저 목이 짹 메어
-어디 보자 처녀야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어른이든 아이든 그 누구든
이번만은 이번만은
남을 생각할 새가 없었다

통일을 부르며 온몸에 불을 달고

통일을 부르며 할복 투신한
렬사들의 넋도 함께 평양으로 가자고
피흘리며 한치한치 총칼숲을 헤치던
통일의 선봉대 100 만 학도들

그들의 높뛰는 심장의 고동을 안고
남녘 민중의 불타는 그 념원을 안고
그들의 대표가 기어이 온것이다

뜨거운 손길
눈물의 포옹
오가는것은 손뿐이 아니다
심장과 심장에 굽이치는것은
혈육의 정이다 형제의 사랑이다

갑자기 노한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만 손잡아보면 다요?
그래도 사람들은 욕심스럽게
그를 붙잡고 놓을줄 모른다
-장하다 남녘의 딸아
얼마나 험한 길 넘어왔느냐
다시 한번 더 보자 손잡아보자

리성을 잃지 않던 그 사람들이
갈라졌던 혈육앞에 너무도 기뻐
리성을 잃은것인가
아니, 꿈에도 꿈에도 소원인
통일의 그날을 안아본것이다
통일의 그날을 안아본것이다

꽃을 받아다오

꽃을 받아다오
사람이 바다를 이루고
꽃이 산을 이루어도
이 꽃

이 꽃을 더 받아다오
그대가 왔는데
목숨걸고 그대가 축전장에 왔는데

기다려 기다려
 때일찍 애써 피운 이 꽃들을
 누구에게 주자고 남겨둘것이나
 이 꽃은 우리의 꽃, 그대의 꽃
 복녜이 남녜을 기다려 피운 꽃

그대 손에 제 꽃이 가닿지 못하면
 한생 가슴아픈 후회로 남을가봐
 어깨우에 어깨우에
 아름다운 꽃송이들 물결쳐오누나

꽃속에 묻혀보아라
 총구를 디디고
 칼끝을 밟으며
 험한 길 달려온 걸음아

꽃속에 묻혀보아라
 겨레를 찾아 겨레를 찾아

가사

강반은 즐거운 웃음소리
 물결은 정다운 노래소리
 반짝이는 별무리 대동강에 내리여
 희망을 속삭이며 잠들줄 모르네
 아 내 사랑 평양의 밤이여
 내 너를 떠나 그 어디 가라

바람은 부는지 자는지
 꽃배는 가는지 섰는지
 실실이 휘늘어진 사랑의 실버들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라도
 기어이 오고야만 심장아

꽃속에 묻혀서 꽃속에 묻혀서
 통일된 조국의 봄날을 건듯
 자욱자욱 꽃잎을 밟고가거라
 꽃속에 묻혀서 꽃속에 묻혀서
 그대 그토록 와보고싶던
 복녜을 마음껏 다 안아보거라

설설 끓는 통일의 열망을 담아
 끝없이 파도쳐오는 꽃송이 꽃송이들...

오, 통일의 불새
 싸우는 남녜의 영웅아
 그대와 함께 오지 못한,
 피흘리는 학우들의 심장에도
 이 꽃
 이 꽃향기를 풍기여다오...

아, 평양의 밤이여

리광선

기쁨에 설레여 고요를 모르네
 아 내 사랑 평양의 밤이여
 타향만리 간대도 네 품에 있으리

버들숲은 그 사랑 노래부르고
 물결은 그 은정 담았네
 피어난 꽃속에 넘치는 꿀향기
 물속의 조약돌도 이끼를 모르네
 아 내 사랑 평양의 밤이여
 너는 나에게 희망을 주어라

세월과 더불어

한웅빈

...그것은 꽃잎이 해살모양으로 붙은 자그마한 한송이 꽃이었다. 꽃송이는 류달리 빨갭게 보였다. 마치 화강석계단에 떨어진 한점의 불꽃처럼 눈을 찔렀다. 앞서 올라간 어느 사람의 꽃다발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나는 화강석계단을 올라가고있었다. 그 130여개의 계단우에는 인민군렬사탑이 침묵속에 솟아있고 계단밑에서는 사람들과 무궤도전차, 각종 승용차들이 끝없는 지속음속에서 움직이고있다. 그 런속부절의 소음으로 하여 침묵은 더 무겁고 준엄한것으로 안겨온다.

충을 틀어친 손, 앞을 향한 시선, 조여맨 군화, ... 모든것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깨에 걸친 우장도 돌격전에서 날리던 그대로 침묵과 함께 굳어졌다. 그 침묵속에는 근 40년의 세월이 루적되어있다...

《아이, 이엘 좀 봐요. 정말 깜찍하네!》

내뒤에서 올라오던 처녀가 화강석계단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처녀애를 보고 감탄했다.

처녀애는 계단을 기어오르고있었다. 두손으로 계단을 짚고는 짧은 다리를 한쪽씩 끌어올려 한계단, 또 한계단 《점령》하고있었다. 무엇이 그 애에게 이 걸음을 내짚게 했는지... 렬사탑우의 인민군전사가 그 애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상상일것이다. 그 애의 부모들은 계단아래에서 무슨 이야기엔지 열중해있었다.

처녀의 일행은 한가족이었다. 가운데서는 가족의 《조상》임에 분명한 늙은 녀인이 올라오고있었다. 그리고 무거운 걸음걸이... 술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있었으나 녀인은 무척 외로와보였다. 그 가족에는 가장이 없었다. 혹시 전쟁때 전사한것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던가. 39년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울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선으로 나갔었다. 전쟁의 3년간 매일같이 떠나갔었다. 어제 바래주러 나갔던 사람이 오늘에는 전선으로 떠나갔고 래일에는 오늘 바래주던 사람들이 전선으로 떠나갔다. 나도 그중의 한사람이였었다. ...떠나는 사람도 바래주는 사람도 누구나 모두 승리의 날에 그 역두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다. 약속의 하루 하루, 기다림의 하루하루... 드디어 승리의 날이 왔다. 허나 상봉의 약속은 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날에는 아직 누가 돌아올지 누가 돌아오지 못할지도 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무

명의 산야와 알려지지 않은 강기슭에 묻혔다. 가족들에게 보낸 통지서에도 전사했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어디에 묻혔는지는 씌여있지 않았다. 그들을 찾아볼수 있는곳은 이곳밖에 없었다. 해방산우의 인민군 렬사탑... 여기가 그들의 주소였다...

하여 나도 이곳을 찾아왔다. 전우들을 찾아 여기 《침묵의 탑》으로 왔다. 화강석계단의 무거운 색조, 군화자국이 찍힌듯 터실터실한 돌계단...

측백나무와 소나무들이 바람에 설령거린다. 바늘처럼 일어난 잎사귀들, 그 감촉은 손끝에보다 심장에 느껴진다.

바늘처럼 찌르는 푸른 잎의 감각... 사무쳐오는 회상... 그곳에도 이 나무가 있었던가, 머나먼 옛시절의 그 기슭에도...

《입대전에 무슨 일을 했소? 학교를 다녔다구? 저런! 여보게들! 이 친구 학생이라누만, 학생!》

《학생도 싸울수 있지 뭘, 어떤 전쟁이라구?》

《누가 아니라나? 이 친구로 해서 우리 분대의 <계급구성>이 완전해졌단 말이야. 로동자, 농민, 사무원, 지식인, 학생!》

《오-참 그렇군! 그런 의미에서 자-!》

들꽃들과 푸른 소나무가지로 엮여졌던 커다란 꽃다발. 그것은 꽃다발이라기보다 작은 나무단에 가까웠다. 질게 풍겨오던 송진냄새... 뽕죽한 과란 잎사귀들이 바늘처럼 얼굴을 찔렀었다...

1950년 9월 무더위가 기울어져가던 어느 저녁이였었다. 언덕밑으로 흐르는 락동강 물결에는 석양이 붉은 안개처럼 덮여있었다. 그 강물은 왜 그리도 붉게 보였던지... 마치 뜨거운 쇠물이 이글거리며 느릿느릿 흘러가는듯했었다...

나는 분대의 마지막 전사였다. 나이와 입대년월일 그리고 《계급구성》에서도... 구대원들은 모두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였다. 제관공, 선반공이 있는가 하면 농민이 있었고 공장회계원이 있는가 하면 교원도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것은 나 하나뿐이였다.

《학생이야 직업이 아니지.》

하고 결론처럼 말한 분대장은 탄부출신이였다.

《분대장동무는 열두살 때 벌써 탄광에서 노미도리로 일을 시작했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18년간을 탄을 캐소. 지금도 땀을 흘리면 탄가루가 섞여나온다고 하오.》

하고 교원출신의 상등병이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나를 담당한 구대원이었다.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제격이니까.》 하고 분대장이 말했던것이다. 그는 나에게 말할 때면 교수안을 펴놓고 강의라도 하듯이 토 하나 틀리지 않게 말하곤했다. 《학생》 앞에 서면 자신이 교원으로 느껴지는것인지. 그는 문법교원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만나기전에 벌써 분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다. 특무장은 나를 분대로 데리고 가며 이렇게 말했다.

《동문 운수가 좋아. 그 분대는 전쟁첫날부터 오늘까지 손실을 모르는 분대라네. 척후, 습격, 정찰... 총알이 집중되는곳만 다 찾아다녔는데도 건재해있거든. 그 분대한테는 총알이 피한다는 말도 있지. 그러니 동무한테도 총알이 피해갈게야.》

분대장은 맨손으로 적 여섯놈을 포로한적까지 있다는 무서움과 당황함을 모르는 사람이였다. 보통 체격이였으나 강철같은 힘을 가지고있었고 지칠줄을 몰랐다. 대담성과 용감성, 침착성은 그의 천성인 듯했다.

제관공 출신의 상등병은 수류탄 투척에서 명수였다. 언젠가는 적 땅크를 사과알만한 반보병수류탄으로 까부신적도 있다고 했다.

《수류탄을 집어던진것이 면바로 말이야. 어디로 날아들어갔을것 같나?》

선반공출신 전사의 말에 나는 땅크에 대한 지식을 서둘러 더듬었다.

《류크안으로 들어갔나요?》

《천만에! 땅크 포신안으로 날아들어갔단 말이야. 쑈-하고! 그러니 그 땅크야 갈데 있나.》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선반공》은 화를 냈다.

《왜? 거짓말 갈아?》

그런데 《교원》은 그의 엉터리없는 말에 도리어 머리를 끄덕거렸다.

《수류탄 투척에선 발사관보다도 나을거요!》

《선반공》은 더 신이 났다.

《저 팔만 보라구. 얼마나 긴가.》

아닌게 아니라 《제관공》의 팔은 류달리 길었다. 타고난 수류탄 투척수라고 할수 있었다.

《내 팔? 이진 수류탄을 자꾸 던져서 이렇게 길어진거야.》

하고 《제관공》은 팔이 길어진 《비밀》을 나에게 수군수군 알려주었다.

《?》

어데까지가 꾸며낸것이고 어데부터가 정말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지만 할수밖에 없었다.

《또 허튼 소릴! 키가 크니까 팔도 긴거지!》 하고

말하는 회계원출신의 전사는 총알에 눈이 달렸다고 하는 명사수였다. 그는 정확한것을 좋아했고련발사격을 《비경제적》이라고 인정했다.

《우리 회계원들이 1전 한푼 틀리는것때문에 몇 밤씩 새우는지 아나? 그런데 이 총알하나 값은 1전 2전으로 계산되는게 아니거든. 거기에 수송비까지 하면...》

《교원》의 《강의》에 의하면 그의 탄띠에 총알 다섯발이 있으면 적 다섯놈이 쓰러지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이였다!...

그들은 비상한 위훈으로 가득찬 영웅들이였다. 기상천외한 전투담을 들을 때면 그들모두가 전설의 주인공들처럼 느껴졌다.그들의 모든것이 나에게는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선반공》이 아껴오던 비누를 한장 잃어먹고 (거품이 기막히게 잘 이는 비누라고 했다) 온종일 아쉬워하는것을 보았을 때는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때 《교원》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저건 선반공특질의 반영이요. 선반공이란 늘쌍 기름투성이가 되기 마련이니 비누가 중한줄을 안단 말이요.》

아마 학생에게 모든것을 설명해주어야 마음놓는 교원의 기질때문에 말했을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거기에도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의미가 있는듯만 했었다.

농민출신의 전사는 늘쌍 발에 꿰여진 발싸개를 하고있었으나 배낭에는 차곡차곡 모아둔 새 발싸개가 한몽테기나 있었다. 분대에서는 그를 《피복창고장》이라고 불렀다. 그는 여가시간이면 배낭을 뒤적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때마다 분대원들은 서로 눈을 껌쩍거리며 너그러운 미소를 짓곤했다.

《피복창고장이 창고실사를 하누만!》

그것조차 나에게는 그 어떤 비상한것으로 보였다.

그때 나는 열일곱살이였다. 나에게서 이야기거리란 단 하나, 열여덟살이라고 속이고 입대했다는것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기껏해야 나보다 두세살 더 많은 20전후의 사람들이였다. 제일 나이많은 분대장도 겨우 서른살이였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모두가 아득한 세대차이를 가진 년장자들로만 느껴졌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의 머리에는 이미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생각할 때면 자신을 여전히 열일곱살의 신입병사로 느낀다. 그들을 에워싸고있던 신비의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오히려 날을 따라 더 찬란해지는것 같다.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 풍부해져간다.... 아마 전설이란 이렇게 만들어질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전설들이 진실이라고 나는 믿어마지 않는다.
지어 단군신화까지도...

녀인은 전사의 발밑 대리석제단에 꽃다발을 내려
놓고있었다. 녀인의 머리는 하얗게 세었다. 깊이 숙
인 그의 머리우에 서있는 전사는 옆에 서있는 그의
아들보다도 더 젊었다. 허나 백발이 성성한 머리는
더 깊이 수그러지지만 한다...

추억속에서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나의 전우
들도 나의 추억속에서는 여전히 젊어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추억속에서는 그들을 끝없는 경이의
눈으로 쳐다보던 열일곱살의 어린 전사로 남아있다.
오 바라건대 한번이라도, 부디 단 한번만이라도 돌
아갈수 있었으면, 그 시절의 그 기슭으로!...

《여기 까치들은 맹랑하구만. 덮어놓고 깍깍거린
다니까!》

《분대장동무네 고향까진 뭐 다른 소릴 내는가
요?》

《회계원》의 말에 분대장은 화를 냈다.

《깍깍거리진 해두 저렇게 맹랑 깍깍거리진 않아.
저건 편지도 오지 않는데 노상 깍깍대거든!》

《제관공》이 씨물씨물 웃었다.

《분대장동문 또 딸애생각이 나는 모양이구려.》

나는 분대장이 더 화를 낼줄로 알았다.

그런데 분대장은 의외에도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고백했다.

《보고싶어 죽겠구만!》

분대장의 눈에는 한가닥 애수조차 어려있었다...

그것은 락동강대안에서 교두보를 차지하고 주력
부대의 도착을 기다리던 때의 일이었다. 그곳에는
황철나무들이 많았다. 나무우에서는 총포성에 피해
갔던 까치들이 도로 날아와 소란스레 깍깍거리고있
었다.

《동우리에 새끼들이 있는게지?》

분대장의 말에 《회계원》이 긍정했다.

《그럴수 있지요.》

그러나 《피복창고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웬걸! 까치들은 이맘때엔 새끼를 죄다 날려보내
는데?》

그의 말이 옳았을수 있었다. 농촌 사람이었기때
문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찬동을 얻지 못했다.

《새끼가 없으면 큰것들이 왜 저렇게 소란을 피우
겠나?》

《선반공》의 말을 분대장이 지지했다.

《까치들이 무슨 군대라구 구령에 따라 일시에 새
끼를 까구 날려보내구 하겠나?》

《허 이거 참.》

《피복창고장》은 《교원》에게 지원을 청했다.

《<선생님>이 좀 대답해주구려. 누가 옳은가?》

《교원》은 까치들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대답했
다.

《까치라는건... <명사>요.》

웃음이 터졌다. 문법교원다운 대답이었다...

나는 아직 까치들이 왜 황철나무에 즐겨 집을 짓
는지 모른다. 하여튼 그 락동강대안의 황철나무숲
에는 커다란 축구공같은 동우리들이 여기저기 열매
처럼 무수히 달려있었고 까치들이 잠시도 안정 못
하고 소란을 피우고있었다.

주력부대가 도착하여 공격준비구령이 내려올 때
분대원들은 한마디씩 중얼거렸다.

《다행이로군.》

《까치동네가 무사하게 됐어!》

공격이 시작되었다. 총탄의 휘파람소리와 폭음,
화광, 포연, 파편과 흙의 소나기... 모든 공간은 총
탄과 파편으로 빼곡 찬듯했고 해빛조차 스며들 틈
이 없을듯했다. 그때 얼핏 떠올랐던 력사책의 한구
절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적들의 화살이 하늘을 덮어 해가 보이지 않소이
다.》

《그러니 우리는 그늘에서 싸우게 됐군!》

다음 계선을 차지했을 때 나는 모자채양이 뭉쳐
떨어져나간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쳤다. 머리가 어떻
게 무사했는지 신기할정도였다. 진짜 특무장의 말
대로 운수가 좋은것 같았다.

나는 모자를 벗어 획 집어던졌다. 그런데 분대장
이 《모자를 다시 쓰오!》

하고 딱딱스레 말했다.

《군모없는 병사를 본적이 있소?》

그러나 모자는 너무도 형편없었다.

그때 늘쌍 《창고실사》하는 버릇이 있는 《창고
장》이 배낭을 열심히 뒤적거리더니 모자를 하나
꺼냈다. 그런데 모자에는 총알구멍이 세개나 뚫려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게야?》

《창고장》은 눈이 둥그래지며 배낭을 쳐들었다.
배낭은 총탄에 채구멍처럼 되어있었다. 그가 아끼
던 말싸개몽테기도 역시 그 모양이었다.

분대장은 모자를 뒤적거리더니 내 머리에 폭 씌
워주었다.

《괜찮아. 남해바다가 지척이니까!》

그리하여 나는 총알구멍이 세개나 뚫린 모자를
쓰게 되었다. 모자만은 구대원이 된 셈이었다...

적들의 포사격이 개시되었다. 돌쪼각과 나무뿌리,
파편이 뿜뿜 날아다녔다. 나는 전호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땅이 진동할 때면 몸이 허공으로 뿌려올라
가는듯했고 진동이 멎으면 끝없는 나락속으로 떨어
져내려가는듯했다. 전호바닥으로 더 깊이 깊이 파
고 들어가고싶었다. 가장 깊은 땅속은 조용할것이
아닌가...

《일어섯!》

돌연 귀가에서 분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머리를 들었다. 포사격은 이미 멎었고 적들
의 반돌격서열이 밀려오고있었다.

나는 포사격으로 인한 공포로부터 또 다른 공포
에로 옮겨갔다. 새까맣게 밀려오는 적들은 우리모

두가 가지고있는 총탄보다도 더 많을것 같았다. 적들의 엄호사격이 전호가를 누벼댔다.

그런데 《제관공》과 《회계원》은 엉터리 없는 것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있었다.

《포탄 하나 값은 얼마가?》

《뭘라구요-?》

《포탄 하나값이 얼마가 말이야-?》

《뭘-라구-?》

《젠장! 귀가 먹은게 아니야?》

《제관공》은 《회계원》의 귀를 들여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귀구멍이 아예 없어졌구만!》

《회계원》의 귀에는 흙이 가득차있었다. 《제관공》은 그의 귀바퀴를 잡아당기며 성냥가치를 꺼내 들었다. 그때 적탄이 《회계원》의 머리에서 모자를 벗겨갔다. 그런데 《회계원》은 그것보다 《제관공》이 내는 성냥가치에 더 놀래여 화닥닥 물러났다.

《정신있소? 귀구멍을 난로 연통으로 만들셈이요?》

《제관공》이 꺼내든것은 딱성냥이었던것이다.

어쩌면 적들이 물려드는 정황에서 그런데에까지 눈이 미칠수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싶었다. 《창고장》이 배낭을 걱정스레 전호안턱에 깊숙이 밀어넣는것을 보았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저 동무가 왜 <피복창고장>이 됐는지 아오?》

《교원》은 한강의할 필요성을 느낀듯했다. 《회계원》은 얼굴을 찡그리고 조심스레 귀구멍을 후벼내고있었다.

《동문 도시사람이어서 잘 리해되지 않을거요. 저 동문 심심산골에서 일년사철 배움밖엔 모르고 살았고 해방후에야 무명옷이라는걸 입어보았다고 하오. 그러니 군대에서 발에 감으라고 주는 천이 왜 아깝지 않겠소? 내주는걸 배낭에 자주 넣어두기만 하다나니 <피복창고장>이 됐소.》

나는 이야기내용보다 그 여유작작함과 태연함에 더 정신이 쏠려있었다. 나도 과연 이렇게 될수 있을까...

그때 《전투준비-!》하는 구령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에게 묻고야 말았을것이다.

《상등병동진 무섭지 않아요?》 하고...

적들이 쫓겨가고 잠시 정적이 깃들었을 때 나는 분대장에게 물었다.

《분대장동진 어떻게 맨손으로 적을 여섯놈이나 잡았어요?》

《엉터리없는 소릴! 맨손이라니? 총도 메고있었고 수류탄도 주머니에 가지고있었는데...》

《그래도 맨손으로 잡았다던데요?》

나는 기어이 용감성의 《비결》을 알고싶었다. 그러나 분대장의 대답은 용감성을 더 신비한것으로 만들었다.

《총을 벗길 사이도 수류탄을 꺼낼 사이도 없었으니 그저 그렇게 됐지. 한놈이라도 눈알이 제대로 백인놈이 있었더라면 경을 쳤을거야. 하긴 패잔병들이란건 산 송장이긴 하지만...》

《저 분대장동지한테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묻고야 말았다. 구대원들에게서 《속세의 인간》인 나와의 공통점을 조금이라도 찾아내여 나도 역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싶었다.

《나? 왜 무서울 때가 없겠나?》

《정말이에요?》

나는 지어 기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동당지 않는 두살짜리 딸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다시금 적들의 포탄과 폭탄이 쏟아졌다.

폭음과 포연, 불길...모든것이 무서운 악몽과도 같았다. 매순간마다 더는 견딜수 없을만큼 무서웠고 고통스러웠다. 분대장은 나의 옆에 었드려있었다. 그의 얼굴도 고통스럽게 찡그려져있었다. 폭음과 폭음사이로 그의 투덜대는 소리가 토막토막 들렸다.

《이거야... 견디겠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었다. 나는 소리쳐 물었다.

《뭘라구요-?》

《못견디겠단 말이야-!》

《?!》

분대장도 못견딜 정도라는것이 한없이 놀라왔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고약스럽게 들리겠지만.)

그런데 분대장은 몸을 잔뜩 달팽이처럼 웅크리더니 한발을 끌어당겨 공공거리며 군화를 벗었다. 어떻게 하려는것인지 알수 없었다. 그는 군화를 벗더니 꺼꾸로 쳐들고 털었다. 담배꽂초만한 쇠조각이 떨어져나왔다. 그는 군화를 도로 신더니 길게 숨을 내쉬었다.

《에-이제는 살것 같군!》

《?!》

이 지옥같은 포사격이나 폭격보다 군화안에 들어간 쇠조각이 더 고통스럽단 말인가?...

《회계원》은 또 귀가 멍가봐 걱정스러운듯 귀구멍에 숨을 틀어박고있었다.

나는 종시 그들에게서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의 모든것이 나에게에는 놀랍기만했다. 그들은 나와는 전혀 다르게 창조된 억센 사람들이었다. 무서움이나 당황함이란 모르는 초인간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죽음도 없을것이라고 믿어졌었다.

...

여기 혁명의 수도 평양에
높이 탑을 세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민군장병들을 추모하노니
사람들이여 영원히 기억하라
불멸의 그 이름들을
...

불멸의 그 이름들... 영원할 그 이름들... 크고작은 꽃다발들이 화단을 이룬 대리석계단, 눈여겨보면 그곳에 《불멸의 그 이름들》이 새겨져있을것 같다. 여기로 올라오는 130여개의 화강석계단에도...대리석의 기묘한 무늬들과 화강석의 우툴두툴한 면들은 그 이름이 새겨진 영원한 상형문자들이 아닐까.

이 세상에 의미없는 흔적이란 없다... 그속에는 나의 전우들의 이름도 있을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도 그렇다. 그 이름들속에는 나의 이름도 있을수 있다.

나는 39년전 락동강 기슭에서 이미 죽었을수도 있다. 내가 지금 누리고있는 생은 나의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전우들이 넘겨준 생을 살고있다. 분대장과 구대원들의 생을...

서늘한 바람에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우듬지를 흔들고 대리석계단의 꽃송이들을 흐트러놓는다. 그때마다 색조가 변하는 꽃송이들은 마치 작은 태양같다. 작은 태양처럼 꽃잎들을 해살모양으로 펼치고 탑우의 전사를 비쳐주고있다.

오, 생. 나의 하루하루를 충만시키고있는 전우들의 뜨거운 생!...

《몇살이라고 했던가?》

《열일곱살입니다.》

나는 군복을 입은 후에는 처음으로 솔직히 대답했다. 그곳에는 나이가 모자란다고 쫓아보낼 사람이 없었다.

《열일곱살? 열여덟살이라던건 뭐요?》

《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

분대장은 이윽도록 나를 보더니 팔목에 찬 시계로 눈길을 내렸다. 그 시계는 중대장이 주고간것이였다. 중대는 몇시간전에 떠나갔고 분대는 적들을 견제할 임무를 받고 남았었다.

나는 그때 그것이 우리 력사에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라고 부르는 엄혹한 나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열한시... 여섯시간이 남았군.》

하고 분대장은 중얼거렸다. 분대는 열일곱시까지 적들을 막아야 했던것이다. 분대장이 시계를 본것은 내 나이가 임무마감시간과 일치해서였는지도 몰랐다.

《한사람앞에 한시간씩 차례지는군요.》

하고 《회계원》이 주석을 달았다. 그는 계산할 일이 생기면 활기를 띠는것 같았다. 총을 쏠 때에도 발사되는 총탄과 살상되는 적병의 수자를 계산하

며 《적자》를 따져보는듯했었다.

분대장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한사람앞에 한시간... 별로 길지 않지. 그러나...》

분대장은 나를 지켜보았다.

《그 한시간 한시간에 우리 전쟁의 운명,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소. 한 항일투사인 사단장동지는 마지막 순간에 군의한테 부탁했다고 하오. 5분간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말이요. 시작한 작전을 끝내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마지막보고를 올리기 위해서였소... 우리도 그 항일투사동지처럼 살줄 알아야 하오.》

그는 더 많은것을 말하려 했을것이다. 자기앞에 차례진 한시간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것, 한시간을 위해서는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그러나 나는 그때 그것을 몰랐다. 씩씩한 대답으로 조금도 무섭지 않다는것을 나타내기에 급급했다.

《알았습니다!》

너무 씩씩하려고 애쓴 나머지 말을 끝내자 한바탕 기침이 쏟아져나왔다.

《알겠단 말이지?》

분대장이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휘관들은 레외없이 절도있는 병사를 좋아한다. 그러나 분대장의 얼굴은 도리어 흐려졌다. 한동안 더 나를 지켜보더니 내앞을 떠나버렸다. 나는 전호바닥에 쪼크리고 앉았다. 내가 대답을 잘못된것일까. 분대장의 흐려졌던 얼굴만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알수 없었다. 무엇때문인지는. 소침해진 나는 탄피가 어지럽게 널린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고있었다...

《성립동무!》

분대장이 다시 내앞에 서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그러자 내앞에 빙돌러서서 지켜보는 구대원들을 보았다. 그들의 눈길이 나를 당황하고 놀라게 했다. 처음보는 사람처럼 이상스레 보고있었다. 시선들에는 미소가 어린듯도 했고 하도 생각깊어보여 애수까지 어려있는듯했다.

분대장은 담배곽 두개를 포갠것만한 꾸레미를 나에게 내밀었다.

《이걸 중대에 전하고...》

그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맺었다.

《돌아오오.》

《예?》

이제 여섯시간후면 중대가 돌아오면가 만나게 될텐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긴급한 연락일까...

《무슨 대답이 그 모양이요?》

분대장의 말에 나는 얼른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해야 하오. 전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오!》

《알았습니다! 전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 하고 나는 한마디 덧붙였다.

《전하면 인차 돌아오겠습니까!》

《…》

분대장의 눈시울이 가늘게 떨리는것 같았다. 이
읍해서야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인차 돌아와주오…》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었다. 하기에 구대원
들이 별로 으스스리게 오래도록 손을 잡아주는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마치 그 어떤 신성한 의식이라도 거행하
듯이 나를 바래워주었다. 한사람씩 차례로 다가와
손을 잡고 나를 이속도록 지켜보군했다. 그 눈길이
얼마나 생각깊고 주의깊은것이었던지 나는 자신의
모습이 그들의 눈동자속에 정착된듯이 느껴졌다.

분대장은 나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인가 할듯 한동
안 지켜보았으나 내 군모를 벗기고 자기의 군모를
씩워주었을뿐이었다.

《전쟁첫날부터 쓰고온 모자요. 자-그럼… 기다
리겠소.》

지켜보는 그의 눈길은 까닭없이 언젠가 주고받던
말을 생각해 했다.

《분대장동문 또 딸애 생각이 나는 모양이구려.》

《보고싶어 죽겠구만!》

…그날 중대를 만나서야 나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
퇴가 시작되었다는것을 알았다. 내가 가지고 온것
은 분대의 당원증과 민청맹증들이었다. 분대장의
이름은 리정표였다. 리정표…

《분대장동지, 분대장동지도 무서울 때가 있어
요?》

《나? 사람이 왜 무서울 때가 없겠나.》

《정말이에요?》

《나한테 딸이 하나 있네. 두살이야. 내가 일을 하
고 돌아올 때면 문턱을 짚고 일어나 좋다고 웃어대
군했지. <아-! 오-!> 하면서… 지금은 컸을게야 막
걸어다니겠지. 말도 제법 할지 몰라. 그런데 눈앞
에 떠오르는건 문턱을 짚고 일어나 <아-! 오-!> 하
며 웃던 모양만이야.》

《그런데요?》

《그 애를 못보게 될가봐 무섭네 저놈들의 비행기
가 머리위를 지나 북쪽으로 가는걸 보면 꼭 우리
딸애한테 가는것 같거든!》

《그 참!》

《왜? 이상하냐?》

《글쎄 전선에 있는 사람이 후방에 있는 사람을
더 걱정하니 어쩐지 좀…》

《나? 난 죽지 않아. 왜놈때 무너진 마구리에 묻히
구 가스폭발로 질식된적이 몇번인지 모르지만 난
살아났어. 왜놈들은 날 못죽였던 말이야. 그런데 내
가 미국놈한테 죽을가? 천만에!》

《…》

그밤, 복상하는 대오의 머리우에서는 은하수가

찬란히 흐르고있었다. 때때로 류성이 활같은 궤도
를 그리며 혜성처럼 떨어져 내렸다. 옛말에는 홀룡
한 사람이 죽을 때면 별이 떨어진다고 했다…

《어머니 감시다!》

《할머니-어서요!》

아들 딸 손자들은 이미 화강석계단에 내려서있었
으나 늙은 녀인은 그대로 전사의 앞에 서있었다. 말
없고 대답없는 전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허나 그의 눈에는 전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것이
다. 두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 눈물속에는
전선으로 떠나던 날의 젊으나젊은 남편이 서있을것
이다.

《할머니-! 빨리요!》

채촉하는 아들딸, 손자들의 걸음과 표정, 어조에
서는 어데론가 다른곳으로 어서가고싶어하는 조급
함과 기쁨이 울리고있었다. 그들은 벌써 웃고 떠들
고있었다.

그리고 언제 올라왔는지 알수 없는 처녀와 총각
은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못찾았는지 대리석계단
옆에서 열심히 소곤거려대고있었다.

나는 돌아섰다.

죽은 사람들은 산사람들의 추억속에서 산다고 한
다. 그래서 홀룡하게 산 사람들은 영생한다고 할것
이다. 허나 저 웃음소리, 저 속삭임, 과연 저속에 추
억이 깃들 자리가 있을가. 없다면… 우리는 영영 죽
은것이 아닌가.

묵묵히 서있는 전사. 그는 군복과 군모, 군화, 펠
릭이는 우장에는 세월의 흐름이 거무스름한 《옷》
을 입혀놓았다. 저 《옷》이 과연 망각의 이끼란 말
인가. 저 녀인의 눈물이 그 망각의 이끼를 씻어버릴
수는 없는가…

《분대장동지 분대장동진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그 어린것에게 떨어지는 모든것
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아버지겠나 아이
들은 부모들을 믿고 태어난다네.》

《…》

그런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가… 우툴두툴한 화강
석계단 눈여겨볼수록 그 우툴두툴한 면은 심오한
의미를 담은 상형문자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것을
해독하고있다…

《…전선으로 떠날 때에 말이야 한 처녀가 꽃다발
을 주면서 <편지하랴요.>하지 않겠나? 그게 전부지.
난 떠났으니까.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그 말이 계
속 잊혀지지 않아. 목소리까지도 생생해. 잘 때에도
<편지하랴요.>하던 목소리가 귀가에서 울린단 말
이야. 그참!》

《그래 편지를 했겠지?》

《아니.》

《안했대구?》

《이름을 알아야지? 난 그날 그 처녀 처음 봤단
말이야.》

《에이 정말 한심하군!》

...

《난 전선으로 떠나는 날에 제일 용감했던것 같애. 감히 말도 못해보던 처녀 만나러 갔댔으니까. 아마 이 군복이 날 용감해지게 한것 같아. 그렇지 않았으면 평생 속만 태웠을건데. 빗과 거울, 만년필을 가지고 갔댔지. 그런데 그 처녀 <내가 이걸 왜 받아야 하나요? 난 받을수 없어요!>... 저녁때였어... 바람이 조금 불고...》

《괜찮아, 이제는 사랑해줄걸세. 영웅이 뭐 별다른 사람인가.》

《아니! 사랑이란 그런게 아니야!》

《사랑하게 된대두! 동무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 사랑하겠나? 분대장동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분대장이 어떻게 대답했던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것 같다. 그저 머리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던것 같다. 그 웃음이 지금에는 《그땐 우리모두가 사랑을 받을걸세.》 하는 말로 회상된다.

그때 교원이 있었더라면 《<사랑한다>는건 <동사>요.》 하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미 전사했었다. 언제 어떻게 전사했는지 누구도 몰랐다. 적들이 쫓겨간후에야 사격하던 자세그대로 흉상에 엎드려있는 그를 발견했었다. 총신은 그때껏 따뜻했다.

《난 지금 생각해보면...》

분대장이 천천히 말했다.

《왜 그전에 일이 조금만 안돼도 올상이 되고 화를 냈던지 모르겠네. 금방 죽기라도 하는것처럼... 바보였지.》

《회계원》이 바람이 조금 불던 저녁이 비낀 서글픈 눈을 들었다.

《참 좋았지요...》

《돌아가면...다시는 그런 바보짓을 안하겠네, 실패 웃으면서 살겠네.》

《옳수다!》

《창고장》이 열렬히 찬동했다.

《이렇게 싸우고도 웃지 못한다면 살아서 뭘하겠나요?》

《그땐 모두 웃기만 하면서 살것 같구만!》

하고 분대장은 조용히 그러나 열렬하게 되뇌었다.

《웃으면서 살아야지!》

웃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정말 39년전에 있는 이야기였던가. 그때로부터 정녕 그렇게도 많은 시간이 흘렀단 말인가...

《아-! 오-!》

조그마한 처녀애가 계단에 올라서서 뚝뚝 소리를 질러대고있다. 그의 손에는 빨간 꽃 한송이가 쥐여져있다. 아까 계단에 떨어져있던 꽃송이이다. 처녀애는 그것을 보고 올라왔던 모양이다. 꽃송이를 들고는 웃계단을 한손으로 짚고서서 땀땀 웃어

대며 뚝뚝 소리를 질러대고있다.

《아-! 오-!》 그것은 승리의 환성이다.

아, 그 웃음, 그 환성...

《문턱을 짚고 일어서서 웃던 모양만 떠오르는구만. 보고싶어 못견디겠구만! ... 한번 안아볼수만 있었으면!...》

분대장의 추억속에서 딸애는 《지금도》 저만한 어린애로 남아있을것이다. 분대장에게서 딸애는 영원히 저 처녀애처럼 문턱을 짚고서서 웃고있을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여기서는 시간이 조금도 흐르지 않았다. 아버지와 딸, 39년전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사이에서는 한순간의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

저 탑우의 전사가 처녀애를 마중하여 군화소리를 울리며 화강석계단을 내려올수도 있다. 그러면 처녀애는 《아버지!》 하고 소리칠것이다... 시간은 오직 상상속에서만 흘렀다. 여기에는 오늘날이 있을뿐이다. 39년전도 오늘이며 39년후도 오늘일것이다. 처녀애는 지금 전선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웃으며 맞고있다. 불꽃처럼 선명한 빨간 꽃송이를 들고...

나는 어느사이 눈에 눈물이 고였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눈물속으로 처녀애의 빨간 꽃송이와 땀겨리는 웃음이 해살처럼 비쳐들었다.

《난 웃으며 살겠네. 웃으며...》

《모두다 웃으며 살아야 해.》

처녀애의 웃음은 더 환하게, 찬란한 해살파도 같이 나의 눈물속에 칠색무지개로 비쳐들었다. 아이는 계속 소리치고있다. 《아-! 오-!》

전사는 대답없이 서있다. 바다속같이 깊고깊은 침묵, 허나 바다의 침묵속에는 가장 폭넓고 우렁찬 자연의 언어가 있다. 침묵도 말이다.

전사는 침묵으로 말하고있다. 나의 말을 들으려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거든, 내 아래로 흘러가는 오늘을 보라. 그리고 사랑하라. 오늘의 모든것이 나의 말이다!...

후손만대를 두고 노래할

당의 아들딸들이여!

그대들의 그 이름 그 위훈은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리라!

...

우리는 추억이 아니라 오늘속에서 영생하고있다. 오늘의 생활이 곧 우리에게 대한 추억이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일뿐이다.

하기에 웃음이 흐려진다면...

우리는 탑우에서 내려올것이다...

아름다운 풍경

리정수

나는 얼마전에 전국풍경화전람회에 내놓을 미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동해안의 아름다운 명승지를 찾았다.

바다풍경을 그리리라 결심한것은 오래전부터였다.

갈기를 날리며 내닫는 천군만마의 호용과도 같은 검푸른 파도가 사나이의 억센 기상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잠풍한 밤바다의 달빛 흐르는 수면은 모기쭉 피어오르는 고향집뜨락에서 어린 동생을 다독이며 부르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가슴에 파고들기도 한다.

어린 시절을 바다가에서 보낸 나에게 있어서 바다에 대한 애착은 류다른것이였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작품을 내놓지못한 나로서는 이번 기회에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화폭을 마련하여 성과작을 내놓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해뜰무렵에 바다가로 나갔다. 길게 드리운 어둠이 서서히 가서지며 동녘하늘이 푸름푸름해온다. 이어 고요한 정적속에 잠겨있던 수평선 한귀가 움썹거리더니 쇠물처럼 이글거리는 불꼬리를 끌며 붉은 해가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한다. 활짝 열린 넓은 하늘이 주홍빛노을로 진하게 물들어진다. 그 풍만한 광채속에 일렁이는 파도는 수억만개의 거울조각을 안은듯 눈부시게 반짝인다. 연연 굽이져간 기슭을 따라 수수천년 모진 풍화의 부대깍속에서도 드물지 않고 솟아있는 은회색 층층기암절벽도 그우에 무겁게 실리운 푸르청청한 로송도 마치 큰 활력을 받아안은듯 숨을 몰아쉬며 자기의 웅장하고 수려한 자태를 드러낸다. 하나의 완성된 화폭이 안겨드는 순간이다.

나는 그림그릴 준비를 서둘렀다. 그림버티개를 세우려니 돌쫓날쫓한 돌들이 거치장스러웠다. 나는 돌들을 굴러버리고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

나는 흥분에 싸여 붓을 달리였다. 초벌색칠이 거의 끝났을 때였다. 밑에서 《첨병!》소리와 함께 《이크!》하는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놀란 눈길을 들었다. 파아란 물속에 뿌리박은 바위뒤에서 농립모를 쓴 로인이 나타났다. 여기 휴양소의 사진사였다. 그의 젖은 옷자락에선 물이 줄줄 흘렀다.

《미끄럽기란...》

《...?》

《인공적으로 만들자해도 술한 품을 들여야 할텐데 누가 이따위짓을 했는지. 끄쓰...》

로인은 내가 굴린 돌들을 제자리에 바로 앉히느라 궁쉴거리며 푸념처럼 뇌이는것이였다.

나는 기분이 잡쳐져 붓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돌들을 치운 로인은 바위에 걸터앉았다. 젖은 신발을 벗어 물을 찌우던 로인은 《영?》하고 놀라며 손에 든 신발을 털썩 떨궜다. 무엇을 잊은듯 급히 옷주머니를 더듬더니 비닐지갑에서 조그마한 어린애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허 하마트면 큰일날뻔했군.》

로인은 젖은 사진에서 물기를 닦아내고 보풀이 일세라 손바닥으로 찬찬히 눌러 평평한 바위우에 정히 펴놓았다. 퍼그나 오래되어 누렇게 색이 바래여가는 사진이였다. 예순살도 훨씬 넘겼을 로인이 사진을 품고다니는걸 봐서 직업에 대한 애착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해돋이는 끝나고 이글거리던 바다색도 바래여갔다. 나는 붓을 놓고말았다. 로인은 바다가에서 삭정이를 모아 불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왜 안그리나? 어서 그리라구.》

로인은 꾸역꾸역 일어나는 내굴에 눈이 쓰린지 눈굽을 짚으며 말했다.

《바다는 시시각각으로 색이 변하기때문에 순간을 놓치면 그리기 힘듭니다.》

《그래?》

로인은 어딘가 미안한 눈치를 보이더니 《그럼이리 오게나. 조개추념이나 하자구.》하며 들고온 구력을 헤치고 버럭거리는 밥조개를 불속에 던져넣는 것이였다.

나는 그림도구들을 주섬주섬 거두고 로인과 마주 앉았다.

칙칙- 조개에서 김이 오르더니 식식 껍질이 버그러지기 시작하였다. 보기에다 먹음직한 노란 속살이 드러났다. 로인은 나에게 찌리꼬행을 쥐여주었다.

《맛보게. 어제 퇴소생들이 잡은걸세.》

조개구이맛이란 역시 별맛이였다. 노랑게 익은 조개살을 집던 나는 바위우의 사진에 눈길이 갔다.

《꽤 귀엽군요. 아들인가요?》

《아닐세.》

로인은 불밖으로 밀려나온 조개를 다시 불속에 밀어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아니면 손자일거라는 짐작으로 고개를 들던 나는 로인의 근엄한

빛이 어린 얼굴표정을 보고 놀랐다.

(사진에 무슨 사연이 있는것이 아닐까?)

나의 심증을 헤아렸던지 로인은 좀 갈린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진은 아들두 손자두 아닐세. 하지만 귀한 사진이라네. 이걸 늘 가지고다니는것은 사진이 나의 생활에 너무도 큰것을 안겨주기때문일세. 보잘것없는 사진같지만 여기엔 참된 인간의 한생이 담겨져있지. 한생이...》

그는 해가 퍼져 광택이 흐르는 망망한 바다를 깊은 상념에 잠겨 바라본다. 호수를 담은듯 웅심깊어 보이는 눈길, 아침바다바람에 거꾸서서 일어서는 서리불린 흰머리, 그물실처럼 뒤엉킨 깊은 주름살...

이윽하여 로인은 불무지를 헤집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록영화촬영가인 내가 해방된 새 조선에서 행복한 생활로 꽃을 피우는 인민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바다를 낀 어느 한 농촌마을을 찾은것은 봄빛이 짙어가는 어느날 오후였소. 어떻게 하면 벽찬 새 시대의 숨결로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을 생동하게 촬영할것인가. 새로운 창작의욕은 뭉게구름처럼 가슴에 한껏 피어올랐소.

서쪽하늘에 화려한 분홍빛 노을이 펼쳐질무렵 수평선 한끝에 포구로 돌아오는 배의 하얀 돛목들이 갈매기의 깃처럼 보였소. 바다가에서는 후리질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흥겨운 먹임소리가 발갛이하고 느적느적 돌아오는 소들의 긴 영각과 화음을 이루며 자연의 풍치를 한껏 북돋아주었소. 습습하고 구수한 흙내에 바다에서 풍겨오는 건건한 간내가 어우러진 대기속으로 제비들이 살같이 날고 웅단처럼 펼쳐진 푸른 보리밭우에는 종다리들이 지중지중 울어대며 떠있었소. 이름모를 들꽃들이 하얗게 핀 동쪽우로 한패의 처녀들이 까르르 웃어대며 달리는 데 치렁치렁한 머리태가 춤추고 허리를 동인 치마폭이 기폭처럼 날렸소. 집집마다에서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녀인들의 행복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향나무밑 우물가에선 아낙네들의 즐거운 이야기판이 벌어졌소. 아름다운 산천에 어울려 약동하는 어촌마을의 석양은 나의 마음을 송두리채 빼앗았소.

나는 급히 촬영준비를 서둘렀소. 그런데 촬영위치가 시원칠 않았소. 땀꺼나 흘리며 언덕에도 올라가보고 바위우에도 서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소. 마음이 조급했소. 문득 동구밖에 서있는 버섯모양의 큰 느리나무가 눈에 띄었소. 나는 한달음에 나무우에 올라가보았소. 순간, 이때껏 내가 본 아름다운 마을전경이 손에 잡힐듯 안겨왔소. 그런데 앞에 드리워져 흐느적이는 나무가지들이 구도경을 가리웠

소. 나는 가까운 집에서 낫을 얻어 가지들을 쳐내기 시작했다.

이때였소.

<거 나무를 찍는게 누구요?> 하는 칠판 두드리는데 같은 성난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소. 나는 놀란 가슴을 누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소.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검실검실한 청년이 바줄통구리를 어깨에 걸친채 눈을 지릅뜨고 서있었소. 소금버캐가 핀 모자와 장화에 붙은 돈잎만한 고기비늘을 보아 바다에서 돌아오는 어부가 분명했소.

<도대체 누구길래 함부로 나무를 찍는게요?!>

창살같은 목소리가 채차 날아왔소.

<예, 평양서 온 촬영가인데 동무네 마을을 영화에 담자고 하오?>

이렇게 말하면 제편에서 고맙다거나 수고한다는 인사를 할줄 알았소. 그런데 웬걸 이건 무작정 나무에서 내려오라는것이 아니겠소.

(이런 벽창호라구야.)

나는 사정하다 못해 신경질까지 냈소.

<동무,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란말이요!>

<그렇다고 나무를 망탕 찍어가면서까지 촬영을 해야 하오?>

청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서둘러 범접 못할 위엄이 배여있었소. 나는 아연했소. 글썄 자기의 고향마을을 세상에 소개해주겠다는데 이건 큰변이나 난것처럼 야단이 아니겠소. 사실 우린 촬영기만 떼면 어디에 가든 환대를 받았고 모든 특혜를 보장받았소. 영화에 나오는걸 싫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지라 어지간히 당황했소. 어느덧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촬영할 순간을 다 놓쳤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소.

나는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려 그와 마주섰소.

그의 몸에선 건건한 간내가 물씬 풍겼소.

<그래 못찍게 하는 원인이 뭐요?>

나의 목소리는 격한 나머지 떨리기까지 하였소.

청년은 집요하게 따르는 나의 눈총을 피해 보라빛 노을이 사위여가는 산너머쪽 하늘가로 시선을 돌렸소.

<무더운 여름철이면 우리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 그늘밑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지요. 길가던 사람들도 그렇고...>

청년의 목소리는 폭 가라앉았소. 웬일인지 좁전의 기상과는 달리 서늘한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그윽하기까지 하였소. 그는 바줄을 내려놓고 널려진 나무가지들을 모아 한옆에 차곡차곡 무쳐놓았소.

나는 훌륭한 화폭을 놓친것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소.

<동무, 촬영이 뭔지 알거나 하오? 동문 중요한 사업을 망쳤단말이요!>

무어라고 말을 할듯 머뭇거리던 청년은 끝내 말꼬지를 떼지 못하고 스적스적 마을쪽으로 걸어갔소.

그날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소. 촬영기의 필립을 없애지 못하고 들어와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만큼 가슴에는 청년에 대한 야속함과 자신에 대한 불만이 부각부각 피여올랐소. 민주선전실에서는 청년들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소.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흰 물새 훨훨 파도우에 넘나들고
아득한 수평선엔 흰돛이 아름다운
저기 저 바다로 우리 가자
...

노래소리는 어촌마을에 서리였던 한숨과 눈물을 털어내며 질어가는 밤의 정서를 한껏 북돋아주었소.

성인학교에서 돌아오는 너인들의 두런두런 하는 말소리도 들려왔소. 새 생활로 잠들줄 모르는 밤에 유독 나만이 번잡한 모태김속에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시간이 천년맛잡이로 여겨졌소.

나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소. 아침 해돋이때라도 촬영해볼 생각에서였소.

나는 촬영기를 메고 동구밖으로 향했소.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온몸에 녹녹히 감겨들었소.

느티나무아래에 이른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소. 어제 없던 다락이 매여져있었던것ियो.

도대체 밤새 누가 이 다락을 세웠단 말인가. 의혹은 점점 짙어졌소. 어제 내가 올랐던 높이만큼 세운것으로 보아 촬영대로 세운것이 분명했소. 잠간 한 장면을 찍을 촬영대치고는 너무 품이 많이 든 구조물이었소. 나무도 뭔가 지었던 재목이었고. ...사실 촬영대 몸만 의지하면 되는것인데 이걸 한살림 꾸릴만큼 정성스레 지었던것ियो. 하지만 그 생각은 잠깐뿐이었소.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소. 하늘엔 축 처진 날개모양 비구름이 내려덮이고있었소. 촬영하기엔 적합치 못한 날씨였소. 손땀이 탁 풀리고 잇었던 피곤이 엄습했소.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더라면 어제 무조건 촬영기를 들이댔어야 할걸 그랬다는 후회가 머리속을 짝 메웠소. 청년이 원망스럽기만 하였소. 나는 가슴이 알알한대로 촬영을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하였소. 벌써 비꼬치가 돌기 시작했소. 봄비치고는

제법이었소.

부실부실 내리는 비는 며칠동안 그칠줄 몰랐소.

나는 날이 들기를 기다려 숙소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있었소.

그러던 어느날 저녁 리인민위원장아바이가 나를 찾아왔소. 비옷을 벗어들고 방안에 들어선 그는 어느때와는 달리 퍼그나 주저하는 기색이었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 어린애 돌사진을 찍어줄수 없수다?>

<돌사진이라니요?>

나는 의아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소. 하지만 고쳐생각했소. 리인민위원장이고 보면 사람들에게서 별의별 청을 다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겠소. 나는 제 할일도 못하면서 돌사진을 찍는것이 좀 뜨직했으나 여기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주는셈치고 기꺼이 응해나섰소. 아바이는 나의 등에 비옷을 씌워주고 길안내를 하는데 큰 행차라도 살피주는 사람같았소.

우리는 마을길을 걸었소. 비내리는 밤이었지만 향긋한 꽃향기가 풍겨왔소. 집집의 불빛에 비쳐진 마을길에는 비로 하여 떨어진 꽃잎들이 꽃보라처럼 깔려있었소. 활짝 핀 살구꽃이며 나리꽃들이 드리워진 창가마다에선 어린애들을 가운데 놓고 뽀뽀 짹짹으로 즐기는 웃음소리가 높았소. 정말 행복으로 잠들줄 모르는 마을이었소.

우리는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는 아담한 집뜰안에 들어섰소. 모두들 큰 경사가 난것처럼 나를 맞아들었소. 젊은 부부의 인사를 받는 순간 나는 놀랐소. 세대주가 촬영을 방해한 그 청년일줄이야.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소. 나의 심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위원장아바이는 얼굴에 노상 벋글벋글한 웃음을 담고 내앞에 놓인 잔에 소비조합에서 사온 소주를 부었소.

<우리 무철이가 이젠 남부럽지 않게 됐어. 고아의 설음이야 그 세월에 다 흘러보냈으니... 이젠 애기아버지란 말이지. 허->

취기가 올라 별경게 상기된 그의 얼굴은 무철의 부부에게로 옮겨졌소. 아직 솟기를 채 벗지 못한 무철의 안해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앉아 어린애를 다독여주고있었소. 미인이라고는 할수 없으나 생김생김이 오목오목한게 여간 복스러운 인상이 아니었소. 무철은 자기에게 차례진 행복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라하였소.

나는 아바이와 두서없는 말을 통하여 그들 부부가 고아라는것과 해방후 동네사람들의 축복속에 성례를 치르었고 이젠 어린애의 첫돌까지 맞았다는걸 알게 되었소. 하지만 솔직한 말로 그 모든것이 나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소. 뽀뽀는게 매라구 활

영가인 나에게야 훌륭한 화폭을 세상에 내놓아야 창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게 아니겠소. 그런데 무철이로 하여 한순간을 놓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있으니 오금이 편할리 없었소. 게다가 그 당사자의 집에 와있음에야... 그러나 나는 성의껏 사진을 찍어주었소.

나는 끝내 어촌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 못하고 평양행 열차에 몸을 실었소. 출장기일도 끝난데다 촬영소에서 급히 올라오라는 기별이 왔던것이요. 결국은 큰맘먹고 접어들었던 촬영은 못하고 촬영을 방해한 청년의 아들에 첫돌사진만 찍어준셈이지. 그러니 청년에 대해 어찌 좋은 인상을 가졌겠소.》

로인은 불꼬챙이를 들어 담배를 붙여물었다. 담배연기를 내보낸 로인은 조용히 흐느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한동안 제 생각에 묻혀 말이 없었다.

바다기슭에는 벌써 휴양생들이 나와있었다. 그들은 낚시질도 하고 돌맡을 더듬어 게잡이도 했다. 물 위에는 뽀트들이 떴다. 젊은이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배놀이를 한다. 누리는 태양빛으로가 아니라 생의 희열에 넘친 그들의 환한 얼굴빛으로 밝아지는 듯했다. 아바이의 얼굴엔 느슨한 미소가 어린다. 나의 머리속에는 문득 돌사진이 어떻게 되어 다시 로인이 건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영화를 세상에 내놓은 이름있는 촬영가인 그가 무엇때문에 평양에서 수백리 떨어진 여기 한적한 휴양소의 사진사로 여생을 보내고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날밤 우리는 휴양소 뒤언덕 휴식터에 마주앉았다. 영킨 그물처럼 우중충 퍼져나간 소나무가지에 한귀가 이지러진 달이 걸려있었다. 그 빛을 받아 솔잎은 바늘처럼 반짝이고 나무줄기들이 물기를 머금고 은은한 빛을 낸다. 버성긴 나무숲사이로 달빛의 애무에 몸을 맡기고 누운 바다가 푸릿이 보인다. 바람소리, 파도소리, 싱그럽게 풍겨오는 솔잎냄새까지도 오션지에 옮겨지는 선물처럼 가슴에 안겨드는 유정한 밤이었다.

거품이 끓는 맥주를 마시고난 로인은 입언저리를 닦으며 눈을 가느스름히 좁히었다.

《미술가동무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주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그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전쟁 때에 올라가야 할거요.》

...중군촬영가 박재민은 해군기지장과 함께 어뢰정대로 향했다.

좌-철썩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는 방파제에 부딪쳐 찢어진 허연 물갈기를 그들의 발치에 휘뿌려 놓는다.

키가 흰칠하고 동작이 진중한 기지장은 앞에 있는 물창을 에돌며 하던 말을 이었다.

《어뢰정은 타기가 조련치 않습니다. 잔물에 빠가

굳은 사람도 한번 항해하고나면 머리가 펄펄 돌지요.》

《누가 뭐라든 전 꼭 타겠습니다.》

《허 어뢰정정대장이 보통 구두쇠가 아닙니다. 그가 거절하면 용빼는 수가 없습니다.》

재민은 은근히 불안했다.

락동강도하전투를 비롯하여 공격, 방어, 매복 등 수많은 전투장면을 촬영한 재민은 짊어가는 전쟁의 나날과 함께 적후에서 싸우는 이름없는 영웅들의 투쟁모습을 화폭에 담아 후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촬영가로서의 의무감을 안고 모태졌다. 그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밀성과 민활하고 대담한 전투행동을 요구하는 정찰이나 습격전투에 전문적인 특수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가시키지 않으려는 전투조장들의 완강한 고집때문이었다. 그러던차에 해군기지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재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어뢰정의 전투조법이 대체로 습격인데다 타격대상이 엄청났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코교에 걸리는것이 많았다. 보매 마음이 서글서글할것 같은 기지장 역시 어뢰정승선에 대해선 아예 말도 붙이지 말라는 듯 고개를 틀었다. 그래도 억지가 사촌이라고 겨우 허락을 받았으나 말을 들어보면 직접적 대상자인 어뢰정정대장에게는 누구의 말이든 소귀에 경읽기라는것이였다. 하지만 내친김에 부딪쳐보자는 배심이 살아올라 나선 걸음이었다.

(자기들의 위훈이 영화에 나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뢰정들은 군항의 한끝에 붙어있는 뽕뽕에 계류하고있었다. 고래등처럼 물기를 머금고 번뜩이는 어뢰정선체들이 파도에 흐느적인다.

그들이 갑판위에 올라섰을 때였다. 취사실문이 벌썩 열리더니 하얀 위생복을 입은 전사가 물문을 손을 앞썩에 썩썩 비비며 뛰어나왔다.

《어- 벌써 왔어?》

그는 자기 동무들인줄 알고 반색하다가 기지장을 알아보자 얼굴이 벌개서 차렷자세를 취했다.

《정대장동문 어디 갔소?》

해병은 쭈뼛거렸다.

《저 노루때문에...》

《노루?》

기지장은 놀란 소리로 되물더니 취사실쪽으로 고개를 기웃했다. 큰 가마에선 물이 설설 끓고 뜬김이 서리서리 밀려나왔다.

해병은 벌썩 웃으며 활기를 띠었다.

《놈들이 달섬을 폭격할 때 노루가 물으로 간신히 헤엄쳐오는걸 감시병동무가 발견했습니다. 정대장동진 그에게 대렬감사까지 주었습니다.》

《대렬감사까지? 허-참》

기지장은 허구프게 웃었다.

이때였다. 《기지장동지!》하는 거센 목소리가 울렸다. 갑판우에 옷이 흠뻑 젖은 젊은 군관이 서있었다. 보고를 끝내고 손을 내리우는 군관을 보는 순간 재민은 눈을 홑떴다. 그는 전쟁전 어촌마을에서 보았던 강무철이었다. 이쪽으로 돌아서던 무철이도 처음엔 의혹으로 눈시울을 좁혔다가 놀라움으로 홑떴다.

《선생님이 어떻게?...》

《무철동무가 옳구만!》

그들은 서로 두손을 꼭 부여잡았다.

재민은 무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군복을 비집고 튀어나올듯한 담벽같은 앞가슴, 날카로운 눈길, 군인으로서의 세련된 몸가짐, 전쟁은 파편 조각도 쟁쟁 튀어나리만큼 그를 강철로 버린것같았다.

재민이 여기에 오게 된 사연을 들은 무철은 심각한 빛이 되어 말이 없었다. 재민은 은근히 마음이 조여졌다. 첫눈에도 벌써 그 웅고집과 고지식한 성미가 예전 그대로라는 느낌이 들었다. 기지장의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님을 알아 손땀이 탁 풀렸다.

《허 그러니까 이미전부터 아는 사이였군요?》

기지장이 그들사이에 나서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예. 전쟁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재민은 가슴을 누르는 속박감에서 벗어나려는듯 웃음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래, 노루는 어쨌소?》

무철은 피로운듯 미간을 좁혔다.

《놓쳤소?》

《아닙니다.》

무철은 대답하기 힘들어했다. 곁에 있던 해병이 나섰다.

《노루가 부상당해서 군의소에 맡겼습니다. 간호원들이 책임적으로 치료하겠습니다.》

《군의소에서 노루를 치료한다? 거 처음 듣는 소리군. 어쨌든 잘했소. 잘못 처리했으면 단단히 처벌하려고 했는데.》

만족한 눈길로 해병들을 둘러보던 기지장은 무철을 향해 돌아섰다.

《촬영은 어떻게 하자오?》

지금에 와서 기지장도 훌륭한 전사들을 영화에 찍어 세상에 내놓아주었으면 하는 기색이었다.

무철은 고개를 수긋한채 말이 없었다.

재민은 입술이 갈마드는것을 느꼈다.

(이번만은 양보를 말아야지.)

마음을 다잡고 한결음 나서는데 무철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보장해야지요.》

기지장은 뜻밖인듯 눈섭을 쫓겼다. 다음은 짐짓 능청스러운 빛을 띠었다.

《안면이 좋긴종군.》

재민은 안도의 숨이 나갔다.

《고맙습니다. 그런걸 공연히...》

시름을 날려보내는 웃음이 일었다.

무철이만이 무표정한 빛을 띠운채 묵묵히 해도를 펼쳐들었다.

그들이 전투임무에 대해 말하려 한다는것을 알아 재민은 부두에 올라섰다. 바람이 불어왔다.

(허 이번엔 차마 거절못하는걸 보니 그도 늑둑해질 때가 있는 모양이군.)

눈앞에는 똑하고 고집스러운 무철의 얼굴이 떠올라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날밤, 어뢰정정대는 어둠에 잠긴 바다를 누비었다. 낮보다 밤은 준엄한 전쟁이라는 색채를 더욱 진하게 드러낸다. 끝을 알수 없는 저 멀리에서 서슬푸른 칼날같은 탐조등빛이 캄캄한 하늘을 썰었고 신호탄, 조명탄이 밤하늘을 태웠다. 쿵, 쿵... 포성이 울렸다. 어디를 폭격하려는지 앙칼지게 하늘을 찌며 비행기들이 날아갔다.

촬영기를 안고 갑판에 서있는 재민은 가벼운 흥분을 느끼었다. 이제는 바라던 소원이 얼마간 성취된 셈이었다. 애된 해병이 옆에 붙어섰다.

《멀미나지 않아요?》

《괜찮소.》

《렌즈를 주의하십시오. 밤바다엔 습기가 많습니다.》

재민은 그가 기특했다.

《동문 나보다 더 잘 아누만.》

《제가 알게 뭇니까. 정대장동지가...》

해병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강무철의 구령이 울렸던것이다. 재민의 가슴은 후둑 뛰었다. 기다리던 시각이다. 짜릿한 흥분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뢰정들은 벌써 전투대형으로 들어갔다. 흰 물갈기가 날리고 바람이 아프게 살가죽을 뜯으며 윙윙 소리를 낸다.

살같이 달리던 배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듯 멈춰섰다. 배전에 부딪친 물너울이 움썰 솟구쳐 뒤로 밀려간다.

(무슨 일인가?)

어뢰정들이 목표로 한 이 해구에는 적합이 없었다. 낮까지 있던 적들이 어디로 갔는가?

무철은 어뢰정들에 적합을 찾아낼것을 명령했다.

배들은 즉시 바다를 누비었다.

얼마나 달렸는지...

드디어 적합의 위치를 알리는 보고가 들어왔다.

해도에 좌표를 찍어나가던 무철의 표정은 굳어졌다. 거울진 손이 해도자며 콤팩스를 부셔버릴듯 움

켜쥐었다. 이마에는 땀알같은 땀방울이 돋았다. 왜 공격하지 않는가. 더 지체하면 적에게 발견될수 있었다. 가슴을 조이게 하는 한초 한순간이 흘렀다.

드디어 결심을 내린듯 무철은 송화기를 들었다.

《해당화!》 그는 기지를 찾았다.

《놈들이 천해안선을 끼고있다. 천지점이 위험하다. 놈들을 27해구로 끌어내다 죽이겠다.》

무철은 온 신경을 수화기진동판에 모으고있었다. 기지에서 결심을 내리기 힘든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어 기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대로 공격할수 없는가?》

《없다. 기습으로부터의 거리가 7가벨트를 넘지 못한다. 어뢰공격때 폭발반경이 너무 크고 포탄과 편이 도탄되는 경우 피해를 면할수 없다. 승인하라.》

《다른 가능성을 찾아라. 꼭 찾으라!》

《더 지체하면 위험하다. 빨리 승인하라!》

수화기의 진동음이 웅 하고 들려왔다. 땀이 빠질 빠질 돌고 심장이 줄어드는것 같은 순간이다.

이윽고 기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좋다. 천지점이 화력권내에서 벗어나는 경우 지체없이 타격하고 탈출하라! 꼭 돌아오라!》

무철의 눈에선 불이 철철 흘렀다. 그는 정장들을 찾았다.

《명령을 들으시오. 적함을 끌어낼 때까지 절대로 노출되지 말것. 27해구에 은폐되어있다가 불의에 타격하시오. 이상!》

《정대장동지,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정대장동진 전투를 지휘해야 합니다.》

어뢰정장들의 부르짖음이 울려왔다.

《명령에 무슨 흥정이요. 더 시간을 지체시키면 처벌하겠소!》

덜컥, 송화기 놓는 소리가 가슴을 쳤다.

(어뢰정으로 적함을 유인하다니?)

재민은 무철이 어떤 전투를 조직한다는것을 안 순간부터 의혹과 실망이 한꺼번에 엉켜돌았다. 천번중 한번이나 있을번한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무엇보다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엄두도 못낼 그런 모험을 하는가.

이제 어떤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지... 운명에 대한 그 어떤 위구도 적아간의 역량에 대한 타산도 없었다.

강무철의 구령이 폭음을 누르며 울렸다.

《침로 120, 전속으로!》

배는 날개죽지같은 물갈기를 날리며 폭풍처럼 내달기 시작했다. 적함으로! 적함으로!

어느새 어뢰정은 적들에게 자기를 로출시켰다.

바다는 발각 뒤집혔다. 앞에도 뒤에도 불친지였다. 기름이 뜬 바다는 쇠물가마처럼 이글거렸다. 어뢰정은 뒤에 단 적함과의 거리를 조절하며 27해구

로 침로를 잡았다. 벌둥지처럼 조밀한 화력밀도를 가진 적함들이 불을 토할 때마다 거대한 불기둥이 타래쳐올랐다.

식식 광 꾸르릉 광광... 빨갭게 단 불덩이들이 무수히 날아와 터진다.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일어나는 폭풍에 배는 부르르 떨었다. 열풍이 확 휩쓸어들며 숨이 각각 막힌다. 물과 불의 처절한 싸움속에 휘말려든듯했다. 어뢰정의 앞뒤에서 뚜르르거리는 기관총은 적의 포화에 눌리웠다가는 다시 자기의 존재를 알리듯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그 가는 불줄기는 수백줄기의 불덩어리를 자기에게 끌어들였다.

재민은 그 복색통에서도 침착하게 전투정황을 화면으로 포착하고 촬영했다. 하지만 마지막 어뢰돌격전을 촬영하자면 필름을 아껴야 했다. 누군가 옆에서 털썩 넘어졌다. 탄약통을 든 해병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썼다. 재민은 그를 부축였다. 해집어진 어깨에선 끈적끈적한 피가 흘렀다. 해병은 가쁜숨을 뿔었다.

《사격을 계속... 탄... 알을...》

재민은 탄약통을 들었다.

화광이 치솟고 탐조등이 덮쳐들 때마다 전투를 지휘하는 무철의 모습이 언뜻언뜻 드러났다. 불에 그슬리고 땀으로 범벅진 얼굴은 청동으로 부어낸듯 번뜩였고 눈에선 섬광이 일었다.

그는 이쪽을 향해 추상같이 웨쳤다.

《기관총 뭘하는가? 놈들의 화력을 분산시키지 말라!》

옆에서 또 한명의 해병이 쓰러졌다.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빠직빠직 타드는것 같았다.

재민은 더 참을수 없어 무철에게로 달려갔다.

《이젠 돌격해도 되지 않겠소?》

《...》

무철은 심어박은듯 끄떡없이 서있었다.

꾸르릉 사태라도 인듯 일제 포사격이 터졌다.

《음-》 하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무철은 옆구리를 누른채 고통을 참느라 얼굴을 찡그렸다.

《다쳤소?》

《괜찮습니다.》

무철의 군복자락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적탄에 맞은 배는 점점 자기의 속도를 잃고있었다.

마지막 필름을 끼운 촬영기를 갑판우에 놓고 긴장된 마음을 풀어보려고 담배를 찾던 재민에게 구명편을 묶던 해병이 소리쳤다.

《정대장동지가 찾습니다.》

재민은 급히 지휘소로 달려갔다. 무철은 지휘용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허리와 어깨에 봉대를 감은 그는 애써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잘안되는지 도로 주저앉았다.

《선생님, 배에서 빨리 내려야겠습니다.》

재민은 놀랐다.

《그건 무슨 소리요?》

《더 있어야 필요없습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못내리겠소. 나도 임무가 있소!》

《선생님!》

무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빛은 무엇인가 간절한것을 호소하는듯하더니 이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옆에 있는 해병에게 소리쳤다.

《떨하오? 빨리!》

해병은 재민의 목에 구명띠를 툄씩 걸어주었다. 다음순간, 억센 손길이 사정없이 바다로 떠밀쳤다.

(아 또 촬영을 못한단 말인가.)

재민은 자신이 허울만 남아 물위에 뿌려진것 같았다. 차라리 육탄이 되어 적함에 부딪쳐도 이렇게 가슴이 타지는 않을것이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27해구쪽에서 하늘과 바다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발이 일었다.

《무철이!-》

재민은 목터지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육탄이 되어 적함을 요정낸 그의 모습은 다시는 볼수 없었다. 화광만이 밤하늘을 찢어발기고있었다.

재민은 달리는 어뢰정갑판우에서 눈을 떴다. 그는 자기가 다른 어뢰정에 의하여 구원되었음을 알았다.

《선생님!》

누군가 목매여 자기를 찾았다. 함께 있던 해병이였다. 그는 봉대감은 손에 유지에 쓴 구레미를 들고있었다.

《아니, 이진...》

재민은 놀랐다. 물에 떨어질 때 미처 쥐지 못한 촬영기였다. 그는 고마운 눈길을 들었다. 해병은 그의 눈길을 피해 불노을이 이는 바다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대장동진 우리모두를 바다에 떨구면서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촬영기에 찍혀있는것은 다 조국의 력사에 남아있을 귀중한 문헌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께 전하라고...》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유지를 해쳤다. 촬영기에는 편지가 끼워져있었다. 편지와 함께 자그마한 사진이 묻어나왔다. 언젠가 찍어준 무철의 아들에 돌사진이였다. 재민은 급히 갈겨쓴 무철의 글발을 더듬었다.

《이번에도 선생님을 도와드리지 못하는군요. 저해적의 무리들이 우리 명승지에 박혀있어서 이런 전투를 조직하다나니 저는 선생님에게 영원히 훌륭한 화폭을 마련해줄수 없게 된 사람으로 되었고요.》

(아, 그럼 명승지때문에...)

심장이 쿵쿵 박동을 일으켰다. 크나큰 걱정이 재

민의 가슴을 짊 메웠다. 그는 다음 글줄을 읽어내려갔다.

《선생님이 찍어준 사진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장군님 찾아주신 조국에서 누린 행복의 상징이였습니다. 귀중한 사진을 찍어준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조차 변변히 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 사진으로 하여 웃으면서 죽을수 있는것이 이상스럽습니다.》

다음은 피로 얼룩졌다.

《무철이!-》

재민은 무철의 이름을 몇번이고 심장속으로 불렀다. 밤하늘을 태우는 불노을을 배경으로 적함을 향해 돌진하던 무철의 모습이 우렁치 떠올랐다.

그 모습은 그의 망막에 진하게 새겨져 지워질줄 몰랐다...

로인은 몸을 일으켰다.

《무뚝뚝하고 인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용암처럼 끓어번졌다는것을 나는 이 앞바다에서 있는 전투때에 알았소.》

로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찰씩 처절씩... 밤과도소리가 높았다. 나는 모래불에 발자국을 찍어나가는 로인의 모습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그가 무엇때문에 이 명승지에서 사진사로 일하며 기슭의 돌 하나에도 그토록 애정을 쏟아붓고있는지 리해가 갔다. 무철이와 같은 영웅전사들을 잊지 못해 그가 목숨바쳐 지킨 이 땅을 가꾸며 여기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리라. 또한 그들의 모습을 찍어주며 그들도 조국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가 찍어준 사진을 보며 무철이처럼 행복했던 오늘을 지켜싸우리라 굳게 믿으며 말년을 보내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이 땅에 솟은 수려한 산발들과 기암절벽, 바위를 씻으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물...

그것들이 무철이와 같은 수많은 무명전사들의 얼굴이고 피며 났이 아니겠는가. 어제는 무철이와 같은 전사들이 피로써 지켰고 오늘은 그들의 뒤를 이은 저 로인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받들려 가꾸어 지기에 조국의 아름다움은 영원한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한갓 자연의 아름다움에만 현혹되었던 자신이 뉘우쳐졌다. 자연의 아름다움속에 비낀 무철이와 같은 인간들의 숭고한 녀을 모르고 무슨 명작을 창작할수 있으랴.

나는 일생의 창작생활에서 놓칠수 없는 귀중한것을 받아안은것으로 하여 흥분에 휩싸였다.

불밝은 휴양소창가에서 은은한 기타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거기에 맞춰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밤공기를 헤가르며 조용히 퍼져나간다. 밤과도는 그 무슨 사연을 속삭이듯 잠들지 않고 설레인다. 나는 그 설레임속에 발목을 잠그고 걸었다. 끝없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잊을수 없는 밤이였다.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 관건적 문제

리효운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는 긍정적인 전형적 주인공을 형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그의 혁명적 수령관이 형성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감명깊게 그리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은 혁명적인생관의 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문학작품창작에서 새 세대들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되는 혁명적 수령관의 기초가 서고 골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우리 아동문학이 창조한 우리 시대 주인공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있으며 집단주의적 생명관이 높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수한 아동소설의 전형적 주인공들은 혁명적 수령관의 골격이 굳건히 서가는 새 세대들의 전형이다.

그들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성장과정에 있기는하나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의 골격을 갖추어가면서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이루어가는 나 어린 세대들이다.

그들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집단주의적인 사회정치적 생명관에 뿌리를 박은 사상과 관점, 신념과 지향을 지닌 새형의 인간들로 자라나는 과정에 주체의 인생관, 혁명적 세계관의 튼튼한 기초와 토대를 쌓게 된다.

중학교 2~3학년이후부터는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형성되고 그것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혁명적 수령관의 골격이 체계화되는 과정이 촉진되게 된다.

중학교 2~3학년시기에 이르면 당과 수령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립장을 자각하고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이후 아이들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깨닫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오늘과 장래의 행복과 영광이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 정당성과 생활력 등을 많이 리해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그들에게는 당과 수령을 경모하는 마음이 심화되어 당과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그

권위를 절대화하고 모든것을 의탁하며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충성다하려는 숭고한 정신세계와 지향이 의식화되어간다.

중학교 낮은 학년에서 아이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의식적으로 구현해나가려는 정신이 높이 발양되며 그것을 자신의 사고와 행동,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자각과 의식이 점차 강화되어간다.

이처럼 이 년령기의 중학생 아이들에게는 혁명적 수령관의 골격이 기본적으로 서가게 되며 점차 공고발전되어 의식화, 신조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들이 지니게 되는 혁명적 수령관의 골격은 그 사상심리적 내용이 그 이전시기보다 더 구체화, 명료화될뿐아니라 그것이 체계적으로 심화풍부화 되어간다.

이리하여 이 년령기의 새 세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시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비할바없이 귀중하다는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빛내어나가려고 목적의식적으로 지향한다.

중학교 하급학년 학생들의 년령기를 반영한 우리 소설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정치사상적 특징은 집단주의적인 사회정치적 생명관의 견지에서 혁명의 계승자들의 생활과 활동을 보고 형상하는 긍정적 지향이 뚜렷해지고 심화발전되어가는것이다.

아동중편소설 《어깨동무》(리준길)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의 립장에서 중학생들의 혁명적 동지애와 우의에 대한 문제를 취급한 작품이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 중심주인공 김훈이 자기 아버지 김형진과 담임선생 송정심을 비롯한 어른들의 영향밑에 놀기 좋으면 친하고 수틀리면 차버리는 식으로 동무를 사귀는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갈수 있도록 동무와 집단을 진실하게 사귀고 사랑하여야 한다는것을 배우며 자기의 체험으로 깊이 느끼게 된다.

특히 훈이는 자기 아버지가 절연물연구를 위한 실험에서 엄중한 폭파사고를 일으키고 고민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전기공장의 오성민기사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뜨거운 동지애의 산 모범을 생활과정에서 체험하게 된다.

훈이의 아버지는 오성민기사가 실험에서 실패하게 되자 심히 락심하고 동요할 때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선에서 자기들을 소환하여 대학에 보내주시던 극진한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 절절하게 말하면서 새 힘과 용기를 내도록 고무해주었을뿐아

니라 새로운 절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좋은 첨가제도 연구해 넘겨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형진이 자기 동무인 오기사를 사상정신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숭고한 모습에서 김훈은 좋은 영향과 고무력을 받는다.

훈이는 또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장에서 과학원의 한 연구집단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새로운 열처리방법을 창조함으로써 혁신적 성과를 일궈냈다는 모범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고무적인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이것은 소설의 중심주인공이 우리 시대의 사회정치적 생명관의 싹을 어떻게 받아안게 되며 그 핵으로서의 혁명적 수령관의 골격을 어떻게 키워나가기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하고 귀중한 대목이다.

그리하여 김훈은 소년단 분단열성자로서 학습과 도덕생활에서 불량해가던 강호길에 대한 교양을 스스로 말아서 나라를 위해 손잡고 일해나가는 그런 친근한 어깨동무로 되는 아름다운 품성을 보여준다.

훈이는 락후하던 호길이의 학습과 생활을 적극 도와주며 소년단조직의 방조밀에 혁명적 동지애를 발휘하여 집단과 동무들을 위할줄 아는 기풍이 부족하던 자기 학급을 《영예의 붉은기분단》으로 끌어올리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김훈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 특징적인것은 담임 교원 송정심, 아버지 김형진을 비롯한 어른들의 공산주의적인 혁명적 동지애와 단결의 정신에서 배우며 신선호, 최성일 등 소년단원들의 동지적 우애심과 동지적 협조정신에 공감함으로써 집단주의적 생명관의 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품성이다.

이처럼 아동중편소설 《어깨동무》는 중학교 낮은 학년 아이들속에서 우리 시대의 특징인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생활의 진리가 어떻게 싹트고 형성발전되어가는가를 의의있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아쉽게 느껴지는것은 중학생들의 집단주의적인 사회정치적 생명관의 골격의 형성발전에서 그 핵으로 되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사상감정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심화되어가는가를 인물의 내면세계와 성격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폭넓고 선이 명백하게 펼쳐보여주지 못한것이다.

소설에서 우리는 주인공 훈이의 사상정신적 풍모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있는 그의 아버지나 담임선생 그리고 소년단조직의 핵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훈이에게 충실성의 사상감정이 성장의 골격으로 어떻게 자리잡게 되는가를 깊이 들여다보기 어려운것이다.

담임선생은 훈이의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좀 말썽을 일으키고있지만 그래두 내버려두어서야 안되지 뭐, 앞으로 함께 공부하구 함께

뛰놀뿐아니라 이담에 커서두 나라를 위해 손잡고 같이 일해나갈 그런 친근한 어깨동무로 되어야지.》

선생은 이렇게 훈이에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호길이를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소설은 이런 사상적 영향을 받은 훈이가 어떠한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가지게 되며 어떻게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는 사상정신적 양식을 받아들이게 되는가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지 못하고있다.

훈이는 학급동무들과 함께 호길이를 원산에 전학시키려고 하는 그의 아버지의 부탁을 거부하고 그를 자기 학급에서 계속 감화교양하게 된다.

생활과 형상의 논리로 보아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소설의 이 대목에서 훈이가 담임선생이나 동무들의 조언과 방조밀에 어떤것을 깨닫고 생각하며 당과 수령의 가르치심을 관철하려고 결심하는가를 명확히 볼수 있도록 성장의 폭과 형상의 심도를 파고드는데서 대를 세웠더라면 작품은 더 높은 인간학적 경지에 이르렀을것이다.

과학을 하려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폭넓게 그린 아동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박현)는 과학문제를 중심에 놓고 새 세대들에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주체의 세계관을 바로세우도록 지향하고있다.

소설의 중심에는 13살난 중학교 2학년생인 주창무가 서있다. 그는 물리에 류다른 관심이 있어 거듭되는 실패와 간신히고끝에 날아가는 배를 만들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된다.

그는 수산협동조합 고기배선장인 아버지와 일생을 배에서 늙은 《직사포아바이》, 학급담임인 순영선생, 권위있는 박사선생, 분단위원장 경호, 학급반장 준성이를 비롯한 분단동무들의 사상적 영향과 동지적 방조를 받아가면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과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대수과목을 6점 받던 아이로부터 전도유망한 어린 《발명가》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학생으로 자라난다.

과학자란 아직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것을 연구하고 창조하는 사람이다. 과학자는 망심에 티끌만한 가책도 받지 않게 성실하게 연구하는 사람이기에 주위에서 다 좋다고 하여도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것이 있으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만든것이라도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 이것은 아버지가 창무에게 늘 하는 말이다.

그의 아버지는 30마력의 배로 연안어업을 할수 있는 새로운 어로방법을 연구해냈으며 자기의 생명을 내대고 그 배를 구원하려다가 부상까지 당하는 핵심당원이다.

고아였던 아버지는 늘 창무에게 과학자가 되려면

칭찬이나 꽃다발을 바라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수 있는 마음의 준비부터 든든히 갖추어야 한다고 타일려준다.

창무는 아버지와 《직사포아바이》로부터 우리 시대 숨은 영웅들이 지녀야 할 인민적 품성과 혁명가적 풍모에 대한 교양을 받으며 담임선생으로부터 조직과 집단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도록 지도를 받는다.

순영선생은 혼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수중날개선과 송풍기없는 공기방석배를 만들려고 애쓰는 창무에게 자기 하나의 힘만 믿고 집단과 학교를 떠나서 혼자 제멋대로 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동무들의 충고와 조직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옳은 조직관념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창무가 이처럼 찾고 이처럼 존경한 로박사는 그에게 무엇을 위해 일생을 살겠는가 하는 결심, 참된 결심을 든든히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고무하면서 의미깊은 말을 한다.

《문제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송두리채 불태울 줄 아는 열렬한 심장을 가진 인간이 되는거다.

희망이란 참된 지향과 불굴의 노력을 합친것이 아니겠느냐. 어린 시절의 참된 희망이 없이는 보람 있고 값있고 즐거운 한생도 없는 법이다.》

박사는 10층짜리 집 맨꼭대기에 1층이나 2층을 거치지 않고 단꺼번에 정충 뛰어오르는 법은 없다고 말하면서 중학교의 공부는 다 필요한것이니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야 한다고 창무에게 가르쳐준다.

추진기의 1분간회전수를 계산하지 못하여(중학생으로서는 하기 어렵다) 수중날개선을 만드는데 실패도 하고 화약통의 압력을 계산할수 없어(이것도 중학생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얼굴에 화상까지 당하게 된 창무는 체험을 통하여 과학의 모든 기초를 쌓는것이 아주 중요하다는것을 절감하고 대수를 비롯한 모든 과목공부에서 열성을 다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게 된다.

소설은 틀에 박히고 융통성이 없이 공부를 하는 준성학생, 공부는 게을리하면서 출세공명의 요소가 많은 상고학생과 같은 아이들과의 대조속에서 창무를 형상함으로써 그가 모든 일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며 모든 일에 진지하게 파고들어 간고분투하는 좋은 성품을 키워가는 모습을 잘 형상하였다.

소설은 또한 과학탐구를 잘하는것이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이 다하지 못한 몫까지 합친 역사적인 과제를 새 세대가 수행하는것으로 되며 과학사업에 한생을 바친 로학자들을 뛰어넘는것이 새 세대앞에 맡겨진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것이라고 창무를 둘러싼 로세대의 입을 빌어 강조하고있다.

소설이 여운을 남기는것은 집단주의적인 생명관의 주추돌을 쌓아가고있는 창무를 비롯한 중요등장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진실하게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서정이 짙고 뜨거운 열정이 안겨오는 아동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는 이처럼 과학사업을 중심으로 새 세대앞에 제기되는 인간학적 문제를 밝히면서 창무를 다방면적으로 형상하여 그의 내면세계를 주체적인 집단주의적 생명관, 인생관의 주추돌을 쌓아올리는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과학기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제때에 문학형상으로 펼쳐보인 의의있는 작품으로서 좋은 사상과 감명을 준다.

그러나 소설 《너를 기다린다》에서는 선장인 아버지와 담임선생 순영이, 《직사포아바이》와 로박사 등의 보살핌과 관심, 학급집단의 영향밑에서 자라나면서 과학에 몸바칠 사람이 가져야 할 관점과 견해,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립장과 태도, 조국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옳바른 자세, 참다운 삶과 행복에 대한 옳은 견해 등을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있으나 창무소년이 쌓아올리고있는 사회정치적 생명관의 기초와 골격이 혁명적 수령관에 깊은 시원을 두고 성장하여간다는 선에서 형상의 대를 세워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낡은 배를 대담하게 기술적으로 개조하고 새로운 어로방법으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어깨를 들이밀뿐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대고 배를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아버지의 고귀한 모습을 보면서 창무가 경애하는 수령님과 조국에 대하여 느끼고 깨닫게 된것을 응당한 깊이에서 펼쳐보이지 못하고있다.

이와 함께 소설에서 박사선생이 창무에게 과학자가 지녀야 할 사상도덕적 풍모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가르쳐주고있으나 그는 과학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세계와 인간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서 핵으로 되는 고귀한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학자다운 견해를 나 어린 창무에게 감명깊게 심어주는 국면을 찾아볼수 없다.

이와 함께 창무가 그렇게도 머리를 쓰고 정력을 기울이고있는 수증날개선이나 각종 새형의 배들을 어찌하여 무엇을 위하여 만들려는가를 인민이나 조국과 결부시켜 더 명백하게, 더 목적지향성있게 결부시켰더라면 소설의 사상적 심도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감을 준다.

우리 아동소설문학은 이미 중편소설 《1학년생》(김정)처럼 인민학교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이 혁명적 수령관의 주추돌로, 기초로 지어지는가를 보여준 좋은 창작경험을 가지고있다.

소설은 누가 떠밀지도 않는데 전차들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는지, 무더운 날 아스팔트길은 어떻게 물렁물렁해지는지... 알고싶은것이 《하늘만큼》 많은 연령기에 처한 인민학교 1학년생인 금동이 어떻게 자기가 사는 평양의 사물현상들을 점차 폭넓게 인식하면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표상과 지각을 가지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소설은 금동이를 비롯한 인물성격들의 형상체계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11년제의무교육제도의 우월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인상깊이 그린 작품이다.

우리는 소설에서 나 어린 소년들이 아버지원수님의 동상둘레에 차돌을 깔아놓으려고 주변농촌에까지 찾아가서 가장 새하얀 차돌을 다섯개가 아니라 100여개나 가져다 까는것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흠모하고 우러러받들며 그 마음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을 더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기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소설은 이처럼 중학생도 아닌 인민학교 어린 이들속에서 형성되어가는 혁명적 수령관의 새싹을 그들의 주도적 지향으로 어린 아이들의 연령심리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하물며 중학시절의 연령에 이른 새 세대들의 생활과 활동을 그리며 그들의 집단주의적인 사회정치적 생명관에 기초한 인생관의 단면을 형상한 중편소설의 경우에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되는 혁명적 수령관의 골격이 서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상미학적 문제들을 주도적 사상감정으로 포착하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80년대의 새 세대전형창조의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아동소설창작에서는 동심에 맞게 특히 우리 시대의 동심에 맞게 쓰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설뿐 아니라 우리 시대 아동들의 성격창조에서 무엇을 주도적인, 가장 중요한 사상감정으로 삼는가 하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로 나선다.

우리 시대 아동들의 사상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가장 공고한 기초로 되는것은 그들이 옳은 주체의 혁명관을 세울수 있도록 그 핵인 혁명적 수령관의 골격을 바로 세우는것이다.

아동소설창작에서 혁명적 수령관의 골격이 서가는 본질적인 과정을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전진하는 우리의 아동문학에서 풀어야 할 긴급하고도 보람찬 과제이다.

이 중요한 사상미학적 문제를 형상적으로 잘 구현함으로써만 우리 시대가 아동문학앞에 제기한 관건적 문제를 푸는것으로 될것이다.

가사

금강산 조선의 산아

조영사

동해에 아침해가 솟아오르니
만이천봉우리가 빛을 뿌리네
봉이마다 흰안개 감돌아들고
골짜마다 폭포수 구슬 뿌리네

예로부터 명승이라 소문났지만
향도의 해발아래 더욱 빛나라
인민 위해 펼치시는 위대한 사랑

금강의 봉이마다 어려있어라

해와 별 빛나는 인민의 금강
어딜 가나 뜨거운 이야기 많네
수령님과 당의 품에 길이 누려갈
인민의 명승으로 솟아 빛나라

아, 아름다워라 금강산
천하절승 제일명산 조선의 산아

직선침로로 가는 길

김정남

정박의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아바나항구에 닿을 내린 선박들사이로 안내선이 굼니는 물결을 추진기로 차던지며 쏜살같이 달려가고있었다. 안내선이 사라진 뒤에는 또다시 고요가 깃들고 선박들에서 켜 여러 색깔의 정박등이 물위에 여러 바다에는 마치도 무지개처럼 현란한 물기둥이 배전밀에 뿌리를 박으며 세워지고있었다.

《연풍》호 선장 림방원은 조타실갑판을 거닐고있었다. 그는 한참동안 걷다가는 고개를 쳐들고 먼 하늘가로 시선을 보내곤하였다. 그의 시선이 가닿고있는 하늘가 멀리에는 조국이 있었다.

파도와 태풍의 항로우에 담을 키워오며 선장으로 30여년을 보낸 그에게서 이 밤처럼 생각이 깊어지는 처음이었다.

《연풍》호가 조국의 항구를 떠난것은 두달전이었다. 대양을 항행하는 항해가들에게 있어서 두달은 결코 긴 항해의 나날이 아니다. 림방원선장의 경우에도 그랬다. 어느해인가는 조국의 항구를 떠나 열두달을 넘기고 돌아온 때도 있었다. 그런 선장이 이 밤은 어찌하여 조타실갑판을 거닐며 조국이 있는 먼하늘가로 시선을 보내고있는것인가?

조국의 항구를 떠나 물결사나운 대만해협의 계절 태풍도 이겨내며 인디아양과 수에즈운하, 흑해를 지나 로르니아 끈쓰판자항에 들렀다가 이번에는 아바나항구에 정박한 《연풍》호, 이 항구에서의 정박기일도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 조국을 떠나 머나먼 항해의 길을 주름잡아달릴 때면 때없이 찾아오는 정적속에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림방원선장은 이렇게 갑판을 거닐곤하였다. 그의 눈앞으로는 출항을 앞두고 평양에 있는 집에 갔을 때 몸성히 다녀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던 안해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마음은 잊을수 없는 추억을 불러왔다.

조국이 없었던 그 세월, 림방원선장의 유년시절은 바람에 날리는 갈꽃처럼 기구하였다. 해풍에 고삭은 돛을 달고 바다로 나갔던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것처럼 왜놈이 경영하는 철공소의 노동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징병》에 끌려가 타향의 남방도시에서 숨졌다. 어머니마저 병에 걸려 걸음마를

떼는 아들을 남겨놓고 한많은 세상을 떠나갔다. 부모없는 림방원선장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조국이 해방되어 소년의 어린 가슴에도 해빛은 따뜻하게 비쳐오게 되었다. 조국은 그의 가슴에서 부모없는 고아의 설음을 가해주었다. 해빛 밝은 교실과 대학의 강의실, 그리고 넓은 바다... 조국은 그를 무역집배의 선장으로 키워주었다. 그에게 조국이 안겨준 사랑은 대를 두고도 못갚을 은혜였다. 그에게도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배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해 및 강하천 운수망을 더 늘리고 철도와 수상 운수의 현대수송을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대외무역수송을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는 충성의 배길을 멀리도 헤쳐왔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운 축전으로 맞기 위해 《연풍》호를 인디아양으로 몰아가던 그해 4월초의 어느날, 고국에서 보내온 전보문을 받던 그 영광의 날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연풍〉호 선장 림방원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경축 대표로 선출됨. 즉시 항로를 바꾸어 XX항구에 입항할것. 비행기가 준비되었음.》

조국은 그에게 크낙한 영광과 행복을 안겨준 것이었다. 인디아양에서 배머리를 돌리던 그날에 림방원선장은 조국이 안겨주는 사랑에 모든것을 다 바쳐 보답하리라 맹세를 다지였었다.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켜 그후에도 그는 항로를 주름잡아달리고 달리였다. 하여 두해전 어느 항차에는 리비아에 실고가는 화물수송에서 혁신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사문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후 계속 혁신을 일으켜 《연풍》호는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림방원선장은 추억에서 깨어나 갑판을 거닐고있었다. 열풍과도 같은 바람이 그의 넓은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회사에서 어떤 답전을 보내올것인가?)

《연풍》호가 로르니아 끈쓰판자항구에서 실은

화물을 베네수엘라항구에 부리우고 이 아바나항구에 정박한것은 닷새전이었다. 조국으로 실고가야 할 화물상선작업도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아바나항구에서 출항의 닻을 감아올리면 조국의 항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야 할 《연풍》호, 《연풍》호앞에는 두 항로가 놓여있었다.

빠나마운하를 통과하여 태평양의 직선침로로 가는 항로와 이미 달려온 대서양을 다시 횡단하여 유럽의 지중해와 수에즈운하 그리고 인디아양과 말라카해협을 지나 싱가포르항을 거쳐서만이 조국의 항구로 갈수 있는 머나먼 항로였다. 빠나마운하를 통과하여 태평양의 직선침로로 항해하지 않고 먼 항로를 택하여 항해하면 위대한 수령님탄생 75돐을 맞는 1987년 4월 15일전으로 조국의 항구에 가닿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그리운 조국으로 한시바빠 달려가 4월의 명절날아침에 그이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고싶은 선원들의 간절한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을 태워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빠나마운하였다.

방금전에 림방원선장은 아바나항구에 상주하고 있는 빠나마운하 대리인을 만나고 배로 돌아왔었다.

대리인은 빠나마운하지대가 미국놈들의 군사기지로 되어있고 운하도 그놈들이 조차지라는 명목으로 《관리》하고있기때문에 무사히 통과하려면 미국기발을 배에 띄워야 한다고 하였다.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었다. 림방원선장은 처음으로 빠나마운하를 통과한적이 있는 꾸바의 상선대의 선장도 만나보았다. 그 선장은 자기들의 배가 운하를 통과할 때에 미국군인들이 배에 올라와 횡포를 감행한 사실에 대하여 격분에 넘쳐 말하였었다.

생각에 잠겨서 갑판을 거닐던 림방원선장은 빠나마운하가 있는 저멀리로 시선을 보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갑문으로 련결해주는 빠나마운하, 이 운하를 건설한것은 빠나마인민들이었다. 운하를 건설하는데 수만명이 죽고 또한 불구자로 되었다. 빠나마인민들의 피땀으로 건설된 운하는 빠나마인민들의것으로 된것이 아니라 미국놈들에게 막대한 리운을 가져다주는 운하로 되었다. 미제는 운하지대를 군사화하고 운하의 관리운영을 독점하였다...

빠나마운하에 깃든 력사를 더듬고있는 선장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번쩍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발만을 휘날리며 빠나마운하를 통과해야 한다. 죽어도 살아도 조국의 존엄을 끝

까지 지켜내야 한다.)

두주먹을 지그시 움켜잡고 갑판을 거닐고있는 선장의 가슴에는 조국에 보낼 전보문이 다시금 한자 한자 새겨지고있었다.

《...우리는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끝까지 지켜내고 직선침로를 열겠음...》

선장의 결심은 선원들의 가슴에 불타는 신심을 안겨주었었다. 오직 한마음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 불타는 마음속에 출항준비를 갖추어가며 그들은 답전을 기다리고있었다.

상선작업도 끝나고 출항수속을 하면 아바나항구를 떠날수 있게 되었다. 림방원선장은 당직항해사가 가져온 항해일지에 수표를 하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기관장동무요? 기관준비가 되었소? ... 아직 답전이 오지 않았소... 기관은 문제없다. 좋소! 워 최몽치를 장만했다구? 하긴 그래. 미국놈들이 갑판에 게바라올라오면 최몽치가 제격일테니까.》

림방원선장은 허리를 젖히고 통쾌하게 웃으며 송수화기를 놓았다.

(최몽치를 만들었던 말이지? 최후의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미리부터 마음속에 준비하고있는것도 좋구말구...)

이때 1등항해사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선장동지, 답전이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소.》

《빠나마운하를 통과하는 문제가 간단할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운하를 통과할 때에 마스트에 미국놈기발을 띄울수 없는 그것ियो.》

1등항해사는 선장의 얼굴을 힐끔 바라보며 쭈뼛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차라리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일이 늦을지언정 대서양으로 돌아가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동무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먼곳으로 온것이 우리 배로 집을 실고가기 위해서만 온것 같소.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먼길을 왔겠소. 대양만리 그 어느곳이라도 갈수 있는 직선침로를 열기 위해 이렇게 먼길을 왔다는것을 왜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소.》

《하긴 그런데 운하를 통과할 때 미국놈들이 제놈들의 기발을 띄우지 않았다고 도발을 하면 그때에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수 있다는것을 생각해야지요.》

림방원선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있는 1등 항해사에 대한 언짢은 마음을 누르며 입을 열었다.

《우리는 빠나마운하가 미국놈들의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직선침로를 열어야 하오. 우리 힘으로 직선침로를 열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시오. 신심이 없으면 무엇이나 두려운것이요. 미국놈들에 대만해협에 <해상봉쇄선>을 치고 발악할 때에도 우리는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직선침로를 열었소.》

1등항해사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말없이 밖으로 나가는 1등항해사를 지켜보는 선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 누구보다 선장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주어야 할 사람은 1등항해사이다. 1등항해사는 선장을 대신하여 타를 잡아야 할 항해사이다.

그런데 그는 신심을 못가지고 약간이나마 동요하고있다. 무엇때문인가?

항해사가 지녀야 할 담력이 없어서 그러는것일까? 아니 그래서만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조국을 떠나 멀리에 왔어도 조국의 품에 안겨있다는것을 느끼지 못하고있다. 그때문에 신심이 없는것이다.

통신장이 조국에서 보내온 답전을 들고 들어왔다. 《...직선침로로 항해할것, 조국은 동무들을 지켜볼것이다...》

전보문의 글자들을 눈에 익히며 바라보는 선장은 흥분으로 설레었다. 그의 가슴은 바다처럼 넓어지며 조국의 기슭에 닿을 내리고있는 《연풍》호의 조타실에 서있는것만 같았다.

조국은 우리와 함께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그의 눈앞에는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빠나마운하의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고있는 《연풍》호의 모습이 우렁치 안겨오고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불별이 짹짹 내려쬐이는 한 낮에 《연풍》호는 닻을 감아올리었다. 뽀웅!- 우렁찬 기적소리로 아바나항구를 울리며 방파제를 벗어나고있는 《연풍》호의 기발게양대에서는 공화국기발이 펄럭이고있었다. 《연풍》호는 빠나마운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이윽고 《연풍》호는 빠나마운하의 첫 갑문으로 들어섰다. 조타실에 올라온 운하의 수로안내원은 겁먹은 눈길로 공화국기발을 흘끔흘끔 바라보다가

는 선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림방원선장은 수로안내원이 공화국기발을 보고 안절부절못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상선의 선장으로 일하다가 50고개를 넘어서면서부터 운하의 수로안내원으로 일하면서 미국놈들이 운하에서 감행하고있는 해적행위를 수없이 목격하였다는 수로안내원이었다.

선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1등항해사에게 침로를 제시하고있었다.

《키 가운데로!》, 《키 가운데로!》

전력기손잡이를 잡고있는 1등항해사와 조타수는 선장의 침착하고 담찬 목소리에서 힘을 얻기라도 하는듯 높은 목소리로 복창하며 지시대로 움직이고있었다. 배가 갑실 한복판으로 들어서자 조타실안의 공기는 다치기라도 하면 터질듯 팽팽해졌다.

선원들은 감시창앞에 뒤짐을 지고 서있는 선장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수로안내원은 담배연기를 뽀얗게 피워올리며 허둥거리는 눈길로 갑실옆을 흘끔 흘끔 바라보고있었다.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감시창앞에 서있던 림방원선장은 수로안내원이 눈길을 보내고있는곳을 바라보았다. 철갑모를 쓴 미국놈들이 갑실벽포대우에 걸어놓은 기관총구를 《연풍》호쪽에 돌려대고 주먹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고있었다.

(저놈들이 우리 배를 억류하려는것이 아닌가?...)

수로안내원의 겁먹은 애원의 목소리가 선장의 생각을 동강냈다.

《선장선생, 당신들은 애당초 미국기발을 띄우지 않은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보시오. 미국놈들이 기관총탄을 퍼부으면 당신들은 끝장입니다. 단정을 내리도록 해주시오. 나는 내려야 할것 같소.》

수로안내원은 목숨을 구원하려고 단정을 요구하는것이였다.

(배를 돌려세워야 하는가?...)

이 순간 림방원선장의 머리속에는 조국에서 보내온 전보문이 떠올랐다.

(조국은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림방원선장은 신심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는 주먹을 틀어잡고 구령을 내렸다.

《키 그대루! 항해 전속!》

선장의 목소리는 조타실안을 찌렁찌렁 울렸다.

마디마디 침착하면서도 담차게 올리고있는 선장의 구령에는 추호의 동요도 없이 배를 몰아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선장은 수로안내원쪽에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당신이 타고갈 단정은 준비되어있소. 그러나 아직은 서두를 필요가 없을것 같소.》

울상이 되어 선장을 쳐다보던 수로안내원은 머리를 싸쥐고 조타실바닥에 주저앉았다.

선장은 선원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우리는 미국놈들의 총탄이 날아온다고 해도 배를 한순간도 멈춰세워서는 안되오!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조국의 존엄을 지켜냅시다. 조국은 우리를 지켜보고있소...》

선장의 호소는 선원들의 가슴에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선원들이 갑판으로 달려나왔다. 그들은 마스트꼭대기에서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조국을 보고있었다. 사랑하는 안해와 아이들, 불밝은 거리와 마을, 조국을 떠나 멀리에 와있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되어 달려가 안기고싶은 정다운 항구, 사랑하는 조국이여! 그대와 함께 우리는 싸워 승리할것이다!

미국놈들은 덤벼들지 못했다. 무력행사로 위협을 가하면 배가 물러설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미국놈들은 마스트에서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보자 포대속으로 기여들어가고말았다. 이렇게 《연풍》호는 3개의 갑실들을 통과하였다. 조국에 보낼 전보문을 머리속에 새기고있는 선장의 눈시울에는 뜨거운것이 맺히었다.

《아버이수령님! 저희들은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빠나마운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이 있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림방원선장은 물기어린 눈으로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았다. 수로안내원이 선장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목메인 소리로 뇌이였다.

《당신들은 참으로 용감한 인민입니다. 나는 수로안내를 하면서 오늘처럼 가슴을 조여보기는 처음입니다. 큰변이 나는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가슴속에서 용솟고있는 담력이 어떻게 생겨나고있는지 놀랍습니다.》

《우리는 미국놈들과 싸워서 승리한 인민입니다. 저 기발을 보시오. 저 기발은 우리 조국입니다. 우

리 인민은 자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입니다.》

수로안내원은 감심어린 눈길로 선장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수첩을 꺼내더니 기념수표를 해달라고 했다. 수로안내원에게 수표를 해주고난 선장은 해도실로 들어갔다. 1등항해사가 태평양상의 해도를 해도탁우에 올려놓고 입을 열었다.

《선장동지, 제가 정말 청맹과니였습니다.》

《1등항해사동무, 우리는 미국놈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빠나마운하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렸소. 승리했단 말이요.》

고개를 숙이고있는 1등항해사의 마음을 풀어주려는듯 그의 어깨를 쳐주며 호탕하게 웃고난 림방원선장은 해도쪽에 눈길을 보내며 말하였다.

《1등항해사동무, 침로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소?》

1등항해사가 고개를 쳐들고 말하였다.

《침로를 직선으로 쭉 그읍시다.》

《하와이섬이 있는데도 말이요?》

《미국놈들이 뻔뻔스럽게도 가로타고 앉아서 주인공세를 하고있는 빠나마운하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렸는데 하와이섬이 문제입니까?》

《그렇단 말이지! 좋소! 우리의 침로는 직선이요!》

선장은 1등항해사의 손을 잡아주고나서 해도우에 침로를 쭉 그어놓았다.

×

《연풍》호가 정다운 조국의 항구에 입항한것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75돐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그날 부두에는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연풍》호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있었다. 《연풍》호가 입항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용감한 동무들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선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주시였다.

꽃다발을 흔들며 환영해주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보내며 부두에 올라선 림방원선장은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안고 항구도시에 모셔있는 아버지수령님 동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림방원선장이 한송이 한송이 다발로 엮은 그 꽃다발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꽃이였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항해의 나날에도 해풍에 시들기 넘려하며 창가의 온도를 조절해가며 정성껏 키웠은 꽃이였다.

실화문학의 문학적 품격문제

명일식

실화문학은 우리의 들끓는 현실생활을 제때에 기동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전투적인 문학형식의 하나이다.

최근 《문학신문》과 잡지들에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많은 실화문학들이 창작발표되어 우리 독자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실화문학에서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작가에 의하여 섬세하고도 구체적으로 형상된 감동깊은 예술적 화폭이다.

실화문학은 소설에서처럼 작가에 의하여 재창조된 인물과 예술적 허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간을 생동하게 그려낸 높은 형상속에서 감동깊게 보여줄것을 요구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은 또한 생활을 다양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야만 높은 형상속에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와 심오한 사상을 감명깊게 밝혀낼수 있다.》

실화문학에서 이야기되는 실재한 사실과 사건이 아무리 세인을 놀래우는 가치있는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작가의 높은 형상에 의하여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재현될 때만이 자기의 빛을 내게 된다.

실화문학이 소설과는 달리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물을 그대로 옮기면서도 실화와 다르게 독자들의 가슴을 크게 감동시켜주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실화문학에서 예술적 화폭을 감동깊게 그려내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실화문학의 문학적품격을 보장하는데서 관건적 문제로 된다.

실화문학이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적 품격을 갖추자면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감동깊게 그려야 한다.

실화문학이라 하여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간만 그대로 보여주고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생동하게 잘 그리지 않으면 산 인간의 형상을 보여줄수 없으며 결국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줄수 없다.

실화문학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자면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간을 보여주면서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깊이 파고들어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서 산 인간의 모습을 볼수 있고 생활과정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와 그로부터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와 심오한 사상을 감명깊게 밝혀낼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실화문학 《붉은 꽃》(리복은)에서 찾아볼수 있다.

실화문학 《붉은 꽃》은 이 세상 아름다움을 다 안고 붉게 피어난 충성의 꽃, 불멸의 《김정일화》를 깨긋한 량심과 심장으로 피운 일본의 원예학자가 모도데루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실화문학에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피어난 일본의 오사까산야에 대한 방불하고도 생동한 묘사를 비롯하여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나간 구성미 등 형상에서 좋은 측면들이 많다고 본다.

하지만 실화문학이 독자들을 더 기쁘게 한것은 진홍색의 아름다운 《김정일화》를 가장 깨긋한 량심과 뜨거운 심장으로 붉게 피운 주인공 가모 모도데루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동깊게 형상하고 그것을 통하여 심오한 사상을 감명깊게 밝혀주고있다.

실화문학 《붉은 꽃》을 읽고나면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피어난 과정에 있는 실재한 사실과 사건보다도 꽃에 바친 주인공 가모 모도데루와 그의 안해 후미코, 딸 도미코, 조수인 이찌에, 그리고 같은 원예가인 요시에까지 다 생동하게 보이며 그들의 마음속깊이에 자리잡은 티없이 맑고 깨긋한 량심과 뜨거운 심장의 고동소리가 귀기울이면 금시 들리는듯 울려오고있다.

그것은 작가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생활과정을 깊이 파고들어 생동하게 잘 보여주고있는데 있다.

주인공 가모 모도데루의 형상이 바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하여주고있다.

가모는 한생을 바쳐 꽃에 전업하는 이름있는 원예가이다.

그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처 고심하던 끝에 붉은색 계통의 꽃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진홍색의 진귀한 새 품종의 꽃을 육종해내었다. 하여 한생을 꽃에 바친 이름있는 원예가인 요시에와 가모의 안해인 후미코, 딸 도미코도 다 이젠 그 꽃에 조선 인민만이 아닌 온 세계 인민들이 우러러따르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존함을 올려 꽃의 이름을 명명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생각한다.

하지만 가모는 딸을 시켜 그 꽃을 화분 진열대 맨 웃단에 올려놓으라고 하고는 그것을 보며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아직 자기가 연구한 꽃이 《김정일화》라고 위인의 명함으로 불리울만큼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그 력사적인 순간을 한해 더 뒤로 미룬다.

가모는 자기가 연구한 꽃을 《김정일화》라는 위

인의 명함으로 불리우자면 그 꽃은 만민이 우리러 보는 높은곳에 놓여있어야 하며 따라서 위인의 품격에 맞게 되면서도 색깔도 더 정열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꽃을 완성하기 위하여 또다시 탐구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한것이 아니라 가모 자신이 택한 길이며 그의 심장이 호소하고 랑심이 가리키는 길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생동하고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가모가 얼마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한없이 우러르는 높은 존경심과 호모의 감정을 가지고있으며 또 그가 얼마나 티없이 깨끗한 랑심과 뜨거운 심장을 지닌 참다운 인간인가 하는것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있다.

가모의 깨끗한 랑심은 그의 안해 후미꼬와의 이야기과정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안해 후미꼬로서는 꽃을 나무랄데 없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남편의 높은 뜻을 이해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 남편에게 후미꼬는 이렇게 말한다.

《1년이상 또 걸리겠군요.》

가모는 안해의 그 물음에 자기의 심장속에서 우러나오는 랑심 그대로 대답한다.

《그이상 걸려도 나는 그 점을 완성해놓아야 하오.》

가모는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안해에게 《이 꽃이 완성되는 날 당신의 병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나보오.》라고 확신있게 말한다.

가모의 이 말속에는 만민이 우러러보는 위인의 품격에 맞는 진홍색의 붉은 꽃 《**김정일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꽃피우려는 그의 깨끗한 랑심과 신념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안해 후미꼬는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더없는 긍지를 가슴부풀게 간직하고 남편의 연구사업을 더 정력적으로 도와나섰다.

가모의 깨끗한 랑심과 뜨거운 심장은 로원에게인 요시에와의 관계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작품에서는 요시에와 주인공 가모가 서로 론쟁하거나 다투는 과정은 한번도 볼수 없다.

그러나 두 인간은 작품에서 심각한 대조속에 놓여있다.

두 인물은 다 한생을 바쳐서 꽃을 가꾸는 원예가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다른것이 있다면 요시에에는 70고령으로 스승격이고 가모는 50대로서 제자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근본 차이나는 대조적인 측면은 그것이 아니다.

가모는 한생을 꽃에 바치면서도 깨끗한 랑심과 뜨거운 심장으로 이 세상 가장 걸출한 위인의 존함으로 명명할수 있으리만큼 진홍색의 붉은 꽃을 피웠다면 요시에에는 그와 차원이 다르게 돈을 위해서 꽃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있는 원예가이다. 때문에 그는 첫 걸음부터 가모처럼 랑심으로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꽃을 택하

고 피워왔다.

필자는 이처럼 차원이 다른 두 원예가를 대조시키며 등장시키면서도 스승격이 되는 요시에가 가모의 숭고한 인간세계의 높이를 우러러보며 자기를 진실로 뉘우치며 돌이켜보는 과정으로 그림으로써 주인공이 지닌 깨끗한 랑심과 뜨거운 심장을 높은 차원에서 부각시켜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실화문학 《붉은 꽃》은 섬세하게 그린 인간세계와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피우기 위하여 자기의 랑심과 심장을 붉게 물들인 주인공 가모 모도데루의 형상을 진실한 화폭으로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이런 성과는 또한 실화문학 《불멸의 꽃》(류인섭)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실화문학 《불멸의 꽃》은 우에서 이야기한 실화문학 《붉은 꽃》과 똑같은 내용과 주인공을 취급하고있지만 문학적 품격을 잘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꽃피운 가모 모도데루에 대한 같은 이야기, 같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실화문학 《불멸의 꽃》은 우에서 레중한 실화문학 《붉은 꽃》과 다른 생활을 파고들어 주인공의 사상과 감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가모 모도데루가 수십년간 애써 연구해온 새 품종의 진분홍색꽃이 색깔에 있어서나 품격에 있어서 모두가 나무랄데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인의 명함으로 명명하자면 아직 부족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그 부족점을 완성하는 문제설정은 두 작품이 다 같다.

하지만 실화문학 《불멸의 꽃》에서는 그것을 이미 레중한 실화문학 《붉은 꽃》과는 다르게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학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여기는 주인공의 뜨거운 심장에 대하여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가모는 여기에서 자기가 연구한 꽃을 위인의 품격에 맞게 완성하는 문제를 단순히 자기 개인의 문제로가 아니라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작품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 45돐에 즈음하여 선물로 올리려고 오래동안 준비해온 **김정일화**를 가모 모도데루 자신이 한해 더 미루면서 안해 후미꼬에게 하는 말에 집중적으로 담겨져있다.

《후미꼬! 우리가 이 꽃에 기울인 우리의 심혼을 어떤분에게 바치자고 하는것이겠소. **김정일!** 그이의 존함은 20세기 현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 위대한 지도자의 존함이요. 력사는 그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게 될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한두해 늦어지는게 큰 문제가 아니요. 오늘뿐아니라 후대들앞에, 시대앞에 가장 훌륭한

롭하고 아름답게 완성시킨 꽃을 그이께 올려야 하는거요.》

가모의 심장은 이처럼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필자는 우에서 폐중한 실화문학 《붉은 꽃》에서와 같이 주인공이 안해에게 이야기하는 똑같은 대사형식을 쓰고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전혀 다르며 특색이 있다.

그리고 주인공 가모가 위인의 풍격에 맞는 꽃을 완성하기 위하여 최대의 성의를 다하는 과정도 그의 어머니의 높은 뜻과 결부시키여 새로운 생활로써 보여주고있다.

가모의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가슴속에 인류가 낳은 세계적인 위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흥미의 감정을 깊이 심어주었다.

가모는 어머니에게서 받아안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흥미의 감정을 단순히 자기 개인적 감정으로가 아니라 온 지구를 휘감아 흐르는 감정으로 뜨겁게 받아안았다.

필자는 이처럼 실화문학 《불멸의 꽃》에서 주인공 가모가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으로 여기며 위인의 풍격에 맞게 불멸의 꽃으로 완성하는 그의 사상감정이 움트고 자라나는 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 새로운 생활감정세계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보여주고있다.

실화문학 《불멸의 꽃》에서 필자는 또한 주인공 가모가 불멸의 꽃을 위인의 풍격에 맞게 완성하는 그 과정도 독특한 감정세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실화문학 《붉은 꽃》에서는 사람들이 이 꽃을 자기의 시선과 평행선에 놓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만민을 굽어살피시는 위인의 풍격에 맞게 깊은 뜻을 담고 색깔도 더 정열적인것으로 되게 하려는 가모의 높은 정신세계를 펼쳐보여주고 있다면 실화문학 《불멸의 꽃》에서는 생의 기원을 준 만물의 령장인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는것을 보고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령장의 붉은 색깔을 그대로 꽃에 옮겨놓으려는 가모의 높은 정신세계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섬세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만민의 마음속에 붉게 피울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혁명의 꽃으로 피우려고 온갖 심혈을 아낌없이 다 기울이고있는 바로 여기에 온 세계가 우러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더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가모의 깨끗한 량심이 있다.

실화문학은 이것을 그의 성격의 핵으로 하여 높은 형상속에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 심오한 사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실화문학은 같은 원형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있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생활감정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의 사상감정과 높은 정신세계를

더 의의있게 해명하여주고있는것이다.

련속실화문학 《생명선을 일떠세우는 사람들》(김형지)은 당정책적 요구를 제때에 기동적으로 잘 반영하여 나온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주목을 더 끈다.

어 실화문학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생명선을 일떠세우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동무들! 내 말이 들립니까》와 《점과 선》, 《꽃방석이 아니라 금방석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화문학 《동무들! 내 말이 들립니까》는 설날 아침에 있는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쓴 작품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의 비날론공장 방사직장을 맡아 건설하고있는 제51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방정혁이가 설날아침에 텔레비존화면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듣는것으로부터 실화문학이 시작된다.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친근하신 음성을 듣는 순간 방정혁의 가슴은 《쿵》하고 세차게 울리며 몸소 건설장에 오시였던 그날의 그 영상이 눈앞에 떠오르며 《동무들! 내 말이 들립니까?》고 하시던 그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것 같이 생각된다.

방정혁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던 그날부터 언제나 가슴속에 수령님의 그 음성을 그대로 깊이 간직하고있었다.

설날아침에도 방정혁은 그 음성을 가슴속에 간직 한채 건설장으로 나간다.

건설장에는 벌써 장릉운소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눈길도 쫓고 기계까지 돌리고있다.

이처럼 새해 첫날 첫 순간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마음속에 새겨안고 일하며 살고있는 이들의 생활을 통하여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순천로동계급의 높은 정신세계를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실화문학 《점과 선》에서는 설계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있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인 건물로 일떠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에는 로동계급들과 함께 많은 설계가들이 참가하고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크다.

설계가들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실화문학 《점과 선》에서는 장릉성이라는 책임심사원이 사실상 일을 많이 하였지만 기자에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내세우는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설계가들이 1만여동의 농촌문화주택을 지을만한 건설자금을 절약하고 80만공수의 로력과 2천립방메터의 목재, 1만여톤의 세멘트와 강재를 절약했다는 사실을 감동깊은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또한 실화문학 《꽃방석이 아니라 금방석을!》에서는 과학자들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실화문학은 사람들속에서 사랑을 받는 배우가 연출가를 존경하고 연출가는 작가를 존경하듯이 건설자들이 설계가를 존경하고 설계가는 과학자를 더 존경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명해주고있다.

실화문학은 새 공법에 의한 카바이드로 생산문제를 연구해낸 과학원 함흥분원 우수환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용광로와 함께 숨쉬며 살고있는 가슴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체시대 과학자들의 숭고한 풍모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실화문학은 시대의 앞장에서 생명선을 일떠세우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의 참다운 투쟁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감동깊은 화폭으로 잘 형상하고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실화문학들중에는 우에서 레증한 실화문학들에서처럼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실화문학인지 아니면 실화나 기사인지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작품들도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실화문학의 문학적 품격문제와 관련된다.

문학적 품격을 잘 갖추지 못한 실화문학은 생동하고 구체적인 예술화폭으로가 아니라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물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의 수준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실화문학에서 실재한 사실과 사건에만 매달려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의의있는 생활을 잘 밝혀낼수 없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적품격을 갖춘 작품으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문학신문에 련재된 실화문학 《래일의 거리에서》와 련속실화문학 《200일전투의 나날에》(한웅빈)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실화문학은 오늘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이며 1980년대의 대창조물로 일떠서는 광복거리의 벽찬 건설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실화문학들은 처음부터 마감까지 다 온 나라, 온 세계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대건설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취급하고있는것만큼 독자들의 기대도 그만큼 큰 작품들이다.

그러나 련재된 실화문학들을 읽고나면 기대와는 다르게 다음호에 나올 이야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이 실망하게 된다.

그 원인은 명백하다. 실화문학들이 문학적 품격을 잘 갖추지 못한데 있는것이다.

문학적 품격을 잘 갖추지 못한것은 우선 실재한 사실과 사건들을 그대로 라렬하고 산 인간의 형상이 부족한데서 볼수 있다.

문학작품에서 산 인간의 형상은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만 창조된다.

생활이 있으면 산 인간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생활이 빈곤한 작품에는 산 인간의 참다운 형상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물론 실화문학에는 사건을 기본으로 그리는 실화문학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건을 기본으로 하여 그리는 실화문학의 경우에도 아무리 기적적인 사건이라 하여도 그 사건 자체만을 보여주어서는 큰 의의가 없다.

실화문학은 말그대로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인것만큼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여주면서도 그속에 움직이는 산 인간의 형상을 감동깊게 보여주어야 하며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어야 한다.

산 인간의 형상을 보여주고 심오한 사상을 새롭게 밝혀줄 때만이 실화문학에 그린 사건도 더 의의있는것으로 된다.

일부 사건을 기본으로 하여 그린 실화문학도 있기때문에 사건만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 견해들은 실화문학의 문학적 품격을 잘 갖추게 하는데 인연이 없다.

그러므로 실화문학은 사건과 사실들만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생동한 형상과 인간생활을 잘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높은 형상속에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와 심오한 사상을 감명깊게 밝혀낼수 없다.

실화문학 《래일의 거리에서》와 련속실화문학 《200일전투의 나날에》의 경우가 그렇다.

실화문학 《래일의 거리에서》는 《단숨에 굿자!》, 《행복의 눈동자들》, 《명랑한 무대》, 《천태만상》의 네개의 소재목들로 나누어져있다.

필자는 실화문학에서 대기념비적으로 일떠서는 광복거리 대건설장의 모습을 한두 인물들에 국한시키지 않고 크게 100미터 폭을 가진 대도로, 교예극장, 청춘거리와 같은 큰 대건설장들별로 나누어 화폭을 크게 펼치어서 보여주려고 의도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실화문학에는 실재한 사실과 사건들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한 좋은 측면들도 있다.

그러나 실화문학에는 산 인간의 형상을 보여줄만한 생활이 없고 사건들만 라렬하여 보여준데 그치고만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단숨에 굿자》에서처럼 광복거리의 도로축으로 100미터 폭으로 15리의 도로가 형성되며 그 도로에는 동시에 20행렬로 자동차들이 달릴수 있다는 사실과 이 도로를 립호일동무가 사업하는 청년건설련대가 7만산 대발파로 장훈을 부르고 뒤이어 교량청년련대에서 10만산 대발파로 제4봉우리를 날려보내고 광복거리건설기동련단의 운전수들과 기계화초병들이 제2봉우리와 3봉우리를 《무쇠주먹》으로 내리눌렀다는것밖에 없다.

실화문학에서 독자들은 실재한 사실과 사건도 보아야 하지만 더 기대하는것은 그것을 감동깊은 예술적 화폭으로 재현한 생활이며 그속에서 우러나오는 심오한 사상이다.

그러나 《단숨에 굶자》라는 소재목만에는 그러한 생동한 형상이 부족한것이다.

100미터 폭의 대도로축을 단숨에 형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면 여기에서 봉우리의 수자나 60여개의 수직갱의 수량과 그 결과를 알려주는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실화문학에서는 그것보다도 어떤 인간들이 어떠한 생활속에서 무슨 힘에 의하여 그런 기적을 창조하였는가 하는것을, 다시 말하여 구체적인 생활과 그 생활속에서 움직이는 산 인간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두명의 인물이 아니라 많은 인물들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등장하는 때 인간들의 얼굴이 뚜렷이 보이게 생동하게 잘 그려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높은 형상속에서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수 있게 생활을 잘 그리지 못하고있다. 때문에 다음 제목인 《행복의 눈동자》에서도 평양시건설의 기본주력군인 《중구종합》의 일군들은 초급당비서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125%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성차지 않아한다는것과 또 제대군인들이 다기능공이 되어 한몫 한다는것, 앞으로 대형화 마감화된 부재를 조립하며 건설속도를 높인다는 상식적이며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더 보여주지 못하고있다.

그런 부족점은 다음 제목인 《명량한 무대》에서도 볼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예극장이 일반교예는 물론 빙상교예, 수중교예, 동물교예를 연속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3,500석의 대교예극장이 건설된다는것과 군인건설자들속에 신포시에서 광복거리 건설장에 휴가를 바치려고 달려온 60여명의 처녀들이 일손도 돕고 조선인민군창건 기념일인 4월 25일 아침에 명절상을 차리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이지 산 인간을 보여줄만한 높은 예술적 형상과는 거리가 멀며 마치 공산주의교양기사의 한토막을 읽는것과 같은 인상밖에 더 주지 못한다.

마감제목인 《천태만상》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의 말씨와 사투리들을 다 들을수 있고 온갖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다 만날수 있는 안골의 한 골짜기에서 세인을 놀래우며 빠른 속도로 일떠서는 현대적인 체육시설들에 대하여 비교적 재미있게 이야기하고있지만 역시 여기에도 감동깊은 예술적 형상은 부족한것이다.

이 작가의 다른 실화문학인 연속실화문학 《200일전투의 나날에》도 이와 유사하다.

실화문학은 광복거리 건설장의 이모저모를 보여

주고있지만 실재한 사실과 사건들을 전달하여주는 데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때문에 실화문학은 좋은 묘사대상들을 취급하고있지만 형상이 부족하고 산 인간의 숨결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생동한 예술적 형상이 부족한 실화문학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와 심오한 사상을 감동깊게 밝혀낼수 없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일이다.

산 인간의 형상이 없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신문같은데서도 얼마든지 볼수 있는 사실이다.

실화문학에서 문학적인 품격을 잘 갖추자면 실재한 사실이나 사건, 아름다운 소행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감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 다시말하여 높은 형상속에서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생동한 예술적 화폭을 그려내야 한다.

사실상 광복거리 건설장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인 창조물인것만큼 실화문학의 소재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것은 없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필자는 세인을 놀래우며 일떠서는 건설장의 실재한 사건과 사실을 보여주는데만 치우치고 실화문학의 문학적 품격에 맞는 감동깊은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지 못하였기때문에 결국 좋은 소재를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였으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실화문학으로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실화문학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실화문학으로서 문학적 품격을 갖추자면 실재한 사실과 사건자체도 뜨거워야 하지만 높은 예술적 형상속에서 절실한 문제와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어야 한다.

일부 그릇된 견해에 의하면 실화문학을 다른 형식의 문학작품들보다 쉽게 생각하고 낮은 수준에 있는 문학형식으로 홀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것은 심히 잘못된 견해이다.

실화문학은 철저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작품이며 우리의 현실생활을 가장 민감하게 제때에 반영하는 전투적인 문학형식이다.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간들을 그대로 취급하고 있는것만큼 높은 예술적 형상과 심오한 사상을 뚜렷이 밝혀주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적 품격을 갖춘 훌륭한 실화문학은 소설이나 시작품에 못지않게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시킬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더 벽차게 진행되고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 많은 실화문학작품들이 요구된다.

우리 작가들은 실화문학에 대한 옳은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민감하게 제때에 반영한 문학적 품격을 훌륭히 갖춘 사상예술성이 높은 실화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학교가는 딸에게

한호

네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던 일
엇그제 같은데
송이야, 네가 벌써 커서
학교에 가구나

학교에 가거들랑
한학급 한책상 동무들과
언제나 친숙하거라
선생님 말씀 귀담아 잘 듣고
공부 착실히 하거라

빨간 책가방을 메고
좋아라 집문턱을 넘어서는 너의 앞에
꽃들이 함함이 피어 웃고
벌 나비 날아드는
얼마나 찬란한 길이
펼쳐졌는지 아느냐

해빛 눈부신 학교
수삼나무 설레는 교문을 지나
화강암 하얀 배움의 층계를 오르며
네 키가 자라고
네 마음이 자라고
네 힘이 될 지식이 자라려니

송이야 글 한자를 써도
네 마음이 비끼게 곱게 쓰고

숙제문제 하나를 풀어도
과학의 지혜와 예지로
올라야 할 봉우리 많은 우리 조국에
기쁨이 피고 믿음이 되게
알심있게 풀어라

아, 해와 별 찬란한 우리 조국
자라나는 너희들을 믿어
강줄기마다 언제를 높이 쌓고
지도가 변모되게 새 땅을 늘쿠고
아름다운 집들을 하늘높이 세우며
더 휘황한 설계도를 그리거니

송이야!
나라에는 보배가 되고
과학에는 밝은 눈이 되고
인민에겐 참된 딸로 자라기 바라는
아버지의 축복을 안고
어서 학교로 가거라

어서 가거라
네 이제 자라 어머니가 되어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그때면 다 알라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사랑 깊은 것이었는지
조국이 열어준 길이
얼마나 넓고 끝없는 것이었는지

내 마음속의 조선

웬 리 번 아잉

고도를 뚫춘 비행기는 날개를 저으며 평양에 인사를 보낸다.

시창밖으로는 하늘에 닿은듯한 초고층건물들의 기묘하고도 웅장한, 한쪽의 그림같은 현대적 도시의 전경이 안겨온다.

나는 격동되어 저도 모르는새 부르짖었다.

《축전도시 평양이다! 조선이 보인다!》

마음은 한없이 설레이는데 불현듯 나의 머리에는 아득한 어린 시절 소학교 녀선생이 읽어주던 시구절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결기한 조선에 대하여 웰남의 유명한 시인 또 히우가 쓴 시였다.

조선의 어린이야

네 어머니는 어디 갔느냐?

황황 타버리는 불길속

그 어디에서 네 어머니를 찾겠느냐?

저기 쓰러진 시체는 그 누구냐?

온 도시가 폐허로 되었구나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혹시 저 폐허속에

참혹한 시체로

뒹구는것이 아니냐

...

녀선생의 사랑송은 우리 마음들을 울렸었다.

그때 우리는 이 지구상의 온갖 민족들을 다 알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다.

하지만 시속에 절절히 어린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 감정은 하나의 선물처럼 우리의 심장을 울렸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피묻은 손을 뻗쳐 아름다운 조선에서 행복한 생활을 파괴하였으며 우리 웰남에서도 참혹한 파괴를 계속하였다.

우리는 서로 처지가 같았다. 얼마나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시에 나오는 조선의 어린이들처럼 고통에 몸부림쳤던가.

이로부터 어린 나의 마음속에는 조선이라는 두 글자가 어느덧 국제적 단결에 대한 잊을수 없는 자욱으로 새겨져 이 지구상에서 행복과 평화, 독립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 때부터 조선이라는 두 글자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리 웰남과 다를바 없이 전쟁으로 하여 황폐화된 채더미만 남은 이웃마을의 형상이 떠오르곤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조선은 악몽같은 폐허를 가셔버리고 채더미우에서 웅장화려한 락원의 모습으로 솟아올랐다.

채더미우에 솟아오른 평양은 내가 돌아본 그 어느 유럽나라들의 도시들보다 더 현대적이였다. 어느덧 축전대표들을 실은 빠스는 축전마을로 알려진 광복거리에 도착하였다.

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위용스런 건축물들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모든것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더구나 동방에서 제일 높은 호텔인 105층 류경호텔은 그 어느것보다 유표하였다.

대표단안내를 맡은 대학생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웅장한 13차 축전대상물건설을 직접적으로 령도해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십니다. 그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수십만평방메터면적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길이가 15리나 되고 폭이 100미터인 광복거리도로를 단 2년동안에 건설하였습니다.》

2년! 조선동지들의 로동의 힘과 지혜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나는 참으로 놀라왔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5대륙의 축전대표들은 누구나 다 놀라움과 찬

탄의 목소리를 금치 못할것이다.

대표단에는 우리 웰남에서 공청건설장이라고 불리우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인 쑹다수력발전소 지하발전소건설기업소 지배인인 켄토쯔동지가 들어있었다.

기업소에서는 16키로메터의 물길을 뚫고 지하에 큰 발전기를 설치하여 거기에 물을 끌어넣는 일이 제일 큰 난관이었다. 이 작업에는 근 3,500여명의 기능공들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켄토쯔동지의 지시를 받았다.

나는 기자로서 쑹다건설장을 방문할 때마다 지배인의 굴함없는 투쟁의욕과 기술소유정도에 감탄하곤 하였다.

그가 로력영웅칭호를 받았을 때 나는 그를 취재하면서 어디서 교육받았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는 조선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었다고 자랑스레 대답하는것이였다. 그래 나는 웃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그럼 동지야말로 웰조천선의 귀중한 산아예요!》라고...

켄토쯔로력영웅동지야말로 웰-조천선의 뚜렷한 표상으로 된다.

13차 축전의 해인 올해 설날부터 쑹다수력발전소에서는 1호발전기가 조업을 시작하였다.

발전소를 뒤덮은 고압선의 숲을 볼 때마다 나는 발전소건설을 물질기술적으로 도와준 소련의 벗들과 동시에 우리에게 켄토쯔와 같은 훌륭한 간부들

을 양성시켜준 조선에 대한 감사의 정을 누릴길 없었다.

13차 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오늘에야 나도, 그도 조선동지들에게 감사의 정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이 뜨거운 감정은 세계5대륙청년들과 조선과의 련대성속에 숨배인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다!

특히 묘향산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고 더욱 그에 대해 똑똑히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외국의 국가수반들과 세계인민들이 드린 지성어린 선물은 실로 셀수 없었다.

하나하나의 선물은 조선과 세계의 벗들을 련결시키는 귀중한 마음이었으며 굳은 친선단결의 련결대였다.

오늘 조선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주최하는 나라로 되었다.

13차 축전은 장엄하고도 화려하게 막을 열었으며 그것은 우리같은 아시아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우리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여기서 보고 들은 모든것들을 조국에 돌아가 우리 인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겠다.

우리 두 나라의 친선단결은 영원히 푸르고 영원히 공고할것이다.

(필자는 웰남소년신문 부주필이며 소설가임)

평양

아베라 레마

그대는 솟아오르는 태양
빛나는 새벽이여라
그대는 우리 마음 터놓게 하고
참다운 사랑을 간직케 하여라

그대는 솟아오르는 태양
만발한 화원이여라
그대는 평화의 상징
한떨기 런꽃마냥 황홀하여라

그대는 솟아오르는 태양
동방의 해불이여라
그대는 아름다움의 극치
모두에게 삶과 활력을 주는 샘이여라

(필자는 에티오피아작가협회 총서기이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에티오피아대표임)

나의 담임선생님

리일섭

내 군복 입고

휴가길에 찾아온 정든 모교

못내 기다린듯 달려나와

두팔 벌려 반겨맞아주시는

아 꿈결에도 못잊던 나의 담임선생님

금방 교단을 나서신듯

백목가루 묻어있는 하얀 손으로

금빛 각줄 빛나는 이 어깨를

쥘이 벌게 툇 붙거진 두손을

그리도 다정히 어루만지시는 모습

힘들지는 않는가고

왜 편지를 자주 하지 않는가고

고향과 동무들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이 더없이 귀중한 조국애라고

오늘도 걱정부터 앞세우는 마음

변함이 없구나

어느덧 귀밑엔 백발이 성성해도

야영의 날 등산길에 다리절면

성냥딱총 놓아주던 부드러운 그 손길

때로 해저무는 강변에서 숙제공부 잊은 나를

그토록 엄하게 불러세우시던 그 음성-

학급의 동창인 순이는

얼마전 첫딸을 보았다고

...헌데 대학까지 나온 옥희가

벌써 가정에 파묻힌걸 보면

아마도 내 잘못이 큰것 같다고

안경쟁이 철수는

요즘 학위론문을 준비한다고

...그런데 드문드문 편지 오는걸 보면

아직도 의지가 나약한것 같아

이번 출장길엔 꼭 들려봐야겠다고

수업전 출석을 부르듯

졸업생들 모두를 잊지 않으시고

한명한명 그 이름 불러

오늘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며

뜨거운 진정을 다 바치는 선생님

언제나 교문을 나선 제자들이

당과 혁명 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한생을 부끄럼없이 빛내도록

삶과 인생의 값높은 진리를

자옥마다 가르쳐주는 스승의 모습이여

그때문이 아니던가

머리흰 장령도 박사도

그 어떤 급별의 수훈자들도

그 모습앞에서만은 머리숙여

선생님이라 불러 존경하며 따르는것은

아, 철없던 시절에 시작된

그 수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듯

그 강의는 오늘도 계속되는듯

내 군복입고 휴가길에 들렀어도

책가방 메고 교실에 들어선것 같구나

산원의 꽃

-안혜의 이야기-

조영식

꽃이랍니다
꽃이라도 고운 꽃이랍니다
바치는 그 정성엔 향기도 그윽해
꽃이라도 뜨거운 꽃이랍니다
보시라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이제 산원의 억만보석 밟는 소리 들리면
조용히 은빛 출입문이 열릴거예요
그러면 흰옷입은 선녀인양
그 처녀 웃으며 분수가에 나올거예요

우리 아기 담당간호원
그를 두고 꽃이라 함은
얼굴이 고와서만 아니랍니다
마음도 비단이지만
그가 하는 일 좀 들어보세요
바람소리 높아도 달려오고
울음소리 낮아도 달려와
웃어도 방긋
누나처럼 살뜰하고

어머니된 그 심정
아기의 숨결 지켜
온밤을 꼬박 새워도
색색 잠든 그때엔
기쁨담아 호...

그 향기 가슴가득 넘치여
그 향기 호실마다 풍기여
피어난답니다

어머니들 행복의 미소
복스런 아기들의 웃음이

다 안답니다
어제날 조국의 초소지켜
피도 살도 바쳐온 처녀
군공의 땀배인 가슴우에
당원의 영예지닌 그 자랑을

누구나 안답니다
하늘같은 인간사랑에 목매여 목이 메여
은혜로운 삶의 품 우러러
효녀의 지성 다하는 그 마음을

아아, 그 처녀야말로
어머니당의 품에
정갈한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모든것 키웠기에

살뜰한 정 웅심도 깊고
아기처럼 웃음도 많아
한계절만 아니 피고
사시절 피고핀다고

그를 보면 향기 짙게 풍기는듯
정넌친 고마움이 커
하나같이 이르는 말이랍니다
사람을 제일 아끼고 위하는 정성의 꽃이
세상 꽃중의 고운 꽃이라고

고구려의 옛산성에 올라

한가위이다.

물찬 제비들이 하늘을 높이 들고 올라간다. 소슬바람은 구름더미들을 데려가고 살진 대지엔 오곡이 물결친다.

좋은 날 이 아침 나는 고구려때의 옛산성을 찾아왔다. 단풍의 불길이 덮쳐든 성벽우에 올라서니 평양의 수려함이 한눈에 안겨온다. 오늘은 어데서나 민속놀이가 한창일것이다. 그중에도 이곳 대성산성에서 즐기는 민속놀이는 더 한층 이채롭다. 명암대조가 뚜렷하고 선이 날카로와보이는 가을날의 경치에 정말로 어울리는 민속놀이이다.

나는 민속놀이를 즐기는 대성산성의 사람들과 함께 고구려의 옛성터를 거닐며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의 우리 나라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시대였습니다.》

성벽아래 누운 골짜기에서 환호성을 타고 그네를 탄 녀인이 새매처럼 날아오른다. 녀인은 눈썹리 모자라는 아아한 허공에서 반짝반짝 빛을 던지는 은방울을 흰 버선발로 슬쩍 건드려 《팔랑!-》 소리를 울린다.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 성벽우에 있는 나를 쌍그네에 태워 데려가려는듯 마주섰다. 녀인은 박속같은 이를 드러내며 발췌 웃더니 아득히 먼곳으로 떨어져내린다. 이어 점이 되어 사라지며 내 눈에 아지랑이를 피운다. 내 마음은 그 공간속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나의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추억이 떠오른다. 그 추억의 첫 지점은 언제나 나의 동요시절이 흘러간 고향마을이다.

내 자라던 고향마을엔 기막히게 찬 샘물이 있었다. 겨울에는 입김같은 물안개를 문문 피여올리고 한여름엔 내장이 쨍하게 얼어드는듯한 시원한 샘물이었다. 이 샘물때문에 린근 마을은 물론 멀리서 찾아오는 길손들까지 우리 마을을 약물터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집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약물터사람》, 《약물터마을아이》로 불리웠다. 유년시절 이웃동네의 애들과 씨름에서 내가 이지기만하면 리인민위원장아저씨까지 《약물터애들이 괜찮아, 힘이 세거든.》 하고 꺾꺾 웃으며 잔등을 두덕두덕 두드려주시었다. 어쨌든 마을이름도 듣기 좋았지만 그 이름으로 칭찬을 받을 땐 어른도 아이들도 어깨가 으쓱해지곤했는데 이 샘물이 더 한층 유명해진건 그네와 씨름판때문이었다. 샘물옆에는 넓은 모래볼과 아름답리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날씨 좋은날 저녁무렵이면 여기서 어른이고 아이들도 다 펼쳐나 씨름과 그네뛰기로 흥성이곤했던것이다. 그러다도 썸가에 모여앉아 이야기판을 벌리

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다녀간 사람들은 이 샘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으며 샘물에 깃든 전설까지 알고갔다. 우리 마을의 그 샘물엔 이런 전설이 담겨있다.

이 약물터동네는 고구려때 경당으로 오는 젊은이들이 류숙하던 20여호 남짓한 초가마을이었다. 마을은 뒤쪽으로 용수골이라고 불리우는 절묘한 깊은 골짜기를 두고있었는데 여기엔 고구려의 경당이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마을의 샘물을 마시고 경당으로 들어갔던가.

645년 5월 외래침략자들이 고구려를 침노하였을 적에 한 적장은 우회로를 타고 고구려의 중심길으로 들어왔다가 패주의 일로를 걸어 이 약물터마을에 이르렀다.

피뿔의 저녁황혼을 등에 지고 마을을 지나가던 적장은 동구밖의 샘물앞에 이르렀다. 때마침 샘물터에는 마을의 한처녀가 방금 그네에서 내려 땀을 들이고있었다. 패전의 공포와 갈증에 시달리던 적장은 처녀를 보자 욕욕과 피를 보고픈 잔인성이 끓어번졌다. 적장은 장검을 뽑아 머리우로 추켜들었다. 허공에 눈부신 섬광의 동그라미를 그리던 적장의 검이 처녀의 목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웬일인지 하늘을 찌르며 굳어지고말았다. 샘물에 비친 처녀의 얼굴을 내려다 보던 적장의 살기찬 눈에는 그가 세상에 태어나 아직 한번도 본일 없는 아름다운 처녀가 비껴있었던것이다. 처녀의 얼굴은 마치도 맑은 샘물우에 방실 뜬 연분홍의 모란송이 같았다. 무모하고 조폭하기가 이를데없는 적장이였지만 그로록 아름다운 처녀의 목을 베인다는게 무섭고 손이 떨리는 일이었던것이다. 허나 들었던 칼을 그치는 내리는 법이 없다는 이 무도한 적장은 검을 후리고야말았다. 순식간에 그가 탔던 말의 대가리가 땅에 떨어지고 적장은 샘물앞 개울가에 구겨박힌채 까무라치고말았다. 그리고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처녀는 꼼짝않고 앉아있었다. 샘물을 내려다보는 처녀의 눈에는 자기 얼굴이 아니라 안경이로 상대를 허공중 들어올린 마을의 젊은이가 담겨있었다. 이것은 물론 허황한 전설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설로 되는 리유는 지금도 고구려 처녀의 얼굴이 샘물에 담겨있다고 하기때문이다.

정말일까? ...마을을 다녀가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샘물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곤했다. 그러나 처녀의 얼굴은 없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샘물엔 처녀의 얼굴이 아니라 느티나무에 매여진 그네줄이며 씨름판이 그림처럼 담겨있을뿐이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다. 그때문에 샘물터는 언제나 흥성거렸다. 오월수리는 물론이고 풍요한

가을에 찾아오는 한가위에도 마을사람들은 정성껏 지은 약밥들을 낫바리에 무독히 담아 함지에 이고 이곳에 나와서는 달맞이구경까지 하곤했다. 그런 밤이면 둥근달을 슬쩍슬쩍 건드리며 마을의 이 장 끝집아저씨가 부는 통소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 물드무에 잘 영근 바가지를 얹어놓고 나의 어머니가 동동동 올리시던 《도라지》며 《돈돌라리》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던 마을사람들을 보는건 더 재미있었다.

나와 우리 조무래기들은 마을사람들의 이 즐거운 민속놀이가 신비스럽게만 보였다. 하여 잠도 많고 꿈도 많았던 철부지시절이었지만 마을 어른들과 함께 이런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그런 밤이면 제법 어른이 다 된듯싶었다. 두손으로 턱을 고인채 별처럼 초롱초롱한 눈을 깜박이며 환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그런 때면 우리가 불쑥 커지는듯했고 하늘까지도 좁아보이곤했다. 이쯤 되면 마을의 좌상할아버지는 세월의 묵은 이끼를 들추고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었다.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좋은 민속놀이를 많이 해왔느니라. 농악이나 탈춤, 강강수월래, 화전놀이, 다리밟이, 불꽃놀이같은 놀이는 물론이요 방안에서 승부를 겨루는 장기, 바둑, 고누, 윷놀이같은 겨루기놀이도 많이 했지. 그런중에도 경기놀이를 제일 많이 했다. 경기놀이가 뭐가? ...아 그거야 씨름, 널뛰기, 그네뛰기, 줄당기기, 활쏘기, 말타기, 장치기, 해불싸움, 돌팔매놀이같은것들이지. 먼 옛적에는 강한 의지와 용감성을 키우는 택견과 수박화가 있었느니라. 이런 민속놀이야말로 의지력과 견문을 넓히고 사람을 만드는 좋은 놀이지. 이렇게 좋은 놀이는 다른 나라에 없어. 그래 너희들은 무슨 놀이가 좋으냐?》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 조무래기들은 앞을 다투어 재깅거렸다. 저마끔 제가 좋아하는 놀이를 주어대기다. 팽이치기, 연피우기, 썰매타기, 줄넘기, 숨바꼭질놀이, 공기놀이, 바람개비놀이...그러면 할아버지는 은빛수염을 들쭉거리며 웃었다. 그리고는 마을사람들이 다 모여들기를 기다리며 두눈을 슴벅거리다가 고구려처녀의 이야기로 말끝을 여물구곤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왜 고구려처녀의 이야기로 말끝을 맺곤했는지 우리는 미처 알수 없었다.

그후 어느날엔지 마을 어른들이 일터로 나간참에 씨름장에 나간 우리 조무래기들은 한판에 몇명씩 뛰어들어 붙잡고 돌아가며 그야말로 넘어뜨리기 복닥판을 벌렸다. 한동안 분주탕을 피우다가 기운들이 죄다 빠져버리자 우리는 썸물터로 내려갔다. 그때 나는 물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멍청하니 서서 썸물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때 나와 조무래기들의 귀에는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났던것이

다. 그러나 썸물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그것은 그네줄과 아름드리 느리나무줄기였다. 그러나 뭔가 더 있을것만 같았다. 허나 이번엔 지붕우에 박열린듯 우리 조무래기들의 얼굴이 짙 들어차 한들거린다. 그다음엔 잔모래를 바글바글 끓이며 풍풍 솟구치는 썸물이 보인다. 흰 차돌바탕 째새기들로 흰모래를 뿜어내며 솟구치는 썸줄기, 썸터를 초록색으로 둘러감은 이끼들, 그저 그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의 한복판에 넘적 엮여 썸물을 얼없이 들여다보는 나를 띠여본 어머니는 주름살을 펴며 환히 웃었다.

《뭘 보느냐?》

《어머니, 고구려누나가 있다는데 왜 안보이나?》

《넌 아직 어려서 그런다. 좀더 커야 해.》

《?!...》

나는 어머니의 말이 리해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보구 눈이 밝다고 하시며 바늘실을 쥔 때마다 늘 내 손을 빌리지 않았던가. 하긴 썸물에 비친 처녀의 얼굴을 보리라고 나자신 믿지는 않았지만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30여년, 이제는 나의 눈귀에도 잔주름이 잡히고 귀밑으로 흰서리가 스치고 지나갔다. 당의 해발속에 민족전통이 꽃피는 이 좋은 때 대성산의 옛성터를 발목이 시도록 걷고 성루에 올라 그네뛰는 너인을 보느라니 고향의 썸물이 또다시 눈앞에 안겨온다.

지난해 한가위날 고향으로 들어설 때 나를 먼저 맞아준 마을 젊은이들이 왁작 뿜던 씨름판이며 너인들의 그네뛰기가 생각나서인가. 아니면 저 대성산의 유희장에서 널뛰기를 하는 처녀들, 바람개비를 돌리며 연피우기를 하는 꽃같은 아이들, 바줄당기기를 하는 평양사람들의 구리빛 얼굴이며 선녀마냥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네뛰는 너인들의 모습이 황홀해서인가.

내 오늘 고구려의 옛산성에 올라 고향의 썸물을 그려보니 그속엔 어려있구나. 이 땅에서 생겨 이 땅에만 있는, 세월의 한끝에 가셔도 변함없이 이 땅에만 있을 그 소박한 그네줄과 모래불 하얀 씨름판이!

물에 비친 그 자태는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으려니 그대 세상에 물처럼 유약한것이 없지만 물처럼 강한것도 없다.

고향의 썸물은 오늘도 사랑살랑 넘어난다. 한방울의 물방울엔 우주가 비끼듯 내 고향의 썸물엔 이 나라, 이 인민의 슬기와 존엄이 아름답게 비껴있다. 또다시 그네줄이 날아오른다. 점으로 보이던 너인이 가을하늘을 짙 채우며 내앞으로 다가온다. 낮익은 얼굴이다. 아!고향의 썸물에 비껴있던 그 처녀 아닌가! 민족의 정서가 한껏 무르녹는 오늘 고구려의 옛산성에 올라 너를 봄이 기쁘구나!

타다남은 바람벽앞에서

박함집

타다남은 바람벽앞에

사람들이 모여섰다

병사들

복구대원들

학생들...

지금 그들은 울고있다

무상치료제를 실시함에 관한

내각결정의 구절구절을

차마 마지막까지 읽을수 없어

무너진 벽체 불에 탄 병실

이 땅 어디에 간들 있으랴

환자를 눕힐만한 온전한 침대

상처에 감아줄 한토리의 봉대

그래서 더 깊어지는 생각들이

그래서 더 뜨거워진 가슴들이

방금 바람벽에 나붙은

공시문을 읽으며 울고있다

아, 무상치료제!

사람들의 건강에 짐이 된다면

억만금도 날려보내시던 장군님

그 크나크신 도량앞에서

다시 한번 목메여 우러르는

평양 하늘!

미국놈의 폭격에 맞아

거리와 마을엔 재가 날려도

인민이 살아있다면

그게 더없는 나라의 재부라고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인민

이 땅을 가꾸어갈 힘도

드림없는 인민의 신념에서 찾으시고

그토록 크나큰 은정 베풀어주시제

놀란것은 이웃들만이 아니였다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일으킨 전쟁에 흰기를 든

미국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조선은 그때 벌써

승리한 오늘에 살고있었거니

그렇다 그것은

장군님께서만이 쓰실수 있는 처방

우리 당만이 줄수 있는

가장 크고 값진 불사약이였다